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  
활성화 방안연구

경기문화재단



# 제 출 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연구물을

아마추어 음악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

연구책임 : 김정희 (민족음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경분 (음악학 박사)

연구보조 : 송재훈 (서울대학교 음악연구소 연구원)

코디네이터 : 최지연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  
활성화 방안연구

경기문화재단

# 차 례

## 제1부 서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6
제2장 연구의 방향 .....	8
1. 해외 아마추어 음악지원 정책 및 사례분석 .....	8
2. 한국 아마추어 음악의 역사와 현황 .....	8
3. 경기문화재단 아마추어 음악활동 지원 방안 .....	9
제3장 아마추어 음악의 개념과 의미 .....	10
1. 사회적 통념과 아마추어 예술 .....	10
2. 아마추어 예술의 새로운 해석 .....	11
3. 예술정책 대상으로서의 아마추어 음악활동 .....	14

## 제2부 해외 아마추어 음악활동 사례

제1장 외국의 아마추어 음악활동 개관 .....	19
1. 아마추어 예술의 사회적 위치 .....	19
2. 조사대상의 선정 기준 .....	20
3. 특기할 점 .....	22
제2장 여러 나라의 아마추어 음악활동 .....	24
1. 일본 : 일본의 음악을 수용한 아마추어 음악활동 .....	24
2. 영국 : 이민자의 고유한 문화를 고려하는 영국의 아마추어 음악활동 .....	31
3. 프랑스 : 아마추어 음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경제적 효과 .....	39
제3장 : 대표적인 사례로서의 독일 아마추어 음악활동 분석 .....	44
1. 독일 아마추어 음악 개괄 .....	44

2. 독일 아마추어 음악 현황 .....	48
3. 지역 특성에 따른 아마추어 음악활동의 특성 .....	49
4. 아마추어 단체와 음악학교와의 상호 협력체제 .....	55
5. 정부지원과 구성원의 자발성 간의 상호 작용 : 자원봉사자 제도 .....	59
6. 아카데미 하우스의 활용 - 질적 향상 및 구성원 간의 단결과 소통 ·	62
7. 독일 아마추어 합창단 : 독일합창연맹 .....	73
<b>제4장 해외사례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 .....</b>	<b>78</b>

## 제3부 아마추어 음악 현황

<b>제1장 한국 아마추어 음악의 역사 .....</b>	<b>87</b>
제1절 한국 아마추어 음악의 특수성 .....	87
1.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도입과 아마추어 .....	87
2. 식민지 이후의 한국의 양악과 아마추어 음악 .....	90
제2절 한국 음악계의 제도화와 아마추어 음악 .....	93
제3절 한국 아마추어 음악활동의 현황 .....	95
<b>제2장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활동의 현황 .....</b>	<b>97</b>
제1절 경기도의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일반 현황 .....	97
제2절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단체에 대한 자기 인식 .....	97
1. 음악단체활동의 현황 및 인식 .....	99
2. 아마추어 음악단체 회원들의 활동과 인식 .....	101
3. 아마추어 음악단체를 위한 지역 음악행사 현황 .....	103
4. 아마추어를 위한 음악교육 현황 .....	105
제3절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단체 활동 사례 .....	106

## 제 4 부 아마추어 음악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제언

1. 아마추어 예술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제언 .....	131
---------------------------------	-----





# 제 1 부

## 서 론



#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오랫동안 정부의 예술정책은 예술인과 그들의 활동을 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이를 당연시해왔다. 하지만 근래에 이르러 그간의 예술가 중심 정책이 예술을 ‘예술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예술 자체의 발전은 물론 예술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발휘하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sup>1)</sup> 동시에 예술의 발전에 있어 예술을 이해하고 스스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는 예술정책을 예술인 중심에서 예술향유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이를 “새예술정책”을 통해 발표하였다.
- "새 예술정책"은 '창의적인 시민', '창의적인 시민공동체', '창의적인 국가', '창의적인 예술'을 비전으로 세웠으며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를 가장 우선적인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sup>2)</sup>

표 1) 문화관광부 새예술정책 4대 기본방향 및 14대 역점추진과제

4대 기본방향	14대 역점추진과제
1. 향유자 중심 예술활동 강화	①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②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③ 예술의 공공성 제고
2. 예술의 창조성 증진	④ 장르별 예술 창작활동 지원 확대 ⑤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활동 지원 ⑥ 남북 및 국제예술교류를 통한 예술의 지평 확대 ⑦ 국립예술시설·단체의 기능 활성화 및 특화된 예술환경 조성
3. 예술의 자생력 신장	⑧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⑨ 예술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재교육 ⑩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⑪ 개성있는 지역문화 진흥
4.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	⑫ 예술지원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전환 ⑬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효과적 활용 ⑭ 예술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1) 문화관광부, 『21세기 새로운 예술정책』 (서울, 문화관광부, 2004), p.37

2) 앞 글, p.24~25

- 이러한 변화는 예술가 중심 정책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술의 가치와 사회적 의미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발전 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절대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문화적 요인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에서 가격이나 품질과 같은 경제적 가치보다 스타일, 트렌드 등의 문화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 사회발전을 위한 경쟁력은 문화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에서 비롯되며, 궁극적으로 개개인이 갖는 문화적 향수 수준 - 안목과 창의성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변화에 착안하여 "창의성"을 계발을 위한 새로운 문화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sup>3)</sup> 문화관광부의 정책변화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서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예술이야말로 창의성의 결과이며 예술창조와 향유만큼 인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 예술향유자 중심 정책에 있어서 경기문화재단은 중앙 정부보다 선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미 2001년부터 “도민의 문화예술 직접참여기회 확대”를 주요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아마추어 예술을 지원해왔으며 2002년에는 기전문화대학을 설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sup>4)</sup>
  
- 경기문화재단의 중단기계획 "전망 2010"은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문화 향유의 질적 내용이 변모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예술을 관람하거나 감상하는 수동형 관람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즉 문화예술소비자에서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겸하는 "생비자(prosumer)<sup>5)</sup>"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생적

3) 영국은 1997년 Blare 총리가 Creative Britain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이후, 1998년 이를 정책화한 "Creative Britain"을 발표하였다. 미국 역시 1997년 "Competitive America"와 "Creative America"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2000년도에 이를 정책화한 "Creative America"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4) 경기문화재단, 『전망 2010』 (수원, 경기문화재단, 2005), p.120

5)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6) 경기문화재단, 『전망 2010』 (수원, 경기문화재단, 2005), p.35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사업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주요 과제로 "아마추어 문화예술 클럽 생성 촉진 및 활동 지원"을 꼽고 있다.

표 2) 경기문화재단,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세부 사업 중에서

주요 과제	사업개요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 클럽 생성 촉진 및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클럽 현황 및 참여자 만족도와 요구 조사(2005)</li> <li>○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진흥 사례조사(2005)</li> <li>○ 경기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클럽 생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06)</li> <li>○ 경기 지역문화예술 동아리 생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실시(2007)</li> <li>※'지역문화예술기반공간 운영 활성화 사업'과 연계 실시</li> </ul>

- 그러나 새로운 정책과제에 따른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중앙정부나 경기문화재단의 '예술향유자 중심정책', '시민의 자생적 문화 활동 활성화'는 아직 선언(宣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과제에 포함된 '문화예술 시설의 이용확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증가' 등은 당초 문화 복지의 확대를 위해 수립된 사업으로 새로운 정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새롭게 제안된 다른 사업들은 아예 시행된 바가 없어 적극적인 정책실현 의지를 의심케 한다.<sup>7)</sup>

경기문화재단도 공모지원사업 대상에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된 목표를 지닌 구체적인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과제로 제시된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 클럽 생성 촉진 및 활동 지원'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sup>8)</sup>

7) 새예술정책 상의 세부 추진과제인 '동호인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동호인 예술제 개최', '전문예술단체와 문예동호인 간 공공 창작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위한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었다.

8) 경기문화재단의 아마추어예술 지원영역은 "도민의 문화예술 직접 참여기회 확대( ~'04)"→"도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05)"→"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06)"→"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07)"으로 변해왔다. 이 외에 아마추어예술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은 시행된 바 없다.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의 현황을 검토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경기문화재단의 '향유자 중심 정책'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효성을 갖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근본적 취지가 있다.
-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장르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마추어 예술은 단지 누가 행하느냐에 따른 구분일 뿐이며 실제적인 활동은 음악, 무용, 연극 등 전통적인 장르의 특성을 따르고 있다. 문학과 공연예술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를 수 없듯이 아마추어 예술도 하나의 정책,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아우를 수 없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지원정책도 전문적인 예술가, 단체에 지원과 마찬가지로 장르의 특성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정책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번 연구는 아마추어 예술 전반을 일별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접근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한 장르를 선택하여 그 특수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음악 장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음악 장르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타 장르에 비해 활동이 활발하며 참여인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현재 317개의 아마추어 음악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평균 인원은 단체 당 32명으로 총 참여인원이 만 명에 가깝다.<sup>9)</sup> 경기문화재단은 2006년도에 아마추어 예술에 대해 102개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그 중 음악분야는 31건으로 아마추어 317개 단체 중 10%에 불과하다.<sup>10)</sup>
-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조건보다 음악이 예술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고 실현하는데 보다 용이한 장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공

9)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내 아마추어 음악단체 모집단 및 표본조사결과보고서 (수원, 경기문화재단, 2006), p.7

10) 2006년의 경우, 아마추어 예술분야 지원 현황은 생활문화 31건 (14), 시각예술 66건 (23), 음악 71건 (31), 공연예술 30건 (19), 전통예술 및 기타 60건 (25)이었다. (괄호안은 지원 결정 건수)

공성'은 예술지원에 있어 자기 정당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예술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무관심한 혹은 그와는 별개의 가치에 경도(傾倒)된 예술가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술에서는 이러한 면이 매우 취약하며 예술지원을 둘러싼 비판과 반성의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sup>11)</sup> 아마추어 예술 지원에 대해서도 '사적(私的) 취미활동을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예술이 '사적 취미활동' 차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지 아마추어 예술이 본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 아마추어 예술에 있어서 공공성이란 장애인수용시설을 방문하거나<sup>12)</sup> 뜻있는 행사에 무료 출연하는 사회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이벤트보다는 소수민족이나 장애인이 동등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거나(영국)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콘서트를 개최하는(독일) 활동이 보다 본질적인 것이다. 단체의 '운영'이나 '음악활동' 속에 이미 사회적 가치가 담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서구에서 아마추어 음악을 그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기반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마추어 음악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더 없이 소중한 근거지가 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음악적 지향에서 활동방식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외국 아마추어 음악활동의 현황과 주요 사례를 통해 한국 아마추어 음악활동에서 과의 , 특히 경기도의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아마추어 음악활동이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점검하고자 한다.
- 또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주요 단체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

11) 공공성의 결여는 예술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새예술정책'은 예술을 '소수가 누리는 표현양식과 활동'으로 보는 제한된 인식이 공공성 결핍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앞 글 p.37)

12) 상기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내 아마추어 음악단체는 평균 6.2회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제2장 연구의 방향

### 1. 해외 아마추어 음악지원 정책 및 사례분석

- 서구에서는 국가가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음악은 전체 아마추어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유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책적으로 주요한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 서구의 사례를 참조함에 있어 지원정책이나 제도 자체를 주목하기 보다는 음악활동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제도가 선행(先行)하여 아마추어 음악이 활성화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아마추어 운동을 적절히 뒷받침해 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사례분석의 대상으로는 아마추어 음악활동이 활발하면서 각기 특색이 분명한 나라를 선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음악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중시하는 프랑스,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영국, 체계적인 국가지원이 이뤄지는 독일과 우리와 같은 문화권인 일본을 선택하였으며 이중 정부에 의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독일을 집중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 2. 한국 아마추어 음악의 역사와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음악의 수용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아마추어 음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점차 아마추어 음악은 위축되고 영향력도 미미해져서 최근에는 사적(私的) 취향을 만족시키는 취미활동 정도로 치부될 정도가 되었는데 이는 결코 전문음악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 일본의 경우에는 전문음악과 아마추어 음악이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아마추어 음악인들은 자신의 활동에 열성적일 뿐 아니라 수준높은 관객으로서 일본 클래식 음악의 두터운 후원층이 되고 있으며 전문음악인들은 그들을 위한 곡을 쓰는 등 아마추어를 위한 음악적 기여(혹은 봉사)를 일종의 의무처럼 당연시하고 있다.



- 일본과 비슷한 음악적 환경에 있으면서도 일본의 아마추어 음악과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음악이 사뭇 다른 것은 단지 우리나라 아마추어 음악의 역사가 일천하거나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만들어 낸 불가피한 결과라고 강변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나라 아마추어 음악만의 독특한 문제점 때문이라는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나마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아마추어 음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동시에 정책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아마추어 음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현황조사의 범위는 경기도에 국한될 것이다. 현재 아마추어음악의 전국적 현황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조사 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현황은 본 연구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 현황조사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경기문화재단 아마추어 음악활동 지원 방안

- 아마추어 음악활동에 있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과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의 현황을 기초로 아마추어 음악 활성화 위한 과제를 추출함으로써 아마추어 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 그러나 경기문화재단이 아마추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을 터이므로 이상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경기문화재단의 미션과 역할, 역량 하에서 실현가능한 수준의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고자 한다.
- 정책 및 이를 구현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은 첫째, 연습이나 공연을 위한 시설 등 환경여건의 개선 둘째, 새로운 음악이나 아마추어 음악활동 및 기회에 대한 광범위 정보제공 셋째, 아마추어 음악 지도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넷째, 아마추어 음악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후원 확대 방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두 포괄하게 될 것이다.

# 제 3 장 아마추어 음악의 개념과 의미

## 제 1 절 아마추어 예술의 개념

### 1. 사회적 통념과 아마추어 예술

-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것이 기본 속성이므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전문적인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를 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예술분야에서 아마추어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리하려는 시도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이 스스로를 전문예술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은 스스로를 아마추어가 아니라고 단체들은 아마추어 예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예술이 자연스럽게 형다른 사회와 비교했을 때,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아마추어 예술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팔배하여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며 본 연구의 초두에 아마추어 예술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예술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추어에 대한 사회적 통념, 오해이기 때문이다.
- 사전적 의미에서 아마추어는 "취미로 문학·학문·예술·기술·스포츠 등을 즐기는 사람, 비전문가"로 정의된다. 아마추어(amateur)의 어원(語原)인 라틴어 amātor는 사랑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귀의((歸依)한 사람을 뜻하는데 어원으로만 보자면 비전문가보다는 애호가(愛好家)가 본디 뜻에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아마추어를 프로페셔널과 대비하여 해석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 여하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는 스포츠에서 비롯되었다.<sup>13)</sup> 단지 명예와 관련된 것이었던 스포츠가 대중적 오락거리로 변하면서 직업적인 선수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며 후일 올림픽이 창설되면서 순수한 체육

13) 이러한 전통은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제도화한 것은 1939년 영국의 한 보트 경기대회의 규정으로 국제올림픽 위원회 아마추어 규정의 모태가 되었다.

- 그러나 통념적으로는 아마추어는 '숙련되지 않아 서투른' 혹은 '제대로 배우지 않아 제멋대로인'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과 같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통념은 사실 매우 오래 전부터 있어서 이미
- 문화적, 사회적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마추어 예술이 형성되고 성장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아마추어의 뜻이 이렇게 변화하더라도 실제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거나 정책적으로 홀대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교육과 계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시대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단순히 개인적 만족을 위한 취미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마추어 예술은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아마추어 예술에 있어 예술적 가치의 추구보다는 참여자의 자기만족도가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게 되었다.<sup>14)</sup> 경기도의 음악단체들은 아마추어 단체라는 지칭이 자신들을 폄하(貶下)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강하며 대부분 스스로를 아마추어 아닌 전문음악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드물지만 '순수예술단체'라는 의미가 불분명한 조어(造語)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2. 아마추어 예술의 새로운 해석

- 최근 예술정책에서 아마추어예술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과거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를 거쳐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경제를 비롯한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도구적 관점이며<sup>15)</sup> 또 다른 관점은 문화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보고서 (World Culture Report)는 '국가의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여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의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인권선언 27조는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14) 경기문화재단의 아마추어 예술 지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에서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최우선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15) 영국의 Creative Britain (은 0000년도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을 포함한 강력한 문화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 일본이 육성해야 한다는 영국은 0000년도에 문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정책을 발표하였으며 0000년도에는 미국, 0000년도에는 일본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2004년도에

1.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sup>16)</sup>

○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문화예술정책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 미국의 문화예술지원기구인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는 1996년 예술가 개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목표(theme)중심 지원체제로 개편하면서 시민들이 예술을 이해하고 접하게 하는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와 교육 (Public Access & Education)"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sup>17)</sup> 영국의 지원기구인 ACE (Art Council England)는 2006~2008년도 아젠다에서 각 지역사회에서 보다 역동적인 성인과 청소년들의 예술 참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sup>18)</sup> 연구의 배경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의 예술지원이 향유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 지원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재평가도 문화예술 향수, 아마추어 예술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즉 오랫동안 예술지원의 원칙이었던 창작자 개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관객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이

16)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17) 최지연, *American Art Policy and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 in the 1990s*, (Washington, American University, 학위논문, 미간행 2002) p.24

18) ACE가 2005년도 발표한 Agenda의 전문(前文)은 아래와 같다.

Arts Council England's ambition for 2006-8 is to put the arts at the heart of national life and people at the heart of the arts.

Our aim is for everyone in the country to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a rich and varied artistic and creative life. We will ensure that more high quality work reaches a wider range of people – engaging them as both audience and participants. We will support artists and arts organisations to take creative risks and follow new opport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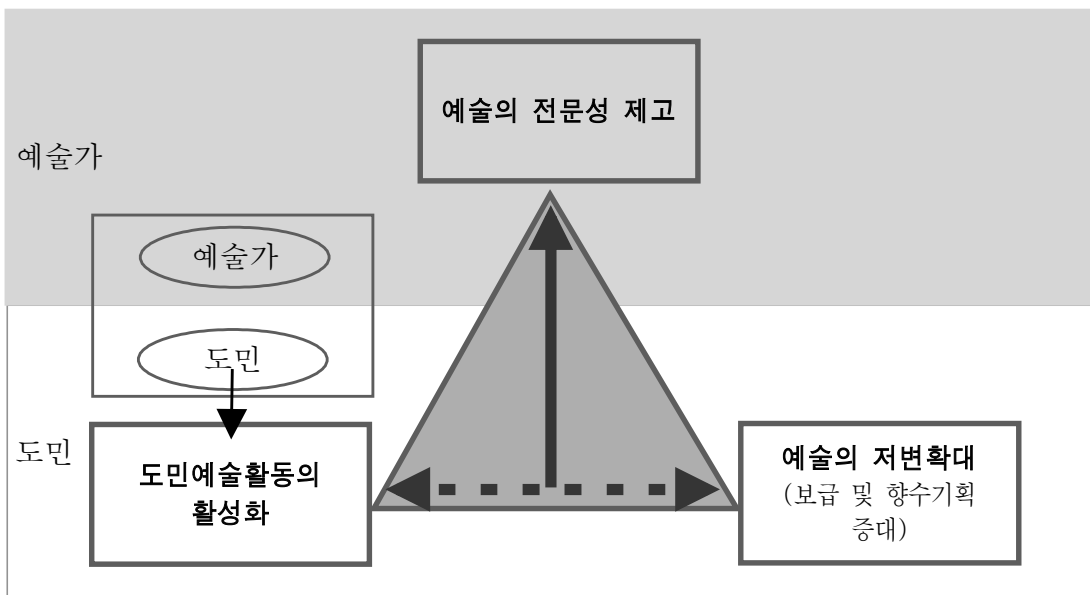
By 2008 we hope to see:

- a more confident, diverse and innovative arts sector which is valued by and in tune with the communities it serves
-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arts by adults and young people across the country To achieve this, we will have to strengthen our own performance and support our main partners, arts organisations and local authorities, to improve theirs.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 시작한 것이다.

- 문화관광부의 새예술정책은 기존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국민이 예술을 좋아하게 되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예술시장이 커지게 되며 홍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예술지원이 늘어나 예술가의 창작기반이 확대됨. 이러한 순환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는 시장에서 실패하였으나 가치가 있는 실험적인 예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현재는 국민이 예술을 별로 찾지 않는 상황에서 예술시장이 최소한의 예술가도 부양할 역량이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모든 예술계의 지원수요가 정부로 몰리게 되니 한정된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로서는 나눠주기식 정책을 할 수 밖에 없게 됨<sup>19)</sup>"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 또한 경기도의 "경기도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간략하게 아래 도표와 같이 시각화하고 있으며 .....과 같이 **도민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위해 .....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7 ) 경기도 문화예술의 과제 (경기도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04)



19) 문화관광부, 21세기 새로운 예술정책 (서울, 문화관광부, 2004), p.23

### 3. 예술정책 대상으로서의 아마추어 음악활동

- 아마추어 예술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되는 정책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지 않는 데에는 예술지원 정책에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 아마추어 단체 중 많은 단체들이 스스로를 아마추어로 규정하는 데 상당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다. 아마추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마추어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어려운 것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지원제도도 이러한 태도를 부추기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질적 현저히 떨어지는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지원받고 마치 공인(公認)을 받은 양 예술인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와의 경계가 그 경계가 사실상 구분되지 않기 때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가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전문예술인을 자처하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아마추어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보다는 가 많아특히 지역의 경우, 일시적인 프로젝트 팀이나 아마추어 팀들이 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랜 기간 주된 지원대상이 되어온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의 상당수가 수준도 낮은 아마추어 단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제도상으로는 아마추어와 전문예술인의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더욱 문제로 보인다. 도 제도도 아마추어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를 꼽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술지원이 기존의 예술지원 제도는 아마추어를 배제했어야 하나 지역의원칙적으로 우수한 작가와 작품을 지원해야 하나 를 지원하는 것이예술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예술가 중 상당수가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지원에서 아마추어단체의 배제 혹은 소액지원 ② 아마추어 단체는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며 수준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통념을 꼽을 수 있다.
  
- 대한 사회적 를 배제하거나 극히 소액을 지원하지원하지 이는 아마추어를 그 동기나 목적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 예술적 성취 혹은 숙련도에 따른 구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아마추어 예술을 가장 먼저 지원해 온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그 지원 영역의 명칭이 지속적으로 변해 왔는데<sup>20)</sup> 이러한 저항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 각주 6) 참조

- 직업적인 예술가, 예술단체가 극히 드문 현실 때문에 오랜 기간, 예술지원에 있어 아마추어와 전문적인 예술가, 단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 온 지원 사업의 관행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전문적 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도 다수의 구성원이 전공자임을 들어 전문예술 단체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sup>21)</sup>
- 이러한 혼란은 예술지원 전반의 지원취지를 약화시키고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아마추어 예술에 있어 그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아마추어 입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능중심의 훈련으로 일관하거나 반대로 아마추어 예술을 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활동으로 수준에서 머무르게 함으로써 아마추어 예술이 갖는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 아마추어 예술의 본질은 구성원의 예술에 대한 자발적 헌신이다. 구성원의 자기만족은 외형적 활동에서 오는 사회적 성취 이전에 예술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깊어지면서 얻어지는 내적 즐거움이어야 하며, 이를 스스로 속한 커뮤니티와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여야 한다.
- 추후 다른 나라의 아마추어 음악활동과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겠지만 아마추어 예술지원은 이러한 아마추어 예술의 기본적인 정신의 발현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1) 이들은 예술단체를 직업적 단체 (프로페셔널), 순수예술단체, 아마추어 단체로 구분하고 수입이 있는 직업적 단체나 취미활동에 불과한 아마추어 단체에 대한 지원 대신 자신들과 같은 순수예술단체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 제 2 부

---

### 해외 아마추어 음악활동 사례

제 1 장 외국의 아마추어 음악활동 개관

제 2 장 여러 나라의 아마추어 음악활동

제 3 장 대표적인 사례로서의 독일 아마추어 음악활동 분석

제 4 장 해외사례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



# 제1장 외국의 아마추어 음악활동 개관

## 1. 아마추어 예술의 사회적 위치

○ 프랑스에는 15세 이상 연령의 아마추어 음악인은 5백만 명, 독일에서는 7백여만 명이 아마추어 음악활동을 통해 삶의 기쁨과 자기 동질감을 확인하고 있다.<sup>22)</sup>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아마추어 음악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아마추어 음악활동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중앙조직이 있으며 이 조직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둘째, 국민 당 문화 지원금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프랑스의 경우는 지원금이 일인당 5천 달러에 달하고 있다.<sup>23)</sup> 셋째, 아마추어 음악의 중앙조직은 장르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단체들 간의 연계와 정보교환 등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운동은 아마추어 음악활동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운동은 청소년의 범죄율이 매우 높은 베네수엘라에서 클래식음악을 통해 범죄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아이들은 거리를 배회하기보다 집에서 악기 연습에 몰두하고, 거리에서 누군가 클래식음악을 연주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되었다. 지갑을 훔치고, 자동차 바퀴를 자르고, 마약을 파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에서 악기를 선물로 주고 음악연습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90개의 음악학교가 설립되었고 1만 5천 명의 교사와 25만 명의 학생들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서 즐겁게 연주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연간 약 3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시민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약 380만원인데 비하면 36억 원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액수이다.<sup>24)</sup>

22) 프랑스 데이터는 Lettre D' Information, "La Pratique Musicale Amateur",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6 avril 2000/65, 독일 데이터는 Musik-Almanach 2003/2004와 [www.saengerbun.de](http://www.saengerbun.de)를 참고하였음.

23) 이토오 야스오 외(이홍재 옮김),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2002, 151.

- 베네수엘라 청소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청소년 필하모니 시몬 볼리바르 (Simon Bolivar)”는 클래식 본고장인 유럽의 연주회에서도 베토벤과 같은 유럽의 레퍼토리를 연주해 유럽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독일 음반회사인 그라모폰에서 이미 CD를 녹음했다. 이들의 연주에는 유럽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에너지와 음악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배어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 25세의 지휘자 두다멜(Dudamel)도 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다가 지휘를 하게 된 경우인데, 2004년 독일 밤베르크에서 있었던 구스타프 말러 지휘자 대회에서 대학과 아카데미 출신의 수백 명이 넘는 지원자를 물리치고 상을 탔다.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아마추어 음악운동은 좋은 문화정책과 지원이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비참한 사회에 빛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귀한 예임에 틀림없다.

## 2. 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나라들과 아시아의 일본 외에도 세계 각 나라들은 나름대로 음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통계자료 및 보고서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음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참고하고, 정책 결정을 도와주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이다.
  - **프랑스**는 문화적 국민, 문화적 국가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나라인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민들의 음악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는 국민 1인당 지원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이러한 지원정책은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이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한 프랑스는 우리 아마추어 음악운동을 위한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영국**은 외국에서 온 타 민족들에게 동화(同化)를 요구하기보다는 나름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나라이다. 아마추어
- 24) 베를린 필하모니의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말했듯이, “이것은 현재 클래식 음악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신문기사 “Kinder des Olymp”, Die Zeit, 2006년 12월 7일, 50호.

합창단의 활동에 배어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를 통해 우리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을 알 수 있다. 시민 개개인 뿐 아니라 소수 민족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정부 기관의 진정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화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 **독일**은 중앙정부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음악지원이 매우 활발한 나라이다. 지역마다 관악밴드가 있고, 매년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공동체의 행사에는 반드시 아마추어 음악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아마추어 음악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자원봉사자 시스템이나, 아카데미 하우스의 설립으로 음악단체가 침체되지 않고 구성원 간의 사회적 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시민들이 원활한 삶을 영위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아마추어 합창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특히 아마추어 음악단체들이 선호하는 아카데미 하우스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자발성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상호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는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관점들이 많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음악정책의 외적인 성과나 결과보다 어떻게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점 때문에 독일의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일본**도 서구의 나라들처럼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아마추어 음악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프랑스나 영국보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에 못지않게 시민 개인의 참여가 더 활발하게 요구되는 현상을 보인다. 각 아마추어 음악단체는 회원의 회비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아마추어 합창단의 조직도 전체가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고 총괄하는 중앙조직이 있어 자료보관이나 대외적 홍보에도 매우 유리한 입장이다. 그리고 음악레퍼토리도 서양음악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경우 일본의 전통음악레퍼토리와 동시대 일본음악가의 음악을 선택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점이 많아 보인다. 이런 점들은 우리의 아마추어 합창단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 3. 특기할 점

- 각 나라는 전통과 역사가 다르므로 문화적 현상도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테크닉의 발달로 유럽과 아시아, 전세계의 상호 영향력이 오늘날 일상 속에 더욱 치밀하게 스며들어 있다하더라도 그 현상에만 집착하여 이해하면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서구의 제도와 문화현상이라도 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음악아카데미 하우스가 아마추어 음악인들에게 음악적 훈련을 하며 단원들의 의사소통과 휴식에 좋은 역할을 하고 음악인들에게 사랑 받는 장소가 되고 있고, 단순히 훈련하는 공간으로서 뿐 아니라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되어 아카데미하우스의 이미지는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드웨어인 건물만 있고 건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소프트웨어적인 활동과 교류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이다. 건물이 없어서 정책실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따지고 보면 그리 설득력이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독일의 아카데미 하우스를 우리나라에 적용 시범해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통해서 원활한 음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시민들의 의식수준과 멀리보고 계획하는 습성은 음악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아카데미 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서구와 일본의 합창운동은 우리나라의 합창단 운동에 비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합창단원 개인이 가진 음악적 능력이나 각 합창단이 가진 장점은 결코 서구나 일본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조직과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각 개인이 가진 능력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거나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아름다운 합창음악으로 빛을 낼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개인은 강하나 단체는 약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음악정책이 뒷받침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체계를 외국사례에서 받아들인다 해도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조직 속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 또 다수가 모여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고려하면서 조직적인 구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조직을 만드는 정책이 개인을 옳아매는 것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우리의 취약점은 자료수집과 보존인데, 서구와 일본은 이점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합창음악단체만 보더라도 항상 자료를 남기고 이를 보존하는 자료실 또는 도서관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건물만 있고,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거와 역사를 통해, 그리고 하나 둘씩 자료가 쌓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기본인식과 철저한 자세가 바탕에 깔려있다. 이런 정신을 파악하고 모범으로 삼아야 우리의 합창운동도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멀리 보지 못하고 일회성의 정책과 보이기식의 행정이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지 않으면 매번 투자하는 지원금과 쏟아 붓는 노력이 헛되이 낭비가 됨은 어떤 좋은 정책 아이디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성공적인 정책 뒤에는 항상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오랜 시간의 축적된 노하우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특히 부족한 것은 아마도 이노베이션보다는 축적된 노하우일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보존과 이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보충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 제2장 여러 나라의 아마추어 음악활동

### 1. 일본 : 일본의 음악을 수용한 아마추어 음악활동에 대해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시민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이다. 같은 아시아에 자리잡고 있지만 메이지 시기부터 서양문화를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자기화하였던 일본의 시민음악문화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에게 부족한 조직적인 측면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일본의 합창 총연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본 합창 총연맹JCA(Japan Choral Association)<sup>25)</sup>

- 일본의 아마추어 합창단은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합창단의 수는 전국에 수 만개에 이르며 이것은 음악문화의 큰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각 현 단위로 아마추어 합창음악 단체가 조직되어 있지만, 일본 합창 총연맹JCA이라는 전국적인 조직이 상위단체로 있어 전국의 합창음악단체를 연결해주고 정보교환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개별 단체의 요구에 따라 합창음악을 육성, 지도하며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 사단법인 일본 합창 총연맹의 정회원은 전국 54현 지구의 합창 연맹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연맹에 가입한 단체의 수는 모두 5천 156개이다. 합창 총연맹은 도쿄의 아사히신문사에 본사를 두고,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 중부, 간사이, 시코쿠, 규수 등에 각 지부를 두고 활동한다.
- 일본 합창 총연맹은 일본의 전국적인 차원에서 매년 합창콩쿨을 개최하는데,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직장부, 일반부로 모두 5부의 전국대회를 조직, 지원하고 있다. 연맹은 합창음악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합창대회라는 목표를 제시하여 회원들의 결집력과 연습욕구를 자극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합창대회를 통해서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점검하는 기회로도 삼고 있다.

25) 본 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www.jcanet.or.jp](http://www.jcanet.or.jp)의 일본합창연맹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국제교류사업: 연맹은 세계 합창 연합(IFCM,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에 소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립 멤버로서 해외와의 정보교환이나 세계 합창 심포지엄, 세계 청소년 합창단(WYC, World Youth Chorus)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국제교류사업에 활발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 칸타타제나, 세계의 합창제, 콩쿨 등에 일본의 합창단을 추천하고 파견하는 등의 업무도 한다. 말하자면 일본의 아마추어 합창단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기 실력을 가늠해보고, 자극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 연맹지 출판: 연 4회 발행의 회보 「하모니」는 일본의 유일한 합창 전문지로서 큰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년, 콩쿨 과제곡을 수록하고 있는 합창곡집 「합창 명곡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
- 자료실 운영: 일본합창 총연맹은 일본내 합창음악에 관한 기록을 자료실이라는 도서관에 비치해두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수 십년 축적된 합창음악연주문화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를 모두 모아두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아마추어 합창 연주회 테이프를 <즐거움을 나누는 콘서트>라는 컬렉션 제목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이 테이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복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사이타마현 도코르자와市の “쇼자와 매너코르” Tokorozawa Männerchor<sup>26)</sup>

- 1987년 1월 “노래 없이는 재미없다”라는 구호 하에 노래를 좋아하는 남성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 토코멘 즉 쇼자와 매너코르의 시작이다. 창립 멤버들은 합창단이 이루어야 할 3개의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는 전국 합창 콩쿨에 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위촉 작품을 연주하는 것, 셋째는 해외연주 여행을 가지는 것이었다 한다. 단순히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이들의 꿈은 일본의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 지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음악풍토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꿈은 이제 경제력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두 번째의 목표, 위촉작품을 연주하는 것은 이들이 음악연주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 어디에 가치를 두는 지 잘 보여준다 하겠다. 위촉작품은 돈

<sup>26)</sup> 쇼자와 매너코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tokomen.jp](http://www.tokomen.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들고 작곡가를 선정하고 위촉하는 데 시간도 드는 까다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음악문화가 튼튼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시사해 준다.

- 1990년 첫 꿈은 홀스트(Gustav Holst)의 작품으로 합창 콩쿨에 도전하여 관동현을 이기고 삿포로의 전국 합창대회(제 43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그 후 1994년에는 도코르자와 시에 훌륭한 시민 문화센터가 탄생하고 새로운 연주홀을 개관하면서 쇼자와 매너코르가 제 8회 연주회를 공연하게 되었다. 이 때 단원의 수는 (점차 늘어) 80명에 이르렀다. 1996년 쇼자와 매너코르의 10주년 기념 연주회에서 작곡가 히사도메 누리유키에게 위촉하여 <생황과 남성 합창을 위한 비가 오이풀>을 연주하였다. 텍스트는 쇼자와가의 향토 작가 미가시마가자의 단가 <오이풀>이고, 생황연주는 세계적 생황연주가 이시카와고가 맡았다. 이것으로 쇼자와 매너코르의 두 번째 꿈은 실현되었다.
- 쇼자와 매너코르의 세 번째 꿈은 창립한 지 거의 20년 되는 2004년에 해외 연주를 하게 되어 이루어졌다. 도코르자와시와 자매 도시인 한국의 안양시를 방문하여 안양시립합창단과 안양 시립소년소녀 합창단과 함께 공연하였다. 2004년 9월 22일 개관된 평촌 아트홀에서 같은 해 10월 16일 <달빛과 비 속으로>, <고향생각> 등을 노래했다. 특히 <고향생각>은 5절까지 모두 한국어로 외워 노래해서 한국인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남성합창단을 위한 <달빛과 비 속으로>는 일본의 호리구치 다이가쿠 작사에 시미즈수 작곡으로 모두 “달밤”, “가을의 비 속으로”, “비속에서 한탄”, “달빛과 비, 피에로”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곡이다. 그리고 2007년 8월에는 독일의 뮌스터 시와 뒤셀도르프 시와의 교류하면서 현재 해외연주회를 계획중이라 한다.
- 1987년 7월 제 1회 연주회를 가지고 2006년 6월 25일 제20회의 연주회를 가진 쇼자와 매너코르는 사이타마현의 대표 합창단 중 하나로 매주 토요일 도코르자와시의 중앙 공민관에서 연습을 하며 지휘자, 반주자, 각 성부의 연습장(베이스, 바리톤, 테너)은 모두 음악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전문가이다. 이들의 레퍼토리에는 항상 일본의 작곡가 곡이 들어 있고, 특별 기념행사 때에는 위촉곡을 초연한다. 지방자치체의 지원을 받지만 각 단원들은 매달 회비 4천엔을 내어 음악활동을 직접 부담한다.

○ 레퍼토리로는 음악적으로 무리가 없는 잘 알려진 합창곡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1987년 제1회 정기연주회의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항상 일본음악가의 곡이나 일본 민요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한 행사에서는 작곡가에게 합창곡을 위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마추어 음악단체가 작품을 위촉하게 되면 그만큼 작곡가들에게도 작곡의 기회도 많아지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이루어져서 전체 음악문화의 수준이 향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아마추어 음악인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전문 음악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리라 믿는다. 우리의 작곡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려면 학교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006년 6월 25일 20주년 기념 연주회의 프로그램은 모두 4부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 1부는 일본 작곡가의 기존 작품
- 2부는 교회음악, 슈베르트, 구노의 교회음악
- 3부는 영국 민요, 흑인 영가 등의 편곡된 음악
- 4부는 위촉작<무가>가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니이미덕영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 쇼자와 매너코르의 전체적인 레퍼토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 미국노래
  - Grand father's clock
  - Silver threads among the gold
  - Carry me back to old Virginny
  - Oh my darling Clementine
  - When it's lamp lighting ' time in the valley
  - In the shade of the old apple tree
  - Shenandoah
- 미국 흑인 영가
  - The battle of Jericho
  - Little innocent lamb
  - Ride the chariot
  - Deep river
  - Swing low sweet chariot
  - Set down servant
  - Dry bones
- 독일노래
  - 진실한 사랑 Treue Liebe
  - 내 맘속에 Du, Du, liegst mir im Herzen

이별 Abschied  
들장미 Heidenröslein  
눈에 모래뿌리는 사람 Sandmännchen  
롤레라이 Lore-ley  
가우데아무스 Gaudeamus  
짧은 시간 Stündchen  
건배노래 Trinklied  
밤 Die Nacht  
봄의 노래 Frühlingsgesang  
보리수 Der Lindenbaum

- 그 외 유럽노래

Funicli Funicula (Italy)  
Torna a Sorrento (Italy)  
O Sole mio (Italy)  
The last rose of summer (Irish)  
Danny Boy (Irish)  
Annie Laurie (Scottish)  
Stenka Razin (Russian)  
Kalinka (Russian)  
The Nightingale (Russian)  
Aganiyoku (Russian)  
Amuhrskie Bohrnui (Russian)

- 일본민요

사이카라 부쉬 (미야기 현)  
모가미가와 푸나우타 (야마카타 현)  
우시오이 우타 (이와테 현)  
세토노 푸나우타 (히로시마 시)  
오테모안 (쿠마모토 현)

- 일본 오리지널 남성합창곡 (작곡자)

Moonlight and Pierrot (오사무 시미추)  
Pray for the mountain (오사무 시미추 )  
Six end poems for lovely Chieko (오사무 시미추)  
A life of water (사부로 타카타)  
A cold wind (사부로 타카타)  
Mt. Fuji, (타케히코 타다)  
A poem of Yanagawa dist. Customs (타케히코 타다)  
The rain (타케히코 타다)  
From the lyrics of Shinpei Kusano (타케히코 타다)  
At the sky and the tree(토쿠히데 니이미)  
Dancing song-III (토쿠히데 니이미)

A poem of marine birds(료우초우 히로세)  
 Think about flowers (토쿠히테 니이미)  
 Paula (토시 이조베)  
 Awa dist. (미노루 미키)  
 A chapter of fierce animals(토시나오 사토)  
 Four praying songs (요시히사 후지와라)  
 Mountain rave (요우치 타가바시)  
 Song of winter tree and the Sun (칸 이시이)  
 A wiled Japanese flower Burneth (토모유키 히사토메)

- 외국 합창곡

Gustav Holst <인터세션>, <굳 데이>, <러브 송>, <건배의 노래> 등  
 Cherubini <키리에>, <아뉴스 데이>.  
 Anton Bruckner <헬골란드>  
 Johann Straus<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Zoltan Koday 노래 다수

- 오라토리오

Gounod, Schubert, Rheinberger, Cherubini  
 Messe in G-Dur  
 Messe in B-Dur  
 Requiem in D-moll

- 뮤지컬

Richard Rodgers <The sound of music>  
 Mitch Leigh <A Man of La Mancha>  
 Richard Rodgers <The South Pacific>  
 Richard Rodgers <Oklahoma>  
 Lloyd Webber <Memory from the Cats>  
 Jerry Bock <Sunrise, Sunset>  
 Frederik Loewe <With a little bit of luck from My Fair Lady>

- 오페라 합창

Beethoven <Fidelio>중 갇힌 자들의 합창  
 Gounod <Faust>중 군인의 합창  
 Verdi <Il Trovatore>중 합창  
 Wagner <Der fliegende Hollander>중 선원들의 합창  
 Wagner <Tanhäuser>중 순례자의 합창  
 Weber <Der Freischütz>중 사냥꾼의 합창

- 쇼자와 매너코르의 레퍼토리에도 우리나라 아마추어 합창단 단골 합창 레퍼토리에서처럼 서구 클래식의 유명한 대중적 멜로디, 오페라의 합창, 뮤지컬 주제곡이 여기에도 눈에 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작곡가가 쓴 위촉곡이 많다는 점,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선곡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슈베르트의 미사곡과 같은 수준 있는 곡들도 프로그램에 넣고 있음을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종합해서 말하면 레퍼토리가 매우 다양한 것이 본질적인 차이로 보이는데, 20여 년간 존속되어 오고 매년 정기 연주회를 하는 합창단이므로 이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합창단의 지속성과 다양하고 풍부한 레퍼토리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음악육성정책을 위해서 먼저 기존 합창단과 난립해 있는 합창단 연합회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전국적 연락망이 있는지, 서로 간의 교류등을 점검하여 어떻게 아마추어 음악 단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료보존과 관리는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정책이 긴 안목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또한 아마추어 음악이 꽃피기 위해서는 음악을 비싼 수입품, 사치품으로 대하는 사회 전반적인 태도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세미나, 행사, 홍보 등에도 힘을 기울여, 음악행위가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시민의 삶에 중요한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영국 : 이민자의 고유한 문화를 고려하는 영국의 아마추어 음악

### 1) 소수자 문화를 장려하는 프로젝트<sup>27)</sup>

- 영국에는 각 지역마다 외국에서 이주한 비서구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 도와주고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다. BBC Roots initiative와 같은 조직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그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돕고 서로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국립 예술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 Arts Officers(NALGAO)가 있어서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증대하고 지역적 차원의 작업을 도와주고 조직간의 이해와 관심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 데시벨 decibel이라는 프로그램은 영국 예술평의회에서 프로젝트로 시도한 것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대중음악가, 아마추어 음악가, 직업적 음악가 및 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2003년 5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영국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꽃피도록 특별히 외국인 이주자들, 즉 이차대전 이후의 이민자들의 문화를 장려하고 이들의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데 주력하였다. 여기에는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카리브해에서 온 사람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음악문화만이 아니라, 미술, 거리의 퍼포먼스, 토론회, 페스티벌, 전시회 등 문화영역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사업이다.
- 이런 프로젝트를 시도하여 얻고자 하는 목표는 첫째, 아프리카와 아시아, 카리브해에서 온 사람들의 예술문화활동을 존경하고 이들의 작업과 조직을 인정한다, 둘째, 영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카리브해 예술인들과 그 그룹이 잘 활동하도록 돕는다. 셋째, 이로써 영국사회가 여러 목소리들을 수용하는 것을 장려한다.<sup>28)</sup>

27) 영국예술위원회의 홈페이지 중 [www.artscouncil.org.uk/documents/projects/phpRzu9bH.doc](http://www.artscouncil.org.uk/documents/projects/phpRzu9bH.doc) 와 [www.artscouncil.org.uk/aboutus/project\\_detail.php](http://www.artscouncil.org.uk/aboutus/project_detail.php)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8) 물론 영국 웨일스 대학(University of Wales)의 역사학자 피터 램버트(Peter Lambert)교수와의 (2007년 6월 27일 한양대학교) 대담에서 영국사회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민족문화의 인상을 주는 자료의 주장이 실제 영국사회 실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영국은 정책적으로 소수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두드러짐은 분명해 보인다.

- 이 프로젝트는 또한 “흑인청중과 아시아인 청중을 위한 마케팅”이라는 훈련 코스를 넣었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런 노력으로 예술조직의 44%가 비서구계 청중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대답했고, 이중에서 36%가 이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청중수가 지난 해와 같은 시기에 비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도는 영국사회가 소수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예술문화활동을 하는 주체만이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고 향유하는 청중의 관점을 포괄하는 것은 시민문화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지점이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2) 아마추어 합창단 메이킹 뮤직 Making Music<sup>29)</sup>

- 영국의 아마추어 합창단 중 가장 활발한 단체 중 하나가 메이킹 뮤직 Making Music이다. 1935년 요크에서 민족 음악회연합(The National Federation of Music Societies)으로 조직된 이 단체는 현재 13만 8천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것은 영국 인구의 0.3%에 해당하고, 평균연령은 44세이다. 매년 연주회는 총 8천 93회를 열고, 한 주에 거의 160회의 연주회가 열린다. 매년 개최하는 워크숍은 558회이며 매년 176회의 교육 세미나가 기획되고 실행된다. 숫자로 나타난 활동이 모두 성공적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추어 합창단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숍과 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아마추어 음악인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만약 이를 통해 단원들은 생활의 활력을 느끼고 나아가 합창행위에 더 의욕을 느낄 수 있다면 그만큼 자발적인 단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 Making Music 단체들은 평균 3천 600회의 연주회에서 20세기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2,230회의 연주회는 현재 살아있는 동시대의 작곡가 음악을 연주하여 Making Music 회원들이 매해 새로운 작품을 위촉하는 숫자는 평균 221곡이고 525개의 단체가 현재 작품 위촉을 하고 있거나 이전에 위촉한 적이 있다. 일본처럼 영국의 합창단체도 동시대 음악가와 20세기 음악에 관심을 보이고, 위촉 작품의 연주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음악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형성되려면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음악문화에서는 각 합창단체가 위촉 작품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 그리 인식이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풍토인

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makingmusic.org.uk/html/60.shtml](http://www.makingmusic.org.uk/html/60.s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데,<sup>30)</sup>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문화상태가 기형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 Making Music 회원들이 매년 전문 음악가들에게 내는 돈은 8백90만 파운드이고, 91만6500파운드가 음악출판에 흘러 들어간다. 이 액수는 영국 내에서 사용되므로, Making Music 회원들이 많을수록, 또 활발하게 음악을 향유하고 즐길수록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득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레슨 비용이 높지만,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어 세금을 부가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음악행위가 얼마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도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도 음악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수익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을 프로젝트로 기획하여 숫자로서도 아마추어 음악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Making Music 그룹의 3분의 1정도가 적어도 소수 민족 회원을 한 명씩 가지고 있다. 회원의 80%는 소수 민족 시민을 청중으로 끌어 온다. 75%의 Making Music 연주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영국 시민의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 시민과 사회가 보충해야 할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 또는 가족의 부끄러움으로 어두운 곳에 숨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은 누구나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훼손된 사회임을 말해준다. 아마추어 음악활동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 소수자를 배려하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약점을 점차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보인다. 우리 시민들이 신경을 쓰지 못한다면 정책적으로나, 정부기관에서부터 행동을 시작하여 일반시민에게도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 Making Music 그룹의 94%가 여성회원이 남성회원보다 더 많다. 그리고 회원의 반이상(57%)이 오디션을 받지 않는다. 회원의 연주회는 적어도 18개월 전에 계획하고 평균적으로는 1년 이전에 미리 준비한다. 토요일 저녁은 요일 중에서 회원들의 연주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날이다. 통계 숫자로 보면 65%의 소속 단체가 토요일에 연주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7%의 단체가, 즉 4분의1이 또는 435개 이상의 조직이 매 5년마다 적어도 해외연주 여행을 한다.

---

30) 탁계석, “국 시립 합창단 정체성 위기 오는가”, <음악교육신문> 2007. 6. 20. 제382호.

### 3) 영국 남서부의 구체적인 아마추어 음악단체

○ 모두 184개 음악단체 중 합창단이 130개로 절대적 다수를 이룬다. 그 중 11개 정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1)</sup>

#### - 노스 디번 합창회 North Devon Choral Society

비서: 마이론 샌키 Mrs Marion Sankey

주소: The Old Malthouse

33A High Street

Bideford EX39 2AN

전화: 01237 472494

홈페이지: [www.northdevonchoral.org.uk](http://www.northdevonchoral.org.uk)

소개: 노스 디번 합창회는 1952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100여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다. 정기 연주회는 4월, 7월, 12월 3회에 걸쳐 있으며,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오라토리오와 그 외 다른 종교음악을 연주하고, 여름에는 가벼운 음악으로 연주회를 개최한다 (예를 들면 오페라 합창 등). 단원의 연령은 18세에서 80세까지이며 회원이 되기 위해 오디션을 봐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목소리에 맞는 성부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 테스트가 필요할 뿐이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있다.

#### - 패이톤과 남 디번 합창회 Paignton & South Devon Choral Society

비서: Malvern Cooke, Hon Secretary

주소: 104 Highland Road

Chelston

Torquay TQ2 6NH

전화: 01803 605135

소개: 패이톤과 남디번 합창회는 거의 110명에 달하는 회원이 있으며 매년 3번 정기 연주회를 클래식 음악으로 개최하는데, 여기에다 성탄절과 음악 이벤트를 추가행사로 벌인다. 대체로 연주회는 지역 내에서 있지만 가끔은 근처 지역이나 영국의 다른 지역으로 연주여행을 가기도 한다. 여름에는 7월과 8월이 휴가로 쉬며,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

31)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rtscouncil.org.uk/documents](http://www.artscouncil.org.uk/documents)에서 찾을 수 있다.

- 웨이드브리주 합창회 Wadebridge Choral Society

대표: Mrs Julie Grogan

주소: Lewidden

Penrose

St. Ervan

Wadebridge PL27 7TD

전화: 01841 540344

소개: 웨이드브리주 합창회는 토니 터노프가 지휘하는 65명의 혼성합창단이다. 단원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15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스 할에서 연습한다. 매년 두 번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한 번은 성탄절에 하고, 한 번은 봄에 한다. 그외 단원 몇몇이 모여 여름에 가벼운 음악으로 자유롭게 연주회를 가지기도 한다.

- 펜잔스 합창회 Penzance Choral Society

대표: Trevor Walker, Publicity Officer

주소: Trungle Terrace

Paul Penzance

TR19 6UE

전화: 01736 731096

팩스: 01736 731096

펜잔스 합창회는 1858년 창단되었고 현재는 8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방학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연습을 하는데, 매년 2회의 정기 연주회를 한다. 그 외에도 즉흥적으로 자선사업을 위한 연주회를 한 두 번 기획하기도 한다. 최근 연주한 작품으로는 베르디의 레퀴엠, 엘가의 뮤직 메이커스, 푸치니의 미사 디 글로리아인데, 로얄 아카데미 솔로 연주자와 협연했다.

- 엘빙톤 싱어즈 Alvington Singers

대표: Mrs L. Anderton

주소: Marlin

South Milton

Kingsbridge TQ7 3JQ

전화: 01548 560751

소개: 엘빙톤 싱어즈의 정기 연주회는 4월, 6월, 12월에 하는데, 프로그램은 세속음악과 교회음악을 두루 다루고 있으며 가끔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공연하기도 한다. 공연장소는 다양하며 대체로 기부사업을 위해 한다.

- **브리타니아 합창회 Britannia Choral Society**

대표: Olive Beavon

주소: Summerland

17 Browns hill

Dartmouth TQ6 9NU

전화: 01803 832825

소개: 브리타니아 합창회는 매년 3회 정기 연주회를 한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주요한 합창곡이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학 교회당에서 있다. 모든 음성 영역을 다 환영한다. 악보를 읽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 **첵포드 싱어즈 Chagford Singers**

대표: Dr. Colin G Barnes, Chairman

주소: Little Hoopern

Chagford TQ13 8BZ

전화: 01647 432098

소개: 첵포드 싱어즈의 회원은 현재 45명이고 주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 매년 두 번이나 세 번 첵포드에서 연주회를 가지고, 자주 유명한 솔로 음악인과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한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첵포드의 엔드코트 하우스에서 있다. 신입회원을 환영하며, 가입을 위한 오디션은 없다.

- **에스터 바흐회 Exeter Bach Society**

대표: Chris Parrish

주소: 12 Exmouth Road

Budleigh Salterton EX9 6AQ

전화: 01395 442275

소개: 에스터 바흐회는 1995년 에스터 지역에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생애와 작품을 지원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매년 이러한 목적으로 9월부터 다음 해 부활절까지 회원들이 모인다. 이 시기에 2회의 합창연주회를 가지고 또 2회의 작은 이벤트를 가지는데, 기악 연주회나 토크 리사이틀을 가진다. 2회의 합창연주회중 한 번은 항상 엑스터 교회당에서 연주한다.

- 시톤 합창회 Seaton Choral Society

비서: Mrs Cheryl Percy

주소: The Beeches

Axminster Road

Axminster EX13 8AZ

전화: 07973253951

소개: 시톤 합창회는 합창음악을 연구하고 노래하기 위해 모인다. 매년 2회에서 3회의 연주회를 가진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시톤의 감리교 교회당에서 있다. 연주회는 시톤 타운 홀에서 봄과 늦가을에 있다.

- 타이근 합창회 Teign Choral Society

대표: Frances Holden, Publicity Officer

주소: 42 Pennyacre Road

Teignmouth TQ14 8LB

전화: 01626 879163

소개: 타이근 합창회는 유명한 합창곡을 레퍼토리로 삼고 있으며, 매년 2회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1/2월과 5월에 한다. 캐롤 콘서트는 12월 성탄절에 절기에 맞게 있다. 새 회원을 환영하며, 오디션은 필요 없다.

- 도르셋 바흐 칸타타 클럽 Dorset Bach Cantata Club

대표: Brian Snellgrove, Hon. Treasurer

주소: Apple Tree House

Gold Street

Stalbridge

Sturminster Newton DT10 2LX.

전화: 01963 362740

소개: 도르셋 바흐 칸타타 클럽은 바흐의 칸타타와 다른 작품을 연구하고 노래하기 위해 매년 세 번 연주회를 가진다. 때로는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오케스트라 작품도 다룬다. 합창 연습은 매주 토요일에 있으며 매 일요일에는 스테르민스터의 뉴타운 고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습한다. 가끔 대학생 솔로가 기악이나 성악음악을 함께 연주하기도 한다.

- 아마추어 합창단의 성격을 보면 대체로 매년 정기 연주회를 1-3회 가지며, 서양의 중요한 명절인 성탄절에는 거의 예외 없이 연주회가 있어 가족들에게 문화적인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오디션을 보지 않고, 악보를 반드시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합창을 통해

즐거움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전문가처럼 잘 부르자는 의지보다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음악적인 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그에 맞는 그룹을 찾아가면 된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합창단이 다양하게 있어서 취미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종합적으로 말해, 영국의 아마추어 합창단 정책도 경제적 창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인 소수민족과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점은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에서는 도외시된 것이므로 음악지원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며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내용있는 것이 되려면 이점은 고려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 3. 프랑스: 아마추어 음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경제 효과

#### 1) 정책적인 관점에서 아마추어 음악운동의 의미<sup>32)</sup>

- 프랑스는 국민 1인당 문화예산비가 503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시민문화활동에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따라서 프랑스 국민(15세이상)의 10%(약 5백만)가 아마추어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서로 맞물려 있어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는 합창 뿐 아니라, 기악밴드, 아마추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통계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활발한 아마추어 음악가 100명 중 악기를 하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83%이고, 악기 다루지 않고 노래(합창)만 하는 사람은 17%이다. 악기 중에서는 피아노 28%, 오르간 7%, 신디사이저 6%, 클래식 기타 9%, 반주 기타 4%, 엘렉트릭 기타 4%, 플룻 6%, 금관악기 7%, 바이올린 2%, 그 외 다른 악기 10%에 해당한다.
  
- 아마추어 음악운동의 저변이 확대될수록, 또 그 생동력이 강할수록 이를 통해 창출되는 **예술적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프랑스 음악문화 정책가들이 생각하는 예술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마추어 음악이 활발하면 이를 통해 처음으로 예술과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예술적 경험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라면 사회적인 효과는 두말할 필요 없이 크다. **둘째**, 아마추어 음악이 오랜 역사를 가지는 프랑스에서는 옛 세기의 민속음악, 합창음악도 자주 연주되어, 시민들이 프랑스의 음악적 유산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자기 문화에 대해 알고 이를 보존해나가는 일도 프랑스 정책가의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해야 할 일로 보고 있다. **셋째**, 프랑스 정책가들은 아마추어 음악운동의 저변이 확대되면 이의 수혜자는 어린 청소년들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나중에 전문적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멀리 보고 적극 지원한다.

32) Lettre D' Information, "La Pratique Musicale Amateur",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6 avril 2000/65를 참고하였으며 프랑스 문화부의 홈페이지 <http://www.culture.gouv.fr/culture/politique-culturelle/index-dossiers.htm>, [http://concreation.blogs.com/./photos/uncategorized/eco\\_de\\_la\\_musique\\_amteure.jpg](http://concreation.blogs.com/./photos/uncategorized/eco_de_la_musique_amteure.jpg) 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적 관점**에서도 아마추어 음악은 프랑스의 문화정책에 중요한데, 정책가들은 음악행위를 통해 시민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그룹 아이덴티티를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어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이를 더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프랑스 시민들에게 음악 연주는 직업생활이나 전문적 활동 이외에 개인적인 동질성과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경험하는 중요한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아마추어 음악운동은 정책가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이 필요로 하는 악기도 많아져서 악기 제조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뿐 만 아니라, 악보나 음악에 관련된 책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니 당연하게도 음악출판 사업도 필요해진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씨디 제작, 씨디를 작동할 수 있는 오디오를 비롯한 제반 기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숫자도 늘어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다. 아마추어 음악적이 주는 경제적 비중은 약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알려져 있다.<sup>33)</sup>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2) 아마추어 음악가를 위한 국가의 정책<sup>34)</sup>

- 프랑스는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가 매우 진보적이고 열려있다. 국가가 개혁적인 것을 많이 시도하여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사회적으로도 국가가 시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간섭이 많은 나라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에서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다르게 아마추어 음악운동이 국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것은 1791년부터 시작했던 프랑스 시민혁명에서 유래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아마추어 음악과 음악실체가 교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고 오히려 국가에 더 기대고 있다. 다른 유럽 나라에서는 아마추어 음악이 교회와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전통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관악대가 시민들을 모으고 함께 모여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관악대는 프랑스에서 아마추어 음악의 상징이 되었고 또한 수준이 높다.

33) Lettre D' Information, "Une Politique Reaffirmee en Faveur des Amateurs",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6 avril 2000/65 참고.

34) Lettre D' Information, "Une Politique Reaffirmee en Faveur des Amateurs" 와 "La Pratique Musicale et l'Etat - Une longue tradition",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6 avril 2000/65 참고



- 정부기관에서는 아마추어 음악회원을 위해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아마추어 음악인교육(지휘자 및 리더)를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음악을 실제 연주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수요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높다. 예를 들면 “지방발전 아마추어 음악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는 여러 해를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젝트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러 인접 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공동작업 하면서, 아마추어 음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진행중이다.
- 프랑스 음악협회에는 전체 70만 음악가 회원이 있고, 5800개의 음악학교와 음악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교육을 위한 레퍼토리의 개발도 국가가 여러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도와준다.
- 프랑스의 정책가들은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자기개발에의 욕구가 강함을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아마추어를 위한 국가 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 CA(certificat d'aptitude)와 DE(diplome d'etat)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추어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의 공적인 증명을 위해 만든 시험제도이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아마추어 음악인 지도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1998년 첫 DE시험이 있었는데 목관 앙상블 지휘자들 위주였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00년에는 20개의 시험장소가 설치되었으며, 여기에 500명의 신청자가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였을 정도로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아마추어 음악정책은 재미도 중요하지만, 단원의 질적인 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자 시험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국가가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자발적인 행위를 뒷받침해 주고자 마련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이런 과정이 확대되어 현재 대중음악에서도 참가하여 젊은이들이 관심을 끌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중 음악시험 “CA-팝음악”, “DE-팝음악”을 시작하였고, 음악학교와 팝 음악가들이 함께 작업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다. 대중음악을 위한 지방 협력센터도 설치되어 운영하는데, 이것은 아마추어 음악운동에 참여하는 애호가들을 서로 연결해주도록 조직된 단체이다. 음악발전을 위한 지방연합(ADDM, associations departementales de developpement de

la musique)과 음악학교, 대중음악을 위한 모임(SMAC, scenes de musiques actuelles)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조직들은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음악적 자기 개발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조사하여 이들에게 맞는 교육의 기회를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은 대중 음악가들을 위해 연습할 수 있는 조건들과 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자신의 음악을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해 준다.

- 또한 전통적 춤과 음악 센터 (CMDT, les centres de musiques et danses traditionnelles)는 지방과 시골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 뿐 아니라 도시의 음악, 그리고 이민자들이 가진 세계 음악으로 풍부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단체는 일상적인 축제를 아마추어 음악운동과 연결하여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기관으로 모범적인 예가 되고 있다.
- 종합해서 말하면, 정부가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풍요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풍토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프랑스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배려와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임이 프랑스의 아마추어 음악 문화정책에도 나타난다.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욕구를 읽어내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음악활동을 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만든 아마추어 음악지도자 인증 제도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아직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인들은 어떤 욕구가 큰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프랑스의 인증 제도도 오랜 시간 아마추어 음악인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연구하여 만든 것이다.

### 3) 아마추어 음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경제적 효과<sup>35)</sup>

- 이런 활발한 음악적 운동은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먼저 악기제조하는 기업이 많아진다. 오르간 제조 등 1,0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1,500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악기를 보급하고 판매하는 유통 전문 기업도 많이 필요한데, 약 1,200개의 기업과 6,000여명의 종사자가 있다. 또한 악기 연주를 위해 악보출판도 요구되는데, 출판사는 대략 100개가 있고, 700명에서 1,000명의 종사자의 일자리가 생겼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35) Lettre D' Information, "La Pratique Musicale Amateur",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6 avril 2000/65에서 참고

사람들을 겨냥한 아마추어 음악전문 잡지도 10개 정도가 있어서 잡지사의 기자와 이에 따른 관계 업계가 있다.

- 또한 이런 현상은 음악을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데, 도시에는 7,924개의 시립음악학교가 있고 여기에는 1만8천명의 선생이 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 법인 사립학교도 있는데, 2만여명의 교육인력이 레슨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는 개인레슨 교사도 있으며, 아마추어 음악인들 중 3명 중 1명이 개인 레슨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 숫자는 정규교사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 5백만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음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액수는 1년에 400억 프랑이고, 모든 아마추어(미술, 연극 등) 단체가 사용하는 1년 총 액수가 1000억프랑이니, 그 중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비용이 반정도 차지한다.
- 음악 문화사업이 사회적, 경제적 창출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는 사실은 자주 간과되는데, 프랑스의 아마추어 음악정책은 이점을 중요하게 내세우며, 정책결정 때에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정확한 통계자료로 전반적인 아마추어 음악운동의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을 파악하고 있다. 강조하자면,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정책도 아마추어 음악 활동을 통해 생기는 경제적인 창출 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이 활발하게 되는 전제는 각 단체들이 서로 연계하고 있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상위조직이나 이를 담당하는 단체가 있다는 점이다. 각 나라마다 그 성격이나 특징, 가동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아마추어 음악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아마추어 음악의 윤곽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도 조절하고 새로운 자극도 줄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 가장 먼저 보충되고 고려해야 할 점인 듯하다.

## 제3장 대표적인 사례로서의 독일 아마추어 음악

### 1. 전반적 개괄 : 독일의 아마추어 음악역사와 의미

독일은 지방자치제가 매우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에 따라 아마추어 음악정책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 아마추어 음악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풍요롭고 질 높은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은 아직 전반적인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시작단계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고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미 앞서 나간 독일의 아마추어 음악 정책을 분석하여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 각 지방정부가 **아마추어 음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한 3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아마추어 음악단체 내의 자원봉사자 제도, 음악학교와 아마추어단체의 상호협력체제 그리고 아카데미 하우스의 운영이 그것이다. 이에 앞서 먼저 독일의 아마추어 음악역사와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과 각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3가지 정책을 이해하는 맥락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 1) 아마추어 합창운동의 역사에 대해<sup>36)</sup>

- 독일에서 합창운동은 아주 오래된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57년 독일대통령이 세운 “첼터 기념패(Zelter Plakette)”라는 재단이 활동한 이래 적어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합창단이 거의 9천 개나 상을 받았다. 처음 창립된 합창단은 1791년 베를린의 징아카데미(Singakademie)인데 1800년부터는 카알 프리드리히 첼터(Karl Friedrich Zelter)가 지도하였다. 그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긴 합창단체는 음악축제에서 서로 만나 자극을 주고받으며, 또한 대회도 가졌다. (니더라인 음악축제는 1817년부터 행해졌다)

---

36) 이 항목의 정보는 Karl Ermert, *Ehrenamt in der Musikkultur*, Institut für Musikpädagogische Forschung der 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Hannover, Forschungsberichte 11, Hannover 1999을 참고하였음.

- 19세기 독일 민족의 통일을 염두에 둔 시민층의 음악운동으로서 “독일 노래 축제”는 1845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1848년 혁명의 진행과 함께 노동자교육단체의 전통을 추종하는 남성합창단들의 모임이 결성되었다. 따라서 1862년에 “독일싱어협회”(DSB, Deutsche Sängerbund의 약자)가 창립되었는데, 이때는 정치적 의도가 음악적인 것보다 앞서 있었다. 합창단원들은 독일제국의 민족적인 선발대로 느꼈다. 비스마르크 하의 사회보장법에 따라 노동자 단원들에게 강한 정치화 경향이 있었고, 독자적인 조직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꿈틀거렸다. 이에 1908년 “독일 노동자 싱어협회(Deutsche Arbeitersängerbund)”가 세워졌다.<sup>37)</sup>
  
- 1920년대 케스텐베르크(Kestenberg)에 의해 청년 음악운동이 문화적으로 활발해지고, 음악교육에도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싱어협회도 새 합창레퍼토리를 가지고 문화적으로도 자기존재를 새로이 정의하게 되었고, 또한 여성합창단도 이제 허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치가 권력을 획득하자 좌파적 성향의 “노동자 싱어협회”는 금지 당하였다. 반대로 우파적 성향의 “독일싱어협회”(DSB)는 제국음악협회에 소속되어 나치화되었으며, 나치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조직으로 변질되었다.
  
- 이차 대전이 끝난 후, 역사적인 전개과정의 차이에 따라 두 개의 대규모 합창협회는 서로 다른 조직으로 새로 창립되었다. 1947년에 “독일 일반 싱어협회”(DAS, Deutsche Allgemeine Sängerbund의 약자임)가 하노버에서 노동자 싱어협회의 후신으로 창립되었고, 1949년에는 “독일 싱어협회”(DSB)가 니더작센에서 새로 조직되었다. 또한 1950년에 “독일 합창 협회”(VDKC, Verband Deutscher Konzert Chöre의 약자)가 1920년대 합창단체의 정신을 이어서 조직되었다.
  
- 합창은 자주 매우 중요한 지역 문화의 대변자노릇을 해왔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94년 독일전역에는 5만 9천 8백개의 합창단이 있었고 3백 3십만명의 합창 단원이 존재하였다. 이 수는 독일전 국민의 4%를 차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니더작센에는 1996년 교회합창단과 음악학교의 합창단을 제외하고도 12만 9천명의 적극적인 합창단원이 활동하였다.<sup>38)</sup>

37) Mafred Sauga, “Laienmusik in Deutschland – Anmerkungen zu Geschichte und Organisationsstruktur”, in: Karl Ermert, *Ehrenamt in der Musikkultur*, 17-18쪽.

38) [www.landesmusikrat-niederschachsen.de/LMR/content02\\_12\\_1.php](http://www.landesmusikrat-niederschachsen.de/LMR/content02_12_1.php).

- 전쟁 후에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의 합창단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젊은 층에게 이런 식의 합창단은 외면 받아 왔으므로 1970년대에는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소년 합창축제”, “여성 합창축제”, “부모-자녀 노래그룹” 등. 그 동안 교회합창단과 그 외 일반 합창단체가 공동으로 합창단의 문제점을 의논하고 공동 프로젝트로도 진행한 덕분에 요즘은 합창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종합적으로 독일 합창운동의 특징을 말하면, 민족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시작한 독일합창단 역사는 독일사회를 아주 잘 반영해 준다. 좌파와 우파의 이념대결이 강했던 독일의 합창운동은 19세기 이래 독일의 역사와 비슷하며, 1990년대 통독을 겪으면서 정치적 성향이 약해지는 것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100여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합창단의 존재가 많은 것은 아마추어 합창음악이 민속음악과 전통음악의 의미도 지닌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 현재의 독일에서도 아마추어 합창음악을 정책적으로 보존하려고 애쓰는 지와도 관련이 있다.

## 2) 아마추어 기악 음악운동

- 합창단과 마찬가지로 기악 음악운동도 19세기까지 지속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시골)에서 관악대는 행진곡과 군대음악을 모범으로 삼았다. 시민계층이 지배하는 도시에서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형성됨에 따라 시립 음악가, 시에 소속된 음악가 단체도 해체된다. 비스마르크 지배하에서 사회 보장법이 있는 동안에 노동자운동 내의 기악앙상블의 모임이 음악적-정치적 경향을 가진 앙상블로 바뀐다. 1910년대에 무엇보다도 공장노동자와 광부들이 아코디온 오케스트라나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살마이(취주악기)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였다.
- 나치 시기에는 이러한 아마추어음악단체는 제국음악협회에 강제로 소속되었다가 1945년에 1933년 나치시기 이전의 전통을 찾아 다시 접목하였다. 예를 들면 니더작센주에서는 체조음악밴드나 소방서음악밴드와 같은 단체가 조직되어 전통적인 기악아마추어음악밴드와 연계했다. 반면에 독자적으로 니더작센에 슈필만협회가 1957년 조직되었고, 1963년에 조직된 니더작센의 민요음악가협회와 함께 현재 니더작센에서 가장 큰 기악 아마추어음악조직으로 손꼽힌다. 이것은 합창음악과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음악밴드도 독일의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 1995년에 전 독일에는 1백 8십만의 회원들이 아마추어 기악 음악협회에 회원으로 들어 있다. 니더작센 주에서만 해도 교회에 소속된 음악회원을 빼고 9만 6천 5백 명의 기악음악가가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 협회 회원의 반 정도가 2천명 이하의 작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원이다. 이것은 이들이 각 지역의 문화적인 공동체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기악음악협회의 대다수가 다수의 합창단처럼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1968년 독일대통령이 설립한 “프로 무지카(Pro Musica)”라는 재단이 세워지고 1천 개의 협회가 상을 받았다. 이들이 100여 년간 기악음악연주를 보존해온 것이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 세계적인 수준의 아마추어 기악 음악협회는 민속음악협회에도 소속되었다.(AVV, Arbeitsgemeinschaft der Volksmusikverbände) 이 조직은 3가지 그룹, 즉 관악음악, 아코디온, 현악기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모두 11개의 협회를 포괄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독일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은 합창이나 기악 단체를 막론하고 독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꾸어온 자생적인 것이므로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3) 팝음악가 협회

- 재즈 록음악의 공동체 “락LAG”은 68학생운동의 문화정책적인 정신을 이어 받아 재즈 음악가와 록음악가들이 스스로 조직하였다. 이것이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 1979년에 처음으로 “재즈 니더작센”이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LAG은 오늘도 아마추어 음악가뿐 아니라 세미전문가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작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마추어 합창음악이나 민속적인 기악음악과 달리 LAG는 20세기 후반의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마추어 음악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아마추어 합창음악이나 민속적인 기악음악과 같은 전통문화에 반대하고, 이들로 상징되는 기성세대와 거리를 두려는 많은 젊은이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 4) 기악단체와 합창단체를 총괄하는 전 독일 아마추어 음악협회 (BDLV, Bundes- vereinigung Deutscher Laienmuikverbände)

- 1979년부터 독일에는 아마추어 성악와 아마추어 기악을 총괄하는 것으로 독일 아마추어음악협회의 전국조직(BDLV)이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독일 합창협회, 민속음악협회의 상부조직, 아마추어오케스트라의 독일협회가 소속되어 있다. 쏘독일아마추어 음악협회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아마추어음악단체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은 아마추어음악이 독일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갖는 중요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유럽차원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통독 후에 커진 독일에서의 음악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16개의 지방자치제의 지방음악평의회(Landsmusikrat)와 독일연방 음악평의회(Bundesmusikrat)가 함께 협력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

## 2. 독일의 아마추어 음악 현황

- 독일 국민의 3분의 1 (7백만)이 음악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대략 5백만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 8.5%인 78만이 전문음악가이거나 음악학교학생이다. 이를 뺀 나머지는 아마추어 음악인에 속한다 해도 무리가 없다. 전체 음악시장 규모는 25억 유러(3조원이상)이다. 각 음악단체는 그 지방의 “지방음악평의회”(Landesmusikrat)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로 협조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 지역적인 비교를 하면, 지방일수록 도시보다 아마추어 음악회원수의 비율이 높고, 회원들도 적극적인 경향을 띤다. 이는 그만큼 아마추어 음악이 지방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독일에서 전통적인 색채가 짙은 아마추어 음악이 어디에서 더 잘 보존되고 있는지도 암시해준다. 종교적인, 또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차이가 있는 독일 아마추어 음악의 지방적 특색을 살펴보면, 대체로 남쪽, 남서부 독일에는 악기 음악에 중점을 두는 대신 북쪽에는 성악의 비중이 크다. 남독일의 관악음악이 카톨릭 음악을 보충하던 전통이 아직 남아 있고, 신교가 강했던 북독일에는 지금도 100년 이상이나 지속되어 온 튜바반주의 합창이 예배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 독일 내에서 독일연방음악평의회 다음으로 큰 음악 조직인 독일 음악평의회 (Der deutsche Musikrat)는 전문음악인과 아마추어 음악인들을 모두 포괄하는 단체인데, 직업음악가와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모두 합하여 회원수가 8백만을 넘어서는 중앙조직이다. 독일내의 음악문화를 아우르는 통로이기를 자처하는 독일음악평의회는 4년마다 “독일 합창대회”를 개최하여 아마추어 음악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백만단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중앙조직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인 것은 정책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전 나치 시기 제국음악협회라는 단일조직에 의해 모든 음악문화가 통제되고 조종되었던 과거가 있는 독일로서는 조직의 다양성을 두어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여 문화적 경직화를 막고자 하는 듯하다.

### 3. 지역적 특성에 따른 아마추어 음악활동의 특성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역사적 차이와 종교적 차이로 인해 독일의 아마추어 음악은 남부독일과 북부독일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 1) 남동부 바이에른 주 (중심지: 뮌헨)<sup>39)</sup>

- 남부 바이에른 지방에는 60만 아마추어음악 회원이 있으며, 23개의 산하조직이 있고, 관악대, 합창, 교회소속 음악, 민속음악, 치터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전문으로 하는 1만 1천개 이상의 소그룹이 있다. 독일 내에서도 바이에른 지방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곳으로 아마추어 음악도 매우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색채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역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중앙조직은 주정부의 “학문, 연구와 예술”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음악평의회이다. 이 지역의 아마추어 음악단체는 장르와 양식 및 전통적인 배경에 따라 대체로 관악밴드, 교회음악, 합창단, 민속음악, 그 외 단체 다섯 개로 나누고 있다.
- 젊은 층이 선호하는 팝음악이나 재즈와 같은 단체는 대표적인 그룹에 속하지 않음이 바이에른의 지역적 특색인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주며, 교회에 소

39) [www.stmwfk.bayern.de](http://www.stmwfk.bayern.de), [www.bayerischer-musikrat.de](http://www.bayerischer-musikrat.de), [www.music-fun-concert.de](http://www.music-fun-concert.de), [www.singen-und-musizieren-in-bayern.de](http://www.singen-und-musizieren-in-bayern.de)를 참고하였음

속된 음악단체가 많은 것이나, 향토문화보존을 위한 민속음악단체도 바이에른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도 보수적인 경향을 대변해주는 특기할 사항이다.

- 주정부의 아마추어 음악협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바이에른 지방음악평의회 산하의 “바이에른의 싱 운트 무지치어렌(Sing und Musiziere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원금은 대체로 아마추어 음악인의 실력향상을 위해 악보, 악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일에 사용되고, 음악축제 및 대회를 위한 지원, 특별행사나 해외연주여행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이에른의 23개 조직은 2004년 전체 합치면 1백만 7천 유리를 주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다. 국제적인 교류행사에 거의 19만유리가 지불되고 바이에른의 아마추어양상블이 외국으로 연주여행하는 비용 또는 동유럽의 교류 음악양상블 단체가 와서 체류하는 비용도 지원되었다. 또한 바이에른의 아마추어 단체가 독일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위해서는 12만 5천유리가 지원되었고, 7만 유리 정도가 큰 행사와 특별한 경우를 위해 지원되었다. 전문 양상블지휘자 지원금이 38만 유리 사용되었다. “문화펀드”라는 기금으로 1977년이래 아마추어 양상블이 행사할 공간과 연습공간을 건축하거나 보수하는데 45만 유리가 지원되었다. (아카데미 하우스도 포함)
- 바이에른에는 세 개의 음악아카데미 건물이 설립되어 있어서 아마추어 단체의 세미나와 연습 등 실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옥센하우젠(Ochsenhausen)에 있는 옛 베네딕트 수도원 건물에는 세미나와 리허설, 코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도서관도 있다. 또한 넓고 시설이 좋은 부엌도 있어서 회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음악에 전념하고 회원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카데미 하우스에 대해서 아래서 자세히 설명함).
- 독일에는 프랑스처럼 아마추어 음악 지휘자가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인정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 시험을 위한 교육과정과 시험자체도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바이에른 지역에서 합창, 기악지휘자가 2100명 이상 자격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더 나은 아마추어 합창단 및 음악단체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아마추어 음악의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다.

## 2) 남서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중심지: 슈튜트가르트)<sup>40)</sup>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를 “음악랜드 1위”로 만들자는 야심을 정치가들이 기회 있을 때 자주 언급할 정도로 아마추어 음악에 대한 정치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속한 팀이 독일 대회 “청소년 음악”에서 매년 최고의 상을 받았고, 25%에서 30%의 수상자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나올 정도로 젊은 음악가들의 교육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안네-소피 무터 Anne-Sophie Mutter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를 배출해 낼 수 있었던 것도 정책가들은 아마추어 음악운동의 저력으로 보고 있다. 남서부지역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15만 명의 음악아마추어가 회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문제는 적극적인 합창단원들의 연령이 높아 합창단전체의 노령화가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젊은 층이 보충되어야 할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합창단체는 41%가 제1차대전 전에 설립되었다. 오늘날 존속하는 합창단체의 10% 만이 1945년 이후에 조직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합창단체의 비율이 높다. 오늘날 약 15만명의 열성적인 합창단원이 있는데, 이들은 슈바벤 합창연맹이나 바덴의 합창연맹, 바덴-뷔르템베르크 합창연맹 및 실내악 합창단과 오라토리오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 외에도 35만의 회원이 있는데 이들은 수동적이거나 뒤에서 후원하는 회원이다. 여기에 15만 정도의 회원이 신교와 구교의 교회합창단과 기악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관악밴드는 지역의 음악생활에 합창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 현상은 강한 군악대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래 군악대의 음악가는 결혼식이나 춤추는 경우에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연주하는 습관이 있었다.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560개의 군악대에 1만 5천 7백명의 음악가들이 있었는데, 제1차 대전 후에는 140개의 군악대에 3천 600명 정도의 음악가들만 남게 되었다. 나머지는 전쟁에서 전사하지 않았다면 해고되었다. 따라서 아마추어 음악 영역에는 훈련된 수많은 군악대 음악가들이 흘러 들어와 엄청난 잠재력으로 자리잡았다. 이 음악가들은 1920년대에 새로 구성된 음악악단에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지도하게 되었다. 20세

40) [www.landesmusikrat-badenwuerttemberg.de](http://www.landesmusikrat-badenwuerttemberg.de), [www.bvbw-online.de](http://www.bvbw-online.de), [www.heimatzunft.de](http://www.heimatzunft.de), [www.akkordeonjugend.de](http://www.akkordeonjugend.de), [www.musikschuleverein.de](http://www.musikschuleverein.de) 참고

기 초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관악대가 없는 동네는 생각할 수 없었다. 물론 이 때의 관악대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인원수의 작은 규모였다.

-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관악음악도 질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다. 훨씬 엄격해진 교육과 청소년 관악대 단원과 지휘자의 질적인 훈련을 통해 개개 음악가들의 실력이 나아졌고, 오케스트라의 전체 음향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차원으로 향상되었다.
- 관악대의 레퍼토리도 많이 변했다. 제2차대전 전과 후에는 주로 행진곡과 오페레타 멜로디가 주 레퍼토리였다면 요즘에는 현대적 뮤지컬이나 팝송 음악, 그리고 심포니적 관악 음악이 주를 이루며 아마추어 단체들이 매우 지지하는 장르이다. 물론 미국과 네덜란드 작곡 가및 출판사가 아직 이 음악 장르의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관악대 음악가들은 가벼운 음악을 한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보다 더욱 전통적인 의상에 집착하는 상반된 두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전통문화가 사라져감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는 경향과 관악밴드의 원래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경향은 현대적 흐름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는 태도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아마추어음악에 대한 자세한 개관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람)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아마추어 음악이 노령화되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마추어 음악단체와 음악학교와의 공동작업과 상호 협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아마추어 음악회원의 음악적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하여 좋은 호응도를 보여준다. 현재 아마추어 단체의 46%와 음악학교의 38%가 공동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다. 음악학교와 상호 협력하는 중요한 형태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연주회이다. 아마추어단체는 74%가, 음악학교는 69%가 공동으로 행사와 연주회를 위해 작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협력의 내용은 함께 음악관련 수업을 하거나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마추어단체의 30%가 이를 통해 혜택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에서 자발성을 통한 활성화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단체와 음악학교(전문단체)와의 상호 협력체제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 3) 북서부 니더작센 주(중심지: 하노버)<sup>41)</sup>

- 2003/2004년 음악연감(Musik-Almanach)의 통계를 보면, 니더작센주에는 거의 1만명의 음악교사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4,500명이 정규학교의 음악교사이고, 3천명이 음악학교(78개의 음악학교에서 약 8만명의 학생이 배움)에서 가르치며, 나머지 2,200명 정도는 교회에 소속되거나 프리랜서로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수적인 분포를 보면 니더작센 주에는 모두 162개의 아마추어 음악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수가 많은 아마추어음악단체는 관악대이다(66개로 전체의 40.8%). 그 다음이 노래하는 합창단인데 48개로 29.6%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관악대를 제외한 아마추어 기악단체가 30개로 18.5%이다. 바이에른 주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음악 내에서 관악밴드가 우세하고 합창단보다 더 선호되는 추세인데, 이것은 독일 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 니더작센 주의 전체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연간 8만회의 공개적 행사를 하였고, 행사에 방문한 사람들의 수는 약 6백만 명에 이른다. 각 음악단체의 평균 연습회수는 연간 평균 45회에 해당하고, 4회의 연주회를 가졌으며, 각 연주회 당 평균 방문객은 1천 명 정도이다. 연간 동원된 청중 수는 6천만 명이 된다는 결론이다. 이는 다시 말해 거의 모든 독일 국민이 일 년에 한 번 정도 아마추어 음악의 청중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니더작센 주의 시민들만 따지면 그 회수는 훨씬 커진다. 니더 작센 주에도 음악아카데미 하우스가 있고, 지원금은 바이에른주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지방음악평의회가 분배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니더작센주는 바이에른보다 훨씬 주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지원금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2005년 니더작센의 문화부장관이 문화영역에서의 긴축재정을 과감히 시도하여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지만,<sup>42)</sup> 아직 이것이 음악분야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지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 (<부록3>의 문화

41) [www.landesmusikrat-niedersachsen.de](http://www.landesmusikrat-niedersachsen.de), [www.musikschuleverein.de](http://www.musikschuleverein.de), [www.miz.org](http://www.miz.org), [www.mwk.niedersachsen.de](http://www.mwk.niedersachsen.de)를 참고하였음.

42) Landes Musikrat Niedersachsen e.V., *Mitteilungen. Das Magazin des Landesmusikrates NDS*, 2005, 9월호.

부 장관의 연설 “힘을 합쳐 음악랜드 니더 작센 주를 만들자”를 참고바람)

- 니더작센에는 아마추어음악단체에 약 46만 명의 아마추어 음악인이 회원으로 있다. 그 중에 4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단체를 이끌어가거나 음악연습,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일, 또 청소년 담당으로 협력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평균 매달 약 9시간을 봉사하고, 봉사자의 4분의 3은 매달 20마르크 정도 자비를 사용한다. 봉사자의 7분의 1은 이 비용을 협회에서 지원하여 받고, 3분의 1은 약간만 지원을 받고, 반은 전혀 지원 받지 못한다.
- 자원봉사자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매년 4백3십2만의 막대한 시간이고,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5천 8십만 유로(세금 빼액수로 약 610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다 매년 자원봉사자가 자비로 사용하는 매년 2백6십만 유로를 합치면 5천3백4십만 유로(약 640억 원) 이상이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긴축재정으로 문화 분야의 지원금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는 니더작센주의 형편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한 존재이다. 경제적인 이득 뿐 아니라, 이들이 젊은 회원들에게 미치는 동화작용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기관인 국가와 주정부는 문화 단체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것이 더 많은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뿐 만 아니라, 니더작센 주의 아마추어 음악정책에서도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자원봉사자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에서 중요한 자발성이라는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니더작센의 **자원봉사자 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4. 아마추어 단체와 음악학교와의 상호 협력체제<sup>43)</sup>

- 독일의 음악학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공공 기관으로서 아동, 청소년은 누구나 매달 일정액을 지불하면 등록하여 방과 후 매주 한 번 음악레슨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항상 이곳에는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신청하고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음악학교의 교사는 정규 교육을 받아 발령 받은 음악교육전문인이며, 학교와 같이 방학 때에는 레슨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레슨을 받지 않는 방학 때에도 레슨비를 지불해야 한다. 매달 레슨비는 우리나라의 피아노 학원 평균 레슨비보다 싸지만,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약간 비싸다(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어 이들이 음악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 음악학교는 일년에 한 두 번 공개 연주회를 가지거나 아이들을 위한 음악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기량을 선보인다.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음악학교와 아마추어단체는 음악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관, 단체로 인식되었지만, 음악학교에는 주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아마추어음악단체의 경우는 중 장년층이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서로 활동하는 영역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금을 자기 분야로 더 끌어오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띤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상대로 여겨왔다. 그러나 아마추어 음악단체에서는 단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점차 음악학교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러 측면에서 협력하면 서로 힘 안들이고 좋은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실제로 시도하는 단체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음악문화 정책가들은 서로 비슷한 두 분야가 서로 협력하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점에 주목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 2004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지방음악평의회가 지원하여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른 통계에 의하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있는 46%의 아마추어 단체와 38%의 음악학교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관악기 음악단체가 음악학교와 협력하는 수가 가장 높는데, 이는 단원들의 악기 연주실력향상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암시한다. 반면, 합창단 중에서 혼성합창단의 경우와 달리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은 전혀 협력하는 일에 관심

43) [www.musikschuleverein.de](http://www.musikschuleverein.de), [www.landesmusikrat-badenwuertemberg.de/html/projekt.html/](http://www.landesmusikrat-badenwuertemberg.de/html/projekt.html/)  
참고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일 성(性)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폐쇄적인 경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기관인 음악학교와 어린이 합창단의 경우 공동 작업이 활발하다.

- 협력의 중요한 형태는 공동행사와 연주회로 여겨지는데, 아마추어단체는 74%가 함께 하고, 음악학교의 69%가 이런 행사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런 협력을 제안하는 쪽은 아마추어단체라는 답은 아마추어단체의 70%가 대답했으며, 음악학교의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 무엇보다도 함께 음악관련 수업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협력의 가장 잦은 형태이고, 두 번째가 공동으로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 세 번째가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아마추어단체의 30%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으로 악보를 공동 사용하는 것, 대외적 보도와 홍보를 공동으로 하는 것, 연주를 공동으로 소개하는 것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스폰서를 공동으로 끌어오는 일은 0%로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공동으로 레슨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연주회나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는 관심이 높으나 스폰서나 재원확보의 문제에서는 전혀 협력이 없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두 단체의 이익이 서로 다르며, 이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므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듯 하다.
- 공동 작업에서 더 보충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부족하므로 각 진영을 대변할 사람이 있어서 일관된 대화 창구를 마련할 것을 대다수 단체들이 요구했다. 그리고 음악학교 측에서는 서로 간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반면, 아마추어단체에서는 공동으로 음악문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아이디어의 부족을 지적하며 더 나은 공동작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다.
- 음악학교와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협력이 주는 장점으로서는 음악학교 측에서는 전통의 보호, 문화적 관점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더 많은 청중을 끌어 들일 수 있으며, 이로써 “함께 음악하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아마추어 음악단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마추어의 질적인 음악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공동으로 연습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인 장점을 손꼽았다. 뿐 만 아니라 이런 공동작업으로 음악전문가가 나올 수 있는 저변확대가 가능하고, 젊은 층의 음악교육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음악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문화적 차원의 장점도 언급되었다. 결과적으로 음악학교보다 아마추어 음악단체가 더 많은 장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례 1 : 베르기쉬 글라드바흐(Bergisch Gladbach)의 경우<sup>44)</sup>

베르기쉬 글라드바흐에는 아마추어 음악영역에서 2개의 관악오케스트라와 2개의 실내악오케스트라가 있다. 반면 음악학교에는 3개의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각자 수준에 맞는 오케스트라에서 학생들이 연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연주회를 기획할 때 함께 연주할 일이 생기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음악가들과 음악학교의 오케스트라가 협력하고 있다.

또한 베르기쉬 글라드바흐에는 아마추어 합창단이 여러 개 있는데, 음악학교에서 특별히 기초적인 성악연습코스를 마련하여 아마추어 합창단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칼 오르프Carl Orff의 카르미나 부라나 Carmina Burana를 연주할 때 아마추어 합창단을 도와 음악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불렀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베르기쉬 글라드바흐에는 공연무대는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음악학교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아마추어 음악협회에 소속된 단체는 이 무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음악학교는 협조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두 배의 비용을 내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의 아마추어 협회에 속하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는 연습을 위해 학교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사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단 이것은 입장료가 무료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6년에 진행된 협력사업의 실례로 아마추어 음악협회와 음악학교가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홀로코스트 기념일” 행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매년 시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이 행사에서 나치시기 금지되었던 스윙을 아마추어 음악가들과 음악학교 학생들이 함께 연주하였다. 음악연주 뿐 아니라, 나치시기의 음악문화의 맥락을 잘 아는 음악학자가 역사적, 정치

44) [www.landesmusikrat-niederschachsen.de/LMR/content02\\_12\\_1.php](http://www.landesmusikrat-niederschachsen.de/LMR/content02_12_1.php)를 참고했음

적, 음악적인 설명을 함께 덧붙여 이 행사에 참여한 청중들의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여기에는 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행사를 지켜보았는데, 이러한 공동작업의 의미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다.

이 예는 아마추어 음악이 단순히 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설명을 해주고, 뭔가를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행사가 된다면 단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사례2: 이벤뷔렌(Ibbenbüren)시

이벤뷔렌은 5만명의 주민이 사는 광부(탄광)도시이다. 음악학교는 이 시 주위에 흩어져 있는 면 단위의 소지역도 관할하므로 음악학교에 소속된 주민은 전부 합치면 약 9만명이 된다. 음악학교에는 2천명의 학생과 60명의 교사들이 있다. 학교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아마추어 음악협회와의 공동 작업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여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지만 쉽지 않았다(아마도 시의 지원금 문제 때문에 서로 호의적이지 못하였던 것 같음). 그러나 연방정부의 음악아카데미 트로싱엔(Trossingen)의 대표였던 한스-발터 베르크(Prof. Dr. Hans-Walter Berg) 교수가 이벤뷔렌 시 음악학교에서 강연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마추어 음악협회의 거부감과 차가운 태도는 점차 없어졌다. 그 후에도 음악학교와 아마추어 음악협회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접촉하여 공동으로 연주회를 한 번 개최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으로 공동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3년 전에 레케 면(Gemeinde Recke)의 “블라우-바이쓰-에스펠(Blau-Weiss-Espel)”이라는 한 아마추어음악단체가 회원들의 음악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고 아마추어 음악회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음악학교와의 공동 작업을 음악학교에 요청했다. 따라서 청소년 아마추어 음악단원들은 음악학교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협의하였는데,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이 모두 매달 30유러(1유러를 1250원으로 계산하여 3만7천원 정도)를 “블라우-바이쓰-에스펠”에 지불하고, 이 단체는 학생들의 레슨비를 음악학교와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다.

음악학교가 없는 우리의 현 실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추어 음악과 전문음악기관인 음악대학교와 협력하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대화하여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음악문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 5. 정부지원과 구성원의 자발성 간의 상호 작용 : 자원봉사 제도<sup>45)</sup>

- 자원봉사자는 아마추어 음악단체가 잘 돌아가게 하는 운할유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에서보다 아마추어 음악이 상대적으로 매우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시골에서 자원봉사자의 동기유발도 강한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도시보다 다양한 행사가 없기 때문이며, 둘째, 아마추어 음악 조직이 시골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셋째, 도시보다 시골에서 공동체를 훨씬 더 직접적이며 높게 평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아마추어음악 협회가 공적 자금을 받게 되면(재정의 반 이상을 지원 받는다), 면단위의 지역이 시 단위의 큰 지역보다 먼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때 문화적 활성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것과, 특히 청소년들이 사회에 문화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된다.
- 니더작센 주정부의 지원으로 하노버 음악대학의 음악교육연구소에서 1999년 연구 보고한 결과를 보면, 40%의 자원봉사자는 하나의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직책을 맡고 있다.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음악이 아닌 다른 단체에 속한다. 음악영역에서 자원봉사자는 사회적인 적극성이 평균이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재산으로 휴머니즘적이고 긍정적인 자산이다. 특히 이들 중에 젊은 층이 그러하다. 또한 자원봉사자 중에는 공무원들이 40%정도 차지한다. 이 통계로 보면 10%에 해당하는 다른 직업종사자들보다 공무원들이 훨씬 높은 참여도를 보인다. 물론 공무원들이 강요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에서 참여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45) Karl Ermert, *Ehrenamt in der Musikkultur*, Institut für Musikpädagogische Forschung der 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Hannover, Forschungsberichte 11, Hannover 1999와 [www.landesmusikrat-niedersachsen.de/LMR/content02\\_07.php](http://www.landesmusikrat-niedersachsen.de/LMR/content02_07.php)참고

-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과 음악특수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동체적인 의무감에서 행하는 사람은 전자에 속하고, 개인적인 흥미와 음악적 관심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후자에 속한다. 대체로 평균적인 자원봉사자는 사람을 좋아하고, 스스로에게 재미와 만족을 찾는 사람이거나, 공동체에 대해 의무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과제가 있으면 행하는 사람이다. 또한 자원봉사의 동기는 체제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양하다. 나이가 많은 그룹은 공동체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젊은 그룹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관심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행동에서 세대간 차이를 나타내는 나이의 경계선은 50세 정도로 본다.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가치에 대한 변화도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허드레 일을 하는 것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해서 노인층의 자원봉사자 확대는 사실 한계가 있다. 노인층의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층의 인식전환부터 가져올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평균적으로 8명의 자원봉사자**는 마찬가지로 보수가 거의 없는 지휘자와 협력하는 것이 활동의 조건이다. 음악전문가의 수준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은 가끔 있을 뿐 거의 없다. 자원봉사자들은 대개 활동조건에 만족스러워한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 또는 가족과 단체에서 인정받는 것, 또는 단체에서 협력하는 일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조사대상이었던 자원봉사자들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직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언급했고 이것이 직업적인 요구와 연계되지 못할 때 불만을 느낀다고 하였다. 각 장르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흥미로운 것은 합창단의 자원봉사자는 다른 장르에서보다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다. (광대정도의 대접을 받는) 슈필만 행렬단체와 팡파레 행렬단체(고적대와 비슷한 형태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 **여성과 남성**은 다른 조건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보인다. 적극적인 아마추어 음악회원으로는 여성이 60%로 40%의 남성에 비해 더 수적으로 우월하지만,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남성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여성은 겨우 3분의 1에 불과하다. 남성은 여성보다 자주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여성은 반대로 조직적인 기능에 많이 참여하며 젊은이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원봉사의 동기는 비슷하다. 물론 남성의 경우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나 의무감에 의한 것이 강한 반면, 여성은 개인적이고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를 통한 만족도나 일의 조건 또 미래에 관한 것에서는 남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여성들이 경향적으로 남성보다 만족적이고 낙관적이다. 남성은 외적인 적극성과 경영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여성은 내적이고 음악적인 행위에 더 자신의 과제로 여감을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음악적 경험**이 어린 나이에 이루어졌을수록 중장년이 되어서도 음악활동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에 응한 자원봉사자의 4분의 1이상이 이미 10세전에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19세까지 음악을 시작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원봉사자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35세까지 포함하면 85%에 해당한다. 이것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결국 협회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임을 더 이상 강조하기 힘들 정도이다.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위한 기초도 이미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봉사의 의미**는 미래에도 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자원봉사를 행동에 옮기는 태도를 선뜻 보이는 사람들은 적다고 한다. 조건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경제적 물질적 조건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응답이 높다. 90% 설문 대상자가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이 자원 봉사의 더 큰 동기유발이 되리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나이가 젊은 층은 늙은 층보다 “실제적 지원”(직업훈련에서 행정적인 도움)이 자원봉사자로서 열성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자원봉사의 가치평가와 개인적, 직업적인 환경에서 실제로 어떤 인정을 받는가가 동기유발에 결정적인 듯하다. 작은 물질적 손해나 이익은 이에 비하면 단순히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이에 맞는 조건 즉 지원과 세금이득, 무엇보다도 공적인 인정을 주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전제로 제안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마추어 음악운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제도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특히 퇴직 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장년층을 아마추어 음악운동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자원봉사자의 동기유발은 각 사회와 그 집단의 조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인간심리의 공통점은 누구나 자신의 활동을 통해 그 단체의 인정을 받을 경우 만족하게 되고 이것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돈의 대가보다 더 강한 심리적, 사회적 대가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지 연구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필요한 일이다.

- 평균 매달 약 9시간을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의 인력**은 돈으로 계산하면 9천 9백3십6만 마르크이며, 매년 자원봉사자가 자비로 사용하는 매년 5백만 마르크를 합치면 1조4백만 마르크 이상이 된다는 독일의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제도가 정착되면 경제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 6. 아카데미하우스의 활용:

- 단원의 질적 향상 및 구성원간의 단결과 소통을 위하여<sup>46)</sup>

- 바이에른에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3개의 아카데미 하우스가 있다.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음악코스, 음악캠프를 함께 하고, 연습을 하거나 토론하며 단원끼리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 자리로 활용한다. 1980년에 북 바이에른지방의 함멜부르크Hammelburg에 설립되었고, 1984년에는 남서쪽 바이에른의 마르크트오버도르프Marktoberdorf에, 1999년에는 동쪽 바이에른의 레겐스부르크 근처의 알테글로프스하임Alteglöfshaus에 신설했다.
- 여기에 드는 비용은 바이에른 주정부가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각 지역의 시 정부, 관계 기관 등에서 부담을 한다. 2003년에 주정부는 1천 3백 유로를 아카데미 하우스에 지원했다. 아카데미 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원장, 총무, 코스기획담당자, 도서관담당자, 매체관련 담당자, 비서, 보도담당자, 하우스마이스터, 기술자, 부엌 및 청소 담당자들이 고용되어 협력하고 있다. 아카데미 하우스의 시설로는 연주홀, 연습실, 도서관, 휴게실, 침실, 식당 등 과 음악인들이 연습이나 코스에 참가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귄 수 있는 의사소통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 아카데미하우스에는 악기들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체가 와서 연습하고 세미나에 참여할 때에도 악기를 힘들게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아카데미 하우스에 비치되어 있는 악기로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반악기와 타악기 외에도 르네상스 악기와 바로크 악기, 관악기,

46) 본 내용은 [www.musikakademie-hammelburg.de](http://www.musikakademie-hammelburg.de)와 [www.musikakademie-alteglöfshaus.de](http://www.musikakademie-alteglöfshaus.de)  
[www.music-fun-concert.de](http://www.music-fun-concert.de) 참고하였음

민속악기와 신디사이저도 있으며, 음향기록이나 녹화를 위해서도 좋은 스튜디오가 있다. 아카데미 하우스에는 연주회를 위한 무대와 현대적 음향, 조명 시설이 되어 있는 연주홀(대체로 2-300명 수용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아마추어 음악인들 뿐 만 아니라 전문음악인들도 활용한다. 누구나 자기 개발을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아마추어음악가든, 직업음악가든, 성인이나 학생, 클래식, 팝음악, 민속음악을 막론하고), 음악적 교육을 위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1) 함멜부르크 아카데미 하우스<sup>47)</sup>

### 가. 함멜부르크 아카데미 하우스의 미래적 운영 방안 및 설립취지

- 1989년에 이미 음악아카데미에 관해 바이에른 주정부가 제시한 중심테마는 “어떻게 새로운 매체 속에서 음악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였다. 음악매체의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씨디 음반도 이제 점차 사라지고, MP3, DVD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들이 더욱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음악과 컴퓨터가 합쳐지는 현상은 점점 더 대중화되고 점점 더 확산되어 진행되고 있다.
- 따라서 아카데미 하우스는 음악을 통한 사람들의 협력과 만남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과 후원제도를 통해 활발한 음악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로별시기에 아카데미는 지역을 초월한 만남의 장소로서 음악적 시설을 제공하여 현재의 상황에 나름대로 대처하고자 한다. 아카데미 하우스에 속한 음악협회를 통해 각 지역의 음악단체를 서로 연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악보와 악기는 전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서로 교환하며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활발한 교류는 프랑켄의 전통 음악문화에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 프랑켄의 문화가 지역에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초월하고 “외부로 나아가고 그래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2006년에는 관악기 작업에 집중하여 “관악 아카데미”를 2006년 가을 방학에 기획하였다. 또 어린이들이 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발전시켜 테마화 할 계획이다. 아카데미 하우스가 중요하게 다루는

47) 본 내용은 [www.musikakademie-hammelburg.de](http://www.musikakademie-hammelburg.de)를 참고하였음

테마는 학생들의 음악하기(관악, 현악, 타악)인데, 독일의 학교에서 아카데미가 개발한 모델을 실험중이며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스위스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교수직도 하나 신설되었다).

- 아마추어 음악을 위한 국가 인정제의 지휘자 교육코스는 아카데미와의 협력 속에서 2005년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이제 공인되는 자격시험을 원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 2006년에는 아카데미의 프로젝트로서 두 개의 페스티벌이 계획 중인데, 하나는 “살레무지쿰 Saale Musicum 프로젝트”와 “거리의 음악 페스티벌”이다. 그리고 “하계 어린이 음악 프로그램” 컨셉은 이번 해에도 야마하 재단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살레 무지쿰 프로젝트”는 아카데미 하우스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연합체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 나. 함멜부르크 아카데미 하우스의 기능:

-연습하는 장소, 심포지엄 하우스, 만남의 장소, 음악교육의 중심지

- 음악교육을 위한 기능

아마추어 음악의 지휘자를 위한 국가공인 코스와 시험을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하여, 바이에른의 음악행정기구와 협조 체제에서 합창 지휘자, 앙상블 지휘자, 관악대 지휘자의 국가 인증시험을 아카데미에서 진행한다. 각 코스의 종합 시험을 각 분야의 음악전문협회와 공동작업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뷔르츠부르크 음대는 아카데미 하우스와 협력하고 있다. 아카데미 하우스 자체의 코스나 각 단체가 기획하는 교육프로그램, 모든 음악분야의 전문 음악가나 아마추어 음악가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음악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유치원 선생과 보모를 위한 음악교육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 지역과 그 주위지역 앙상블의 사무실 역할, 음악관련 프로젝트의 연구실 또는 팝음악단체와 음악축제기관 등의 사무실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운터마인지역 음악협회는 2002년부터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자신들의 심포지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지역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얻는 이익

지역에 교육적 자극을 주고, 지역의 문화단체가 자극을 받아 함께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점이 있으며, 아카데미 하우스의 인지도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지역적 자원이며, 관광을 통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지역을 선전하고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함멜부르크시 내에서 뿐 아니라, 전체 프랑켄 지역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함멜부르크 아카데미하우스가 2000-2005년까지 이루어낸 성과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행사가 개최된 날에 참여한 방문자는 모두 13만2천 711명이고, 아카데미 하우스를 이용한 참가자는 5만 3천 63명이다. 독일 내의 3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아카데미 하우스를 이용하였으며, 기획되고 개최된 코스는 1523개였다. 연주회는 모두 187회 개최되었고, 이벤트나 페스티벌 행사도 특별히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 페스티벌(1400명의 참가자)과 잘레무지쿰의 페스티벌(3만명이 방문했음)을 들 수 있다.

○ 함멜부르크 아카데미하우스의 지원단체

바이에른 주정부, 운터프랑켄지방, 오버프랑켄지방, 미텔프랑켄지방, 바드 키싱엔 지역구자치제, 함멜부르크 시청, 바이에른 방송국, 은행 등 관련 기관들이 비용을 분담한다.

**다. 함멜부르크 아카데미하우스의 시설**

○ 1999년부터 아카데미 하우스를 증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2004년에 완공되었는데, 비용은 301만 유어가 투자되었다. 이로써 아카데미 하우스는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수도원의 건물을 재건축하여 현대적 시설로 바꾸어 아카데미 하우스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114개의 침대, 5개의 책임자 방, 2개의 음악홀, 21개의 연습실, 도서관, 신문, 티브이, 컴퓨터 시설이 있어 인터넷이 가능(2000년 설비)하고, 현대적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녹화시설이 있어서 자료화하고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숙박시설과 함께 부엌과 휴식실 등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한 분

위기에서 음악에 전념하며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악기들이 충분하게 있어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아카데미 하우스에 비치되어 있는 악기로 연습이 가능하다. 2005년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운터프랑켄 시청의 지원으로 들여왔고, 오버프랑켄 시청은 3대의 새 슈타인그래버 피아노를 기증하였다. 또 2004년에는 운 좋게 한 음악가의 유품을 기증 받아 고(古)음악을 위한 24점의 악기를 비치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전자악기를 구입하여 악기가 더 풍부해졌다.

#### 라. 함멜부르크 아카데미 하우스 프로그램 (2000-2005년 중의 대표적인 예)

- 페르조나 음악테마모임 PerSona Abdennde zu Musikthemen 2000~2005
- 댄스 캠프Dance Camp 2001 ~ 2003 매년
- 합창 세미나와 합창지휘자 세미나 2001 ~ 2005 매년
- 음악이론 코스는 2001 ~ 2004 매년
- 섹스폰 워크숍 2002
- 합창지휘자의 마스터코스 2003
- 목관과 관악의 실내악 워크숍 2003
- 호른 마스터 코스는 2003, 2004
- 오르간 코스는 2003, 2004
- 가스펠 송 프로젝트는 2001 ~ 2005 매년
- Rock my soul goes on 페스티벌 2000 ~ 2005 매년
- 어린이들을 위한 하계음악행사 2004 (야마하 재단 협찬)
- 트럼펫을 위한 마스터코스 2004
- 록 캠프Rock Camp 2004
- 밴드 캠프Band Camp 2004 ~ 2005
- 성악가를 위한 세미나 2004
- 프랑켄지역의 오르간 음악 2005
- 뮤지컬캐스팅musicalcasting 2005
- 음악을 즐기자!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행사 2005
- 외국 음악 행사: 이집트 음악 2001, 그리스 음악 2005

## 5) 음반제작 및 출판 사업

- 대중음악 프로젝트 “고향” 2003년 음반 제작, 프랑켄 지역 어린이 합창 음반 2005년 제작, 지역 청소년 신포니 오케스트라 음반 2005년 제작.

바흐 기념 해였던 2000년 악보 출판, “천사의 음악” 악보 2000년 출판, “이집트의 음악” 악보 2001년, “결혼식을 위한 음악” 악보 2002년, 합창음악 1 “강림절/성탄절” 악보 2004년 발간, 합창음악 2 “세속적인 합창음악” 악보 2005년 출판, “그리스의 음악” 악보 2005년, “프랑켄 지역 어린이 합창” 악보집 제 1권 과 제 2권 2005년 발간.

## 2) 마르크트오버도르프 아카데미<sup>48)</sup>:

- 여러 단체가 이 아카데미에 서로 함께 공동으로 작업한다. 참여하는 단체로는 바이에른 주 내의 음악페스티벌 “젊은이의 재즈”와 마르크토버도르프의 젊은 재즈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지부, 세계 지역 음악 사크라 인터네셔널 축제 (Musica Sacra International), 마르크토버도르프의 국제 실내 합창 대회 (Internationaler -Kammerchor-Wettbewerb Marktobendorf), 그리고 AVA (Audio Video Aktuell, Audio)라는 음향자료 시각자료 제조업체이다. 이 단체는 마르크토버도르프에서의 공연을 모두 녹음, 녹화하고 CD나 카세트로 제작하는 작업을 한다.
- 마르크토버도르프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단체는 바이에른 주정부의 학술 연구 예술 국무성과 경제국무성, 마르크토버도르프시와 바이에른의 음악평의회, 슈바벤의 축제기관, 오버 바이에른 축제기관 등이다. 아카데미 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원장, 총무, 코스기획담당자, 도서관담당자, 매체관련 담당자, 비서, 보도담당자, 하우스마스터, 기술자, 부엌 및 청소 담당자들이 고용되어 상주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 마르크트오버도르프 아카데미에도 함펠부르크 아카데미에서처럼 악기들이 충분하게 있어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은 악기를 힘들게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건반악기와 타악기 외에도 르네상스 악기와 바로크 악기, 관악기, 뜯는 악기, 민속악기와 신디사이저도 있으며, 음향기록이나 사진촬영을 위해서

48) [www.modmusik.de](http://www.modmusik.de)와 [www.bayrischer-musikrat.de/mib\\_bmm/index.php](http://www.bayrischer-musikrat.de/mib_bmm/index.php)를 참고하였음

도 좋은 스튜디오가 있다. 연주홀의 무대는 130qm크기에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2대의 그랜드 피아노와 오르간 그리고 음향스튜디오가 있다. 아카데미 하우스의 로비에는 피아노가 있는 185qm공간이 있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고, 8개의 세미나 공간이 있는데, 모두 피아노나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며 16-95qm사이의 여러 가지 크기로 되어 있다.

- 도서관, 음향 아카이브: 6천여개의 음향자료들이 아카데미의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책들과 악보, 합창편곡집등이 소장되어 있다. 숙박 시설로는 모두 40개의 침실로 (샤워와 화장실 시설) 17개의 더블벡으로 된 침실과 15개의 스리벡 침실로 되어 있다. 전화기가 설치된 5개의 독실과 3채의 선생님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다.
- 음악코스의 예 2006-2007
  - 음악심리치료 개론
  - “청소년 재즈하다”의 솔로, 앙상블 코스
  - 슈타른베르크 시립음악학교의 오케스트라 세미나와 실내악세미나
  - 마르크트오버도르프의 관악대 앙상블 연말 정기 연주회
  - 알고이 슈바벤 지역의 청소년 관악 오케스트라의 훈련코스
  - 독일 청소년 합창단의 훈련코스
  - 캠펜하우젠 김나지움 음악리허설
  - 쿠바의 합창음악 - 합창지휘자와 합창단의 자기 개발 코스
  - 가르미쉬-파텐키르헨의 베르펜스 김나지움의 빅밴드 리허설
  -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를 위한 세미나
  - 뮌헨의 칸타타합창단의 주말 리허설
  - 제 17회 마르크트오버도르프의 음악축제
  - 심리치료와 교육에서 음악과 움직임에 대해
  - 뮌헨의 막스 프랑크 김나지움의 합창단과 재즈밴드 리허설
  - 제12회 바이에른 싱어분트의 여성합창단 세미나
  - 플룻 앙상블
  - 뮌헨의 여성 합창단의 주말 리허설
  - 첼로 앙상블 코스
  - 2006/2007 국가 공인 지휘자 시험을 위한 세미나
  - 그뤼발트의 관악 심포니 오케스트라 세미나 등등
  - \* 내년인 2007년 12월까지 예약이 끝난 상태여서 아카데미 하우스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음악단체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알테글로프스하임 아카데미<sup>49)</sup>

○ 1991년 5월에 바이에른 주정부, 니더바이에른과 오버팔츠 지역행정기관, 레젠스부르크지역 행정기관, 그 주위지역 행정기관이 아카데미를 위한 협회에 가입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이사회에는 국무성 고문과, 지방행정고문관, 레젠스부르크 시장 등과 같은 정치인이 속해있는 이 아카데미하우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세미나 공간은 건반악기가 준비되어 있고, 모두 공간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가구와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 아카데미에서 준비된 공간으로 큰 홀(현대적 연주홀)을 들면, 여기에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무대가 있다. (홀의 크기: 300 m<sup>2</sup>, 무대의 크기: 100 m<sup>2</sup>) 청중의 자리는 250석이 마련되어 있고, 현대적 조명기술과 음향기술로 되어 있다.

#### ○ 세미나공간

사교하는 방 Tafelzimmer .....	110m <sup>2</sup>
카이저 홀 Kaisersaal .....	110m <sup>2</sup>
붉은 방 Rotes Zimmer .....	60m <sup>2</sup>
회색 방 Graues Zimmer .....	65m <sup>2</sup>
110호 (발레 거울 있음) .....	75m <sup>2</sup>
206호 .....	60m <sup>2</sup>
209호 .....	40m <sup>2</sup>
210호 .....	40m <sup>2</sup>
106호 .....	40m <sup>2</sup>
108호 .....	35m <sup>2</sup>
207호(발레거울 있음) .....	30m <sup>2</sup>
예술가들의 휴식처 (발레거울 있음) .....	50m <sup>2</sup>

#### ○ 넓은 작업실

3개의 연습실 (피아노와 디지털 피아노가 있음)	
107호 심포니움이나 코스지휘자 사무실 .....	30m <sup>2</sup>
(PC가 있으며 전화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음)	
212호 매체 실험실 (컴퓨터 작업실) .....	40m <sup>2</sup>
악기수리와 제조실 ( 6개의 작업 탁자와 의자 있음) .....	60m <sup>2</sup>
솔로쓰 카펠레 (파이프 오르간) .....	150m <sup>2</sup>

49) [www.musikakademie-altgloufsheim.de](http://www.musikakademie-altgloufsheim.de)를 참고하였음

그 외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 냉음료 자동기와 온음료 자동기가 있는 부엌과 대규모의 식당, 그리고 당구장과 pingpong 연습장, 독서실과 텔레비전, 잡지, 신문이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음악아카데미 알테글로프스하임은 동 바이에른의 아마추어 음악가와 직업 음악가들을 위한 중심적인 자기 개발 기관이고, 교육기관이다. 바이에른에서 존재하는 세 번째 세워진 아카데미하우스이지만, 몇 년 안에 사람들이 매우 사랑하고 인정하는 공간이 되었고, 지역을 넘어서 전문적인 의미에서 명망이 높은 아카데미가 되었다. 지역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크고 작은 비영리 앙상블, 뿐 만 아니라 다른 주의 오케스트라 및 유럽이 아닌 외국의 오케스트라도 이 음악아카데미 건물에서 코스와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한다. 아카데미 하우스의 상주하는 인력의 도움으로 심포지움 행사도 하고, 연주회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 개방하기도 한다.
- 누구나 자기 개발을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아마추어음악가든, 직업 음악가든 상관없이), 음악적 교육을 위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에는 음악학교 비서를 위한 교육에서부터 앙상블 코스, 학교음악가를 위한 매체 세미나, 그리고 피아노 마이스터코스, 바이에른의 징아카데미 코스와 대규모 실포니 오케스트라 주간 코스까지 골고루 참가자의 수요에 맞추어 크기 4가지 프로그램영역으로 되어 있다. 즉 첫째, 락음악, 둘째로 음악교사를 위한 학교음악, 셋째, 컴퓨터와 음악, 넷째, 사운드, 녹음, 컴퓨터 영역이다.
- 알테글로프스하임 아카데미 하우스의 2007년 프로그램을 보면 함멜부르크나 마르크토버도르프의 아카데미 하우스와 달리 음악경영과 컴퓨터음악 및 대중음악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홈레코딩 4 “Naturesound on CD”, 어른 락음악가와 팝음악가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락음악과 돈Rock around the Money “음악경영 세미나”, 음악 기획자를 위한 노하우 세미나, “음악-컴퓨터-학교”, “DJ 워크숍” 등 클래식 음악 세미나에 비해 대중음악과 테크닉에 대한 강좌가 풍부하다. 이는 현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변화된 음악 향유 방법과 수용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실속있는 세미나는 아카데미 하우스가 사랑받는 비결인 듯하다.

○ 2007년 알테글로프스하임 아카데미 하우스 프로그램

- 1월 1일 - 7일 : 바이에른의 징 아카데미 Bayerische Singakademie: 15세에서 23세  
까지 성악지원세미나(56번째 프로젝트)
- 1월 19일- 21일 : 젊고, 마음이 젊은 어른들을 위한 합창세미나,  
전기 기타 워크숍. 어른 락음악가와 팝음악가를 위한 세미나,  
Drum & Bass - 어른 락음악가와 팝음악가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Jazz / Pop / Gospel - 성에서의 락음악의 합창워크숍, 섹스폰 워  
크숍,
- 1월 22일- 26일 : 캠머링 교수 Prof. Karl-Heinz Kämmerling의 피아노 마스터 코스
- 2월 2일 - 4일 : 스윙, 팝, 락음악을 위한 세미나, 바순합창 세미나
- 2월 16일- 20일 : 고음악과 역사적 춤의 축제일 세미나 “요한 게오르크 콘라디와 그  
의 오페라 아리다네 Johann Georg Conradi und seine Oper  
Aridane (1691)”
- 2월 20일- 23일 : 제4회 바바리안 베이스 캠프 2007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코스”
- 2월 21일- 25일 : 어린이 합창지도와 청소년 합창지도 “직업적 훈련 프로젝트  
2007-2009” 중 첫 번째 단계
- 2월 24일 : 홈레코딩 4 “내이쳐사운드 Naturesound on CD”
- 3월 6일 - 9일 : 락음악과 돈 Rock around the Money “음악경영 세미나”
- 3월 16일- 18일 : 블루스 밴드 워크숍 Blues-Band-Workshop “락음악 세미나”, Jazz /  
Pop / Gospel - 합창워크숍
- 3월 24일 : 미디어세계 Mediaworld 2006-2007 “음악-컴퓨터-학교”
- 4월 9일-13일 : 북 바이에른의 관악기 아카데미
- 4월 9일-15일 : 북 바이에른의 관악기 아카데미 “아마추어음악분야의 국가공인 브  
라스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위한 세미나”
- 4월 26일 - 27일 : 어린이 교육자를 위한 세미나
- 5월 4일 - 6일 : 초등학교에서 음악과 무용 “오르프의 학교음악 Orff-Schulwerk”
- 5월 8일 - 10일 : 기획자를 위한 노하우 세미나
- 5월 12일 : 밴드 인 박스 Band in a Box “음악-컴퓨터-학교”
- 5월 17일- 20일 : 어린이 합창지도와 청소년 합창지도 “직업적 훈련 프로젝트  
2007-2009” 중 두 번째 단계
- 5월 26일-6월1일 : 성에서의 락음악 “어른 락음악가, 팝음악가를 위한 워크숍주간”
- 6월 1일 - 6일 : 실내악세미나 “켈른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 -모차르트, 베토벤, 쇼  
스타코비치”
- 6월 4일 - 10일 :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주간 “30번째 모차르트 주간 2007”

- 6월 22일 - 24일 : 르네상스음악에서 폴리포니와 호모포니 “비올라 다 감바와 피리를 위한 실내악코스”, 비올라 다 감바와 피리를 위한 영국의 실내 협주음악
- 7월 3일 : “모든 어린이는 독일어를 배운다-어린이 교육자를 위한 세미나”
- 7월 5일 : 동바이에른 지역의 학생밴드 대회
- 7월 6일 - 8일 : 16회 알테글로프스하임의 바이올린, 백파이프, 손풍금코스 “동바이에른의 민속음악”, 합창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 7월 12일 : 청소년재즈 오케스트라 워크숍 “학교에서의 재즈”
- 7월 13일- 15일 : 청소년재즈 오케스트라 워크숍 “재즈 기악음악 마스터 워크숍”, Jazz / Pop / Gospel - 합창워크숍, 베이스 워크숍
- 7월 30일 : 생생한 여름체험 코스 ①, ② “악기제조와 연주를 위한 코스”, ③, ④ “힙합 댄스”, ⑤, ⑥ “매직스 뮤직 메이커 Magix Music Maker”, ⑦ “DJ 워크숍”, ⑧ “음악적으로 창의적인 날”, ⑨ “음악극”
- 7월31일-8월4일 : 청소년 재즈 빅밴드 워크숍
- 8월 31일-9월2일: 바이에른의 브라스 밴드 아카데미 워크숍
- 9월 3일 - 7일 : 홈 레코딩 여름 캠프 2007, 피리 앙상블을 위한 주간
- 9월 14일 - 16일: Jazz / Pop / Gospel - 합창워크숍
- 9월28일-10월5일: 뮌헨-안테스의 오케스트라 연합의 가을 아카데미
- 10월 16일- 19일: 기획자를 위한 노하우 세미나

○ 건물자체보다 아카데미하우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활동과 이로 인해 확산되는 음악운동의 의미가 더 중요하며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독일의 경우는 음악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유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어서 아카데미하우스의 프로그램도 관심이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우리와 다른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아마추어 음악운동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지자체의 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 도서관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흥미로운 음악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음악에 관한 관심을 일깨우는 것이 우선적인 일인 듯하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클래식 음악에만 국한하지 않고, 락음악과 힙합댄스 등 연령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내용있는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7. 독일아마추어합창단: 독일합창연맹 (Deutsche Chorverband)<sup>50)</sup>

### 1) 독일 합창연맹의 역사 및 문화 정치적 목표

- 독일합창연맹은 독일에 있는 거의 모든 아마추어 합창연합과 합창단을 통합한 단체이다. 여기에는 외국에 있는 독일 합창단과 합창조직도 속하며 합창단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기악그룹이나 무용그룹도 속해있다. 원래는 독일 내에 여러 아마추어 합창 단체가 각기 다른 전통을 세우며 활동하고 있었는데, 2005년 이 단체들이 모두 통합되어 독일합창연맹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독일에는 두 개의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아마추어 합창단이 있었다. 하나는 1862년부터 존속해오던 “독일싱어협회(DSB)”이었고, 다른 하나는 1908년에 설립되었던 “독일 노동자노래연합(DAS)”인데, 이것은 1947년에 명칭을 “독일 일반싱어협회”으로 바꾸었다. 전자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반면 후자는 사회주의적 전통을 지닌 노동운동과 연관 있었으므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졌던 이 두 단체가 2005년 “독일합창연맹”이라는 단체로 하나가 된 것은 독일 통합이후 사회적인 요구나 문화 정치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미 1990년 독일통합이후 서독 합창단과 동독의 합창단이 조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함께 독일 통합 문제를 고민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단체(DAS, DSB)가 모두 동의하는 공동의 목표는 합창음악을 문화적인 공동 과제로 여기고 후원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독일내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합창음악을 통해 세대 간의 통합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적극 후원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제한도 없으며 독일 헌법이 명시하듯 독일합창연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 독일합창연맹의 과제는 합창을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즐겨 부르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며 독일 사회에서 합창이 가지는 위치를 확고히 하고 또 그 가치를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독일합창연맹은 문화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지역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

50) [www.saengerbund.de/html/content/01\\_wir\\_ueber\\_uns/01\\_01\\_selbstdarstellung/](http://www.saengerbund.de/html/content/01_wir_ueber_uns/01_01_selbstdarstellung/) 와 [www.cvn.de/deutscherchorverband/](http://www.cvn.de/deutscherchorverband/) 또 독일합창연맹 2007년 4월 19일자 뉴스레터 12호를 참고했음

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다시 말해 독일합창연맹은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실제 노래를 부르는 음악행위에 참여하도록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인식, 감정 그리고 사회적인 행위와 태도를 이해하고 심화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노래는 인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라면 합창은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실현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을 보존하도록 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 2) 회원현황과 합창대회

- 독일합창연맹에는 약 75만의 성인합창단이 속해 있으며 2만 7천 개이상의 합창단이 소속되어 있어 독일 내에서 가장 큰 조직이다. 여성회원만 25만 명이며 남성회원은 여전히 과반수를 넘는다. 최근 들어 혼성합창이 인기가 더 많은 경향이다. 26세까지 포함한 청소년 합창단(Chorjugend)을 언급하면 3천 여개의 합창단이 10만 명에 이르는 회원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450개의 합창단이 독일합창연맹 소속단체로 활동하고 있는데, 칠레의 산티아고와 동경의 합창연맹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독일합창연맹은 동시에 세계 합창연맹IFCM에도 소속되어 유럽과 세계 차원에서 활약한다.
- 최근 들어 독일합창연맹의 책임자들은 특별히 노년층 합창단에 많은 배려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년퇴직 후에도 노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잃지 않은 그룹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합창단에서 함께 하는 노래는 사회적인 연결과 접촉을 위해서도 좋으며, 건강과 정신적인 건실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데 노래가 여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독일합창연맹의 **음악 레퍼토리**는 독일 민요에서 20세기와 동시대의 합창음악까지, 또한 세계적인 조직에 어울리게 다양한 세계음악도 포함하고 있다. 레퍼토리의 선정에는 합창단을 이끄는 지휘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합창단의 예술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합창연맹은 합창지휘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합창단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지휘자들은 국가 공인된 시

힘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서로 의견교환을 하도록 지원해 준다.

- 독일합창 연맹은 아마추어 합창단이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독일합창대회**를 4년에 한 번씩 전국 규모로 개최한다.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에서 합창단들이 서로 만나는 기회도 매우 중요한 대회의 목표이기도 하다. 뿐 만 아니라, 재능 있는 합창단지휘자와 독일 내 합창단의 성과를 증명하는 기록을 위해서 또한 동시대의 합창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합창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에 속한다. 국제적으로도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음악전문가들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섭외하고 초빙한다. 대회 자체 행사 외에도 음향녹음과 문헌, 기록 자료 등을 만들기도 하고, 합창지휘자에게 장학금도 주며, 지휘자를 위한 자기개발 교육프로그램도 개최한다. 또한 합창음악을 작곡가에게 위촉하고 상을 주기도 한다.

독일 내의 전국 합창대회를 하기 전에는 각 지방 음악평의회에서 예선을 치루도록 조직되어 있다. 대회에 관심이 있는 단체는 먼저 그 단체가 속한 지방자치체 내의 합창대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 음악평의회 외에 지방음악평의회는 전문음악단체 뿐 아니라, 독일제일 국영방송 아에르데(ARD)와도 협력하여 합창대회를 알리고 있으며 합창대회의 비용은 중앙정부의 문화매체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3) 합창음악 연구소 포이히트방엔재단<sup>51)</sup>

- 독일합창연맹은 합창음악을 위한 연구소를 두어 자료 보와 역사적인 문서 작업도 겸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포이히트방엔(Feuchtwangen)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원래 프랑켄지역의 연맹에 소속된 싱어박물관(Saengermuseum)이었다. 1989년이래 중부 프랑켄 지역의 포이히트방엔 지역에 박물관을 세우고 원래의 싱어박물관의 임무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프랑켄 지역의 합창과 합창연맹의 자료보존 외에도 전 독일어권의 문서 자료나 박물관에 적당한 사물들이 여기 포리히트방엔 연구소에 소장되었다. 합창과 합창단의 과거 역사와 자료를 모아두는 요람같은 이 연구소가 점차 아마추어 합창단을 위한 다큐멘터리 자료연구의 중심지로 발전되었다. 1990년대 말에 포리히트방엔 연구소를 하나의 재단이 지원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이 때 자료소장과 보존, 해석과 전시 및 합창역사의 학제적 연

51) [www.saengermuseum.de/html/geschichte.html/](http://www.saengermuseum.de/html/geschichte.html/) 페이지를 참고하였음

구등이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 포이히트방엔 재단은 두 개의 부서 재단문서보관소(Stiftungsarchiv)와 싱어 박물관로 나누어져 있다.

- 재단문서보관소는 문헌들을 파악하고 찾아내며 학문적으로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한다. 이 문서보관소에는 아마추어 합창단의 역사에 관한 다큐먼트 자료가 가득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각 지방에 따라 분류되어 있고, 각 자료의 내용에 따라 7가지로 분류되었다. 즉 ①독일 합창연맹의 다양한 문헌 (여기에는 참고 문헌, 노래집)과 악보, ②독일싱어연맹의 자료들(독일 싱어연맹과 프랑켄지역의 싱어연맹의 문서외에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과 작센-안할트 지역, 그리고 슈바벤 지역의 싱어연맹이 가졌던 자료들), ③ 작곡가나, 음악학자, 아마추어 합창단과 관련있는 인물의 유고문서 ④ 아마추어 합창과 관련있는 인물별, 단체별의 문서와 물건 ⑤ 아마추어 합창과 관련 있는 노래집, 자필 악보, 편지, 조서기록문 등, ⑥ 각 연맹과 단체의 특별한 기념문집 ⑦ 음악가들의 자필 문서와 악보(브람스, 부르크너, 슈베르크, 슈만 악보 소장)와 시인, 작가의 자필문서(괴테, 쉴러, 마리 폰 에브너-에센바흐 문서 소장)
- 포이히트방엔의 싱어박물관은 1945년 뉘른베르크의 파괴된 싱어박물관의 정신을 이어 받은 박물관으로 합창음악과 관련된 전시회를 통해 독일과 유럽의 문화 역사를 매력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마추어합창음악을 19세기와 20세기 음악보존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전시회의 컨셉에서 잘 나타난다.

#### 4) 독일합창연맹의 잡지 “새로운 합창시대(Zeitschrift Neue Chorzeit)”<sup>52)</sup>

○ 2005년 7월부터 독일합창연맹의 기관지가 된 <새로운 합창시대>는 매달 초에 발간된다. 원래 독일 싱어협회와 독일일반싱어협회의 잡지인 <노래와 합창> (Lied&Chor)과 <합창>(Der Chor)가 합쳐져 새로 탄생한 잡지이다. 독일 합창단의 전문잡지로 4만부를 찍어내는 “새로운 합창시대”는 독일합창연맹의 2만6천개 합창단체 회원이 구독하는 잡지이기도 하다. 합창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독일 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도된다.<sup>53)</sup>

52) [www.cvn.de/deutscherchorverband/](http://www.cvn.de/deutscherchorverband/)을 참고하였음

53) 독일합창연맹은 1955년에 세워진 유럽합창연맹의 설립 회원이다. 독일외의 소속회원국은

- 독일 합창연맹의 역사는 독일 사회와 문화를 반영해주듯 자료 보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으로 음악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제반의 합창단 활동과 관련된 언어적, 자료적 증거물을 남기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이것이 합창음악을 주도하거나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영향을 미쳐서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독일이라는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럽의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상승효과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넓고 멀리 보아야 할 우리의 아마추어 합창단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합창연맹이 조직되면 아시아 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지의 합창단과도 연계하여 역으로 국내 합창운동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태리, 우크라이나 등이다. 합창음악을 통해서 민족간의 이해를 돕고 서로 관계를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유럽합창연맹의 기본 아이디어이다. 회원으로는 유럽의 15개국 합창연맹으로 매년 유럽의 각 지역에서 함께 모여 행사를 한다. 2000년에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모였고, 2001년에는 폴란드의 울스친에서, 2002년에는 벨기에의 브뤼게에서, 2003년 베를린, 2004년 스위스의 루체른, 2005년 오스트리아에서, 2006년에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모여 합창제를 가졌다.

## 제 4 장 해외사례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

- 우선 각 나라의 아마추어 합창운동에서 얻은 인상은 상위조직이 있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합창단의 숫자와 활동이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전일본합창연맹은 전국 규모로 연맹 홈페이지에는 대다수 회원이 참여를 하여 일본의 합창단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 홈페이지가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 주어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다. 국가 지원이든 지자체 지원 및 민간 지원이든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합창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창단의 규모와 숫자 등등을 파악하고 정보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합창총연합회(KFCM, Korean Federation for Choralmusic)와 부산에서 조직된 한국 합창조직위원회(KCI, Korean Choral Institute)가 민간차원에서 합창음악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단체 모두 국제 합창연맹에 가입되어 있지만, 아직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정보공유나 아마추어 단체들의 참여도, 자료보존 및 국제 교류 등 시작단계의 수준에 있다. ‘의욕적인 단원’과 ‘실력 있는 지휘자’, ‘마인드 좋은 행정’의 삼박자<sup>54)</sup>로 직업합창단을 능가하는 한국의 아마추어 합창단<sup>55)</sup>이 요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체계적인 아마추어 합창단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런 추세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 합창단의 질적 성장은 음악 실기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많아도 음악 문화적으로 매우 수준이 낮은 우리의 기이한 현상을 점차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활력소가 되며, 우리의 전반적인 음악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 독일, 일본 뿐 아니라 유럽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어떤 문화적 활동에 대해 항상 역사적인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맹소속의 자료실이나 합창음악연구소 등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과거에 어떻게 합창운동이 전개되어 왔는지 알 수 있도록 실황 녹음자료 뿐 아니라, 프로그램, 문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일회성의 이벤트 성격으로 끝나지 않고 합창운동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 **자료보관 작업**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한데, 전국적인 상위조직이 결성되면 반드시 함께 고려해서 처음부터 **자료실을 운영**하도록 체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각 합창단의 실제

54) 탁계석, “국 시립 합창단 정체성 위기 오는가”, <음악교육신문> 2007. 6. 20. 제382호, 2.

55) “사랑과 평화의 이념을 실천하는 합창 공동체 - 용문OB남성합창단 Mir Male Choir”, <음악교육신문> 2007. 7. 4. 제383호, 13.

적인 자료(연주회 실황, 악보 등)를 보아 공공에 개방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체제를 의미한다.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합창단 운동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기유발에 없어서는 안될 근본적인 토대이다.

- 영국의 합창운동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정책이 반영되어 흑인이나 아시아인 등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수민족을 합창회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청중으로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소외된 계층을 고려하는 영국 합창단의 홈페이지에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들어 있어서 합창단의 활동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이 얼마나 잘 사회와 시민들에게 포용되고 있느냐에 좌우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창운동도 **외국인 노동자,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 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것이 된다면, 그래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음악적 접촉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풍성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합창운동은 저절로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합창운동이 자생적인 힘을 발휘하였을 때는 노동자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아마추어음악이 등에 업었을 때 였고, 그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른 분야와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 합창음악운동이 시민사회의 유희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가치는 단순히 숫자나 액수로 따지기가 힘든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 좌우되므로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많은 시민은 여가시간에 합창음악 외에도 기악을 연주하는 아마추어 음악가인데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크다. 출판사, 홍보사, 악기제조회사, 신문잡지사, 음악교육자, 음악학교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약 400억 프랑의 음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운동도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시민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이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재단에서 지원하여 아마추어 음악운동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독일 합창연맹은 최근 들어 정년퇴직 후의 노인층을 위한 합창음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인층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노인층을 위한 문화창출**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급선무 중 하나일 것이다. 합창음악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사회적 삶의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후원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수동적으로 되어 의욕을 잃은 노인들을 어떻게 합창활동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끌어들이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합창음악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사회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해서 행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합창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좋은 지 홍보도 필요하다.
  
- 아마추어 합창음악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아마추어 합창단과 전문 음악단체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프로젝트로 연구되었다. 아마추어 합창단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연습장소 부족, 음악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전문 음악대학과 협의하여 돕는다면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아마추어 합창단은 일정한 연습실을 확보하여 좋고, 음대에서는 음악전공자의 사회적 고립을 이들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욕구를 이해하면 음악전공자의 사회적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아마추어 합창음악운동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대표적 조직이 있어야 음악대학 책임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서로의 협력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 지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도 필요하다. 이것은 일회적인 시도로 끝나지 않는 일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그러자면 이런 일을 맡아 하는 집중적으로 하는 인력도 필요하다. 지역의 **아마추어 음악인과 전문가 단체와의 상호 협력**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아마추어 합창음악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서는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한 사례연구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봉사자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은 사회적 인정에 대한 높은 욕구가 매우 높으므로, 이 제도를 잘만 운영하면 다른 정책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봉사하는 데는 유럽이나 아시아나 같은 인간의 심리보상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 제도가 참여자에게 충분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자원봉사자로 가장 많이 활약하는 노인층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층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제약으로 제한이 있



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층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공동생활에 대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층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다면, 자원봉사자 제도는 우리에게도 낯선 일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기능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화를 받고, 정보 및 연락 사항을 잘 챙겨두는 일, 둘째, 조직적인 문제, 즉 합창단이 계획하는 행사가 있다면, 이를 위해 사전에 어디서, 언제, 누가 무슨 일을 준비하는지 노련한 경험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짜주는 일, 셋째, 단순히 악보 복사나 합창단이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소한 것을 미리 챙겨주는 일, 넷째, 젊은 단원들의 문제에 대해 귀기울여주고, 상담 해주는 일 등 자원봉사자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기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랑스, 독일처럼 아마추어 음악이 궤도에 오르면 **아마추어 음악가의 자격 시험**을 개발하여 테스트를 통해 국가 공인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도 구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전문 음악인들이 사례금을 받고 지휘하는 경우가 아마추어 합창단체의 50%에 해당하고, 회원들의 회비가 거의 이를 위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추어 출신의 지휘자가 공적인 인정을 받고 자발적으로 아마추어 음악단체를 이끌어 나가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아마추어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중요한 인재가 되며, 큰 잠재력이 된다. 이들 합창단 지휘자들의 내적 욕구도 이런 인증서를 통해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 아마추어 합창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단원의 자발성과 동기유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외국의 합창단처럼 백년 이상의 생명력을 가지는 합창단이 되려면 각 개인이 합창단의 활동에 만족될 때인데, 이것은 익숙한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익숙한 것과 새 것을 병행할 때 단체에 대한 신선한 긴장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레퍼토리의 개발이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새로운 레퍼토리는 각 지역의 음악가들에게 위촉하고 일본의 현대음악가들의 작품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역 작곡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이들과의 연계는 상상도 못하는 단계이다. 그렇다고 현재 출판되는 합창곡집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선 정보를 제

대로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듯하다.

따라서 합창단들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수요를 충족해주는 **합창레퍼토리를 개발하여 합창곡집을 출간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창작 합창곡집과 위촉작품등을 악보로 남기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또한 외국의 합창레퍼토리를 많이 수집하여 이를 시리즈로 편집해내어도 합창단들의 레퍼토리는 훨씬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될 것이다.

- 아마추어 합창운동은 아마추어 문화전반의 풍토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아마추어 합창단 및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중, 아카데미 하우스는 회원들이 각자 음악적 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느끼는 자기 개발이 적극적인 동기유발이 됨을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다. 아카데미 하우스는 건물 뿐 아니라,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체제가 중요한데, 독일의 아카데미 하우스 프로그램은 대체로 이미 2007년까지 짝 짜여 있어, 일년 전에 미리 등록신청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음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선호도를 얻기 위해서는 화려하거나 고급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음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이 **실용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연주홀, 연습실, 음향시설, 조명시설, 침실, 부엌, 휴게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이 있고, 악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케스트라 악기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 특히 기악음악인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에게 휴식과 음악적 훈련을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아카데미 하우스의 건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카데미 하우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그 지역은 아카데미 하우스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며 지역의 특성화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카데미 하우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마추어 음악인들에게 흥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아마추어 합창단은 연습실과 정기 연주회를 위한 공연장소비에 회비의 30%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 연습실과 무대**를 지원해준다면, 아마추어 합창단의 전반적인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마추어 음악단체를 결성하게 된 계기로 세미나 참여도 중요한 동기

가 되고 있으므로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자기 개발과 재미를 가지고 몰두 할 수 있는 워크숍,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아마추어 음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의 **세미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수 있다.



## 제 3 부

### 아마추어 음악 현황

제 1 장 한국 아마추어 음악의 역사

제 2 장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활동 현황



# 제 1 장 한국 아마추어 음악의 역사

## 제1절 한국 아마추어 음악의 특수성

### 1.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도입과 아마추어

-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 서구의 아마추어 음악활동은 매우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풍족한 인프라와 체계적인 지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아마추어 음악의 오랜 전통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아시아는 근대 이후 서양음악이 도입되면서부터 아마추어 음악이 시작되었다. 중국·일본·우리나라, 즉 동아시아 3국은 매우 유사한 경로를 통하여 서양음악을 받아들였으며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음악적 환경이 결정되었다.
- 동아시아의 3국 모두 서양음악의 유입 경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가 도입하는 종교음악이며 또 하나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음악이다. 국가적 필요에 의한 도입은 군대를 위한 음악, 즉 군악의 도입이 시초이며 이후 국가발전을 위하여 서양의 근대식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음악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 19세기 근대국가 성립을 전후로 하여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시아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에 찬송가를 비롯한 서양음악을 전달하였으며 아시아 각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문화 속에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양악’<sup>56)</sup>이 생겨난 것이다. ‘선교사’는 서양음악 전달자 및 음악교사로서 역할을 하였고, ‘찬송가’는 집단 가창문화를 낳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만들어진 창작음악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였다.<sup>57)</sup>

---

56) “양악(洋樂)”은 “서양음악(西洋音樂)”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서양음악(西洋音樂)”은 말 그대로 서양의 음악 그 자체를 의미하며 “양악(洋樂)”은 서양음악에서 유래하였지만 그 나라의 음악으로 통합, 정착된 음악을 의미한다.

57) 민경찬, 서양음악의 수용과 아시아 (서울, 낭만음악사, 계간 낭만음악 제17권 제4호 (통권 68호, 2005) 가을호, p134

- 또한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각 나라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서양음악을 적극적으로 수입 및 보급하였다. 국가는 서양식 군악대를 창설하였고, 국민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서양음악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전문 음악가를 육성하였다. 국가는 서양음악을 국가개혁과 국민사상 계도의 수단 및 전쟁수행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 이와 같이 한국·중국·일본·타이완의 양악사는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들에 의해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하여 정치·군사·외교적인 이유 및 교육적인 이유로 확대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급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악은 ‘선교사-교회-찬송가-미션스쿨-기독교신자’로 이어지는 틀과 함께, ‘국가-국가기관-공립학교-창가-국민’으로 이어지는 틀에 의해 규정되게 되었다.<sup>58)</sup>
- 크게 보아 이러한 유사성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후인 1869년 군악대를 창설하였으며 1871년 문부성이 창설되고 이듬해에 근대적 교육기관인 학교(學校)를 만들어 ‘창가(唱歌)’를 교육함으로써 서양음악을 도입하였다. 음악교육을 위하여 1880년 사범학교에서 음악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887년에는 국립 동경음악 학교를 설립하여 음악교육자는 물론 전문음악인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서양음악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겨를이 없이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선교사-교회-찬송가-미션스쿨-기독교신자’라는 틀과 함께 ‘일본식 교육제도-일본 양악 또는 일본 양악의 선율을 차용한 노래-자국민’이라는 또 다른 틀이 형성되었다.<sup>59)</sup>
- 한국에서는 1885년 아펜젤러<sup>60)</sup>와 언더우드<sup>61)</sup>가 선교사로 온 이래 찬송가

58) 민경찬, 앞의 책, p.134

59) 민경찬, 앞의 책, p.134

60) 아펜젤러 (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2.6~1902) 미국 감리교 목사로 1885년 4월 5일 한국에 와서 활약했으며 근대 교육기관인 배재학당(培材學堂)을 설립하였다. 암기 위주인 한국의 교육방식을 이해중심적인 교육방식으로 고치는 데 공헌하였다.

61) 언더우드 (Horace Grant Underwood, 1859.7.19~1916) 미국인 선교사이자 교육자로 한국 광혜원에서 물리·화학을 가르쳤으며 서울 새문안교회와 기독교서회를 세웠다. 기독교청년회(YMCA)를 조직하였고 경신학교에 대학부를 개설, 연희전문학교로 발전시켰다. 《말본》, 《한국어 소사전(1890)》, 《한국선교 23년(1908)》 등의 주요 저서가 있다.



가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에서 찬송가 가창(歌唱)이 이루어졌다. 일본이 국가가 주도하여 근대교육기관을 설립한 것과 달리 한국은 선교사에 의한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원양성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설립되지 못하였다.

- 국가에 의한 서양음악의 도입은 1900년 신식 군대 내에 군악대인 양악대가 창설되고 에케르트<sup>62)</sup>가 지휘자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양악대는 일본이 강압에 의해 1907년 해체되자 이왕직양악대로 개칭하여 활동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완전히 해체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신민요 및 대중가요 작곡, 학교 브라스 밴드 육성, 전통음악 연구등에 기여하였다.<sup>63)</sup>
- 최초의 음악교육기관은 1909년 설립된 조양구락부<sup>64)</sup>로 국가에 의한 기관이 아니라 사립기관이었다. 비록 재정난으로 1914년 3회에 걸쳐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교육기능을 잃었지만 이상준<sup>65)</sup>, 홍난파 등 한국양악의 초석을 놓은 음악가를 배출하였다.
- 전문음악가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 1930년대 이전의 한국 양악은 아마추어에 의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창가’와 더불어 찬송가가 불려졌으며 교회에는 예배를 위한 성가대가 조직되어 다성부(多聲部)에 의한 합창이 시작되었다. 1918년에는 연희전문학교에 과외활동의 일환으로 음악부가 설치되어 밴드부와 합창단, 중창단, 관현악단이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비록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안기영 등 음악사

62) 에케르트 (Franz von Eckert, 1852.4.5~1916.8.6)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한국의 군악대 교사로 내한하였으며 대한제국애국가를 작곡하였고 독일음악의 한국보급에 공헌하였다.

63)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 (서울, 두리미디어, 2006) p.39

64) 조양구락부(調陽俱樂部)는 1909년 한국의 전통음률을 익히고 신악(新樂:洋樂)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 최초의 사립 음악교육기관이다. 1914년까지 3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재정난으로 교육기능을 포기한 채 연주단체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1944년 문을 닫았다. 1945년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1947년 한국정악원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65) 이상준(1884~1939)은 음악교육자로 많은 교재들과 민요곡집을 편집, 출판하여 우리나라 근세 음악발전에 기여했다. 조선정악전습소(조양구락부)에 다니면서 《조선속곡집》을 출판하였고 후진양성에 힘쓰며 《중동창가집》, 《조선신구잡가집》, 《풍금독습중등창가집》등을 출판했다.

적으로 중요한 작곡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악가를 배출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음악인의 배출이 적었던 것은 조선총독부가 이화여자대학을 제외한 전문음악교육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국에 있어서 공립학교의 음악교육은, 일본식으로 개편된 교육제도에 의해, 일본인 교사에 의해, 일본인이 만든 음악교과서를 가지고 1906년 이후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부터 1945년에 걸쳐서 4회의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을 단행했으며 음악교육정책 역시 식민 정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시행되어 강제적인 일본의 양악과의 동화(同化)를 꾀하였다.
-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唱歌”를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이는 한국의 기독교 음악과 더불어 한국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독립운동을 위한 음악이나 동요운동과 같은 저항의 민족주의적인 음악도 창가의 형식을 빌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창가의 영향은 20세기 말까지 가창(歌唱) 중심의 음악교육이 행해지는 근거가 되었으며 아마추어 음악활동 역시 합창을 중심으로 이루지게 되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 서양음악의 도입이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악의 정착과정은 곧 계몽의 과정이 되었다. 일본이 의도한 식민지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강압적 계몽과 민족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계몽 모두가 대중들에게 작용하였으며 이는 식민지가 끝난 후에도 제도화 되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식민지 이후 한국의 양악과 아마추어 음악

- 식민지로 부터 벗어나면서 전문음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에 활발하던 아마추어 음악도 못지 않게 활발한 활동의 양상을 보였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음악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던 사람들과 유학을 갔던 지식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음악적 자원도 다양해졌는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음악의 발전을 위한 자양으로 작용하지는 못하였다.
-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음악인들은 좌익과 우익으로 대별되었으며 크고 작

은 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음악적 입장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의한 차이가 증시되어 단체의 결성과 가입은 곧 정치적 이념의 표출이 되었다.<sup>66)</sup> 이러한 시기에 아마추어 음악단체 역시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는 음악가들에 의해 결성되고 운영되었다.

- 좌파는 혁명가요 운동을, 우파 음악인들은 국민개창운동(國民皆唱運動)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국민개창운동은 그 용어에서부터 일본식민지의 유산임이 분명하지만 한국음악의 일정한 기초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치적 입장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음악회를 찾는 사람들이 특수한 계층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들은 국민개창운동을 음악의 생활화로 이해하였다.<sup>67)</sup>
-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미군정의 실시로 인한 미국음악의 유입인데 아마추어 음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교육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던 창가를 대신하여 미국의 민요가 자리를 잡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군악대의 영향으로 미국 행진곡을 연주하는 Brass Band가 대거 보급되었으며 미 군정의 후원하에 많은 종교음악회가 조직되었다. 이 덕분에 미션스쿨을 중심으로 성가합창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고착화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근대화과 발전을 가로 막게 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거니와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적 음악인이 대거 월북한 이후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다시금 음악계의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여기에 신진들이 가세하는 형국이 되었다.<sup>68)</sup>
- 196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시작된 근대화운동은 아마추어 음악계의 흐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아마추어 음악활동을 위한 물질적인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 군사정권은 민심을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공보처 내에 전담부서를 두고 국

66) 이영미, 한국현대예술사대계 1 총론, (서울, 한국현대예술사 대계 1, 시공사, 1999) p.20

67) 전정임, 한국현대예술사대계2 음악편 (서울, 한국현대예술사대계2, 시공사, 1999), P285

68)

민개창운동(國民皆唱運動)을 조직하였다. ‘건전한 애국애족의 노래’를 작곡하고 보급하는 일에 많은 음악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사내 합창단과 사회단체들의 합창운동과 노래부르기 운동이 확산되는데 일조하였다.

- 이런 흐름의 하나가 YMCA의 Sing Along Y이다. 이 행사는 가창운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64년 16명의 작은 인원으로 시작되었으며 2~3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각종 캠프나 협의회, 파티 등의 그룹모임에서 그 분위기를 명랑하게 하기 위해 노래부르기를 순서의 하나로 쓴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이 노래부르기를 하나의 독립된 여가 선용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Sing Along Y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1965년 4월이다.<sup>69)</sup>

이 행사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악기에 의해 다 함께 노래부르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층이 모일 만한 장소가 드물었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극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다. 1964년부터 1980년까지 700회 동안 이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서울에서만 천십만명이 넘으며 불리워진 노래는 11개 분야(우리 가곡, 예술가곡 및 클래식 소품, 복음성가, 흑인영가, 우리 민요, 세계 민요, 생활가요 및 팝송, 레크리에이션 노래, 동요, 미래지향적 노래, 회원의 창작곡)를 통괄한다. 주요 참가자는 일반 직장인이 50%이며 대학생이 40%, 중년층도 10%을 차지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Sing Along Y는 별도로 조직되었다.

- 이러한 아마추어들의 음악활동은 계몽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었으므로 참여자의 여가선용 차원에서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는 음악을 수단으로 이해하는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한국의 아마추어 음악활동이 개인의 만족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69) 이중환, 문화프로그램 자료집 (서울,정음사, 1988) p.158

## 제 2 절 한국 음악계의 제도화와 아마추어 음악

- 한국의 음악적 지형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양상은 아마추어 음악의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그 음악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음악의 지형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고 이 음악의 실제 양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클래식 혹은 양악이라 불리는 음악군과 음악애호가들이 있다. 한국에서 클래식은 음악 자체와 제도로 분리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일제식민지와 해방 이후 음악제도의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19세기 유럽에서 성립된 음악 시스템의 모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유럽제도의 이식 혹은 모방을 통한 근대화는 음악장르에 상관없이 한국의 초중등 공교육으로부터 대학의 음악전공자에 이르기까지 기본 틀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서 음악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럽의 근대음악에서 요구하는 음악 지식과 감각이 될 수밖에 없다.
- 두 번째로, 국악이다. 국악의 전문성은 그간 국악계 내부에서 이를 개량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양악제도의 틀을 국악에 적용시키는 근대화였기에, 서구식의 개량화를 따르는 국악과 국악인들은 현대에 생존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가 바뀌면서 사라져 갔다. 일반 공교육 안에서 학교 교과서에 있는 국악은 양악보에 의해서 국악의 고유한 특징이면서 개량화된 양악식 표기로는 어려운 시김새나 다양한 색깔들이 사장된채 교육되어지고, 대학에서 국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국악과는 전통적인 전수틀을 기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악교육과 마찬가지로 연주의 기능성과 창작을 분리시키면서 국악의 ‘획일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 다음으로, 대중음악의 경우인데, 한국의 음악상황은 똑같이 식민지를 겪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음악군들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남미나 인도를 포함한 중근동 지역의 경우 근대의 시장과 교육적 시스템의 토착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중남미에서 크레올이라고 불리는 혼성화된 대중음악들이 그렇고, 인도를 포함한 중근동 지역은 서양의 시스템에 자신들의 음악을 획일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식민지 이전부터 갖고 있는 음악적 특징을 보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근대적 서양시스템을 적용해 왔다고 보여진다. 인도의 경우 라가의 정교한 미분음 체계나, 중근동 지역의 즉흥적

창작력이 보존되면서도 자체 내에 전수가 가능하고 다른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자체의 음악제도를 토착화시켜 왔다. 이러한 체계는 그들의 전근대적인 민속예술과 전통음악이 현대적인 대중음악으로 자리잡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중음악은 특정 시기에 간헐적으로 토착화의 징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영미의 팝과 록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위와 같이 크게 한국의 음악현상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음악 흐름은 음악에서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나눌 수 있는 평가기준이 음악 특징을 살리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음악활동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되어 왔다.
- 제도적으로 주목할 사항은, 국악, 양악, 대중음악이 분야와 장르의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인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서구 시스템(대학 중심의 입시제도를 통한 학력에 의해 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학교제도는 사회적으로 기본 사회 제도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음악에 있어서 한국의 학교제도(공교육과 대학교육을 막론하고)에서 서구의 체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음악에 있어서도 고급한 음악과 저급한 음악의 이중화를 불러오면서, 사람들의 음악활동을 오락과 고상한 취미활동으로 이원화시키는 벽으로 존재해 왔다.
- 이런 이원화는, 현재 음악활동에서도 프로와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대중음악, 국악, 양악(클래식)이라는 장르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 중에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유기적 관계와 역동성이 드러나는 음악 분야는 대중음악이다. 국악은 생활 속의 음악보다는 박물관 안에 보존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금에 있어서는, 클래식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클래식-대중음악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유럽 전통에 기반한 음악-이 남는데, 클래식의 아마추어 활동은 단순치 않은 면이 있다.
- 한국에서 클래식과 관련한 음악상황을 논할 때 흔히 제도적 장치와 음악 그 자체 즉 작품과 작가가 혼동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가 흔히 클래식이라고 하면, 모차르트 이후에 형성된 작품과 음악 시스템을 일컫는다. 우선 시스

템 차원에서 클래식을 보면, 작곡과 연주가 분업화되었고,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앙상블, 독주자 등 기악의 프로 직업군이 분명해 졌으며, 음악애호가인 시민과 직업음악가의 역할이 분명히 나뉜다는 것이다. 19세기 유럽에서 가곡과 피아노 소품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신흥 부르조아 음악애호가들이 뒤에 있었다는 것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 그러나 유럽과는 전혀 다른 사회를 형성 해온 아시아 국가인 한국에서, 19세기식 음악애호와 아마추어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럽의 현대도 아닌 19세기 식 클래식결한 음악체도의 정착 내지 고착은, 한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악활동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 우선, 음악자체의 물신화 경향이다. 여기서 대중음악의 상업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한국의 경우 ‘음악’을 한다는 것은 부의 징표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음악적 훈련을 위해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일차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게 되거나, 미리 그런 선입관을 갖기 때문에 재능이 잠재한 수많은 아마추어들이 직접 자신이 음악행위를 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연주와 작곡의 분리된 체계 때문에 몇 가지 단편적 기능을 전수받을 뿐, 음악 전체에 대한 인식이나 창작 행위를 스스로 해 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

### 제 3 절 한국 아마추어 음악활동의 현황

- 한국에서 ‘아마추어’라고 불리는 음악층의 잠재력은, 근대 시민활동의 한 측면이라기 보다는 음악의 사회적 존재 여부의 당위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던 ‘음악계’의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음악활동이 갖는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데 있다.
-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은 음악이 공동체 안에서 향유되고 소통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아마추어 음악인과 단체들은 자기 나름의 협소한 음악적 세계 안에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나 사유(思惟)없이 소수에 의해 주어진 레퍼토리를 연습하고 공연하는 단순한 활동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기만족적이기는

하나 아마추어 음악활동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 기독교는 서양음악의 도입과 보급에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양악’의 실질적인 패트론이자 모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천주교를 제외한 개신교의 교회만 35,000개를 상회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하나 이상의 성인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인이 500명 정도의 교회라면 2~3개의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성가대는 30,000개를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회는 음악인의 배출은 물론 성가대 지휘와 반주자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양악계의 실질적인 패트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가대 활동을 통하여 일정 수준의 음악적 훈련을 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나타나듯 아마추어 음악단체 회원이 교회에서의 음악활동 경험을 갖고 있으며 단체결정의 구체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교회 어린이 교육에서 어린이 성가대, 혹은 학생 성가대의 역할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학교 합창단과 연주단체의 다수가 교회에서의 음악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경기도 아마추어 예술단체에 대한 조사에서 보듯 성인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결성동기와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 제2장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활동의 현황

### 제1절 경기도의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일반 현황

- 경기문화재단에서 2006년도 9월에 실시한 "경기도내 아마추어 음악단체 모집단 및 표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는 1,252개의 아마추어 음악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성인단체는 317개인데 합창, 중창단이 137개(43%)에 달하지만 연주단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up>70)</sup>

경기도 음악단체 현황

구분	관악 합주단	리코더 합주단	오케스 트라	합창, 중창단	현악 합주단	Guitar 합주단	국악	대중 음악	기타	미확인	합계	비고 (학교수)
일반	33	5	29	137	12	24	25	40	4	8	318	
초교	23	36	9	54	1	1	45	5	7	-	181	1,090
중	13	12	24	35	6	3	132	74	3	-	302	503
고	8	1	12	73	5	5	40	162	5	-	311	301
대학	1	-	2	15	1	12	18	63	3	26	141	79
합계	78	54	76	314	25	45	260	344	22	34	1,252	

- 음악협회에 가입한 44%에 달하는 것은 오랫동안 협회가 보조금 배분의 통로가 되어왔기 때문이며 주민자치센터에 소속 단체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추어 음악단체별 소속 현황

구분	관악 합주단	리코더 합주단	오케스 트라	합창, 중창단	현악 합주단	Guitar 합주단	국악	대중 음악	기타	미확인	합계
음악협회	22	2	13	83	5	8	1	2	1	1	138
자치단체	-	-	1	4	-	4	2	7	-	-	18
주민자치센터	-	-	-	10	1	1	7	7	1	-	27
문화센터	-	-	2	1	-	1	-	15	-	-	19
사회복지관	-	-	-	6	1	-	1	2	1	-	11
여성복지관	-	-	-	2	2	3	2	1	-	-	10
YMCA	-	-	1	2	-	-	3	1	-	-	7
YWCA	-	-	-	3	-	-	-	-	-	-	3
무소속	11	3	12	26	3	7	9	5	1	7	84
합계	33	5	29	137	12	24	25	40	4	8	317

70) 조사에서는 '본업이 아니거나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애호가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아마추어로 정의하고 다음 3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아마추어단체로 규정하였다.

- ① 회원에게 급여나 연주회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전체를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③ 회원들이 음악관련 활동 즉, 연주회, 레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아마추어 음악단체 중 248개 단체(78.2%)가 지휘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음악전공자(87.9%)이다. 지휘자 중 61.4%는 사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수를 받는 사람의 절반 정도(44%)는 50만원 이상을 받고 있었으며 4%정도(12명)은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50만원 이상을 받는 지휘자는 대개 전문적인 지휘자로 1개 단체만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단체를 지휘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아마추어 대상 음악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 아마추어 단체의 평균 회원 수는 32.3명이며, 대부분은 단체는 10~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10명 미만	10~19명	20~29명	30~39명	40~49명	50명 이상	무응답	평균(명)
비율(%)	12.9	21.1	16.7	18.3	13.9	13.2	3.8	32.3

○ 아마추어 음악단체 성격으로는 합창, 중창단이 4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중음악(12.9%), 관악합주단(11.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합창, 중창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숙련이 필요한 연주단체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합창, 중창단	대중 음악	관악 합주단	오케 스트라	국악	기타 합주단	현악 합주단	리코더 합주단	기타	미확인
비율(%)	42.6	12.9	11	9.5	8.5	7.6	3.8	2.5	1.3	0.3

○ 대외 활동으로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경연대회나 예술제와 같은 음악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1.4%) 그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17.7%로 나타났다.

## 제2절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단체에 대한 자기 인식

### 1. 음악단체활동의 현황 및 인식

- 음악단체 대표에게 단체의 결성 목적을 물은 결과 음악단체의 결성 목적을 ‘지역문화 활성화’로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4.6%), 다으로 ‘음악문화 보급’(19.6%), ‘사회봉사활동’(14.3%), ‘친목도모를 위해’(10.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구분	지역문화 활성화	음악문화 보급	사회봉사활동	친목도모를 위해	기타
1순위	44.6	19.6	14.3	10.7	10.7
중복순위	58.9	46.4	44.6	14.3	26.8

- 단체결성계기로는 ‘문화센터 강좌 수강후’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래 응답 외에 ‘음악에 뜻있는 사람들의 음악연습 및 행사를 위해서’, ‘문화운동을 하자는 논의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분	문화센터 강좌수강후	교회활동을 하다가	렛슨 제자들이 모여서	학원졸업생이 중심이 되어서	기타
비율(%)	17.9	5.4	3.6	3.6	62.5

- 연습횟수로는 정기연습이 월 평균 3.85회이며, 파트별 연습이 18.67회로 나타나 생각 밖으로 연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습장소에 대해 큰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음악 지도자들은 연습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연습공간의 확보가 음악을 책임지는 지휘자나 단체대표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빚어진 조사와 현실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연습공간은 ‘공공기관내 공간’이 2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종교기관’(19.6%), ‘일반건물 공간 임대’(10.7%), ‘지역문화회관 연습실’(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6.8%만이 유료 연습실을 쓰고 있었다. 나머지 73.2%는 소속된 단체나 협회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마추어 음악단체 대부분이 운영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운영비용의 대부분은 공연과 연습을 위한 지휘자, 반주자의 사례에 할애되고 있었으며 별도로 조직된 후원회의 도움을 받는 단체는 12.5% 수준에 머물렀다.
- 고정적인 운영비용으로 지휘자 사례비용을 지출하는 단체는 61.4%, 반주자 사례비용은 42.9%, 연습실 사용료는 28.6%로 나타났는데 그 비용의 마련은 '자체 회비'가 7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보조'(11.45%), 개인후원(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정적인 운영비 외에 아마추어 단체의 가장 큰 지출항목은 정기 연주회 비용으로 그 조달 방법은 '자체 회비'가 5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보조'(18.5%), '개인후원'(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현물협찬으로 연습실을 후원받는 경우가 33.9였으며 다음으로 단복(16.9%), 약기(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 연습공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53.6%(매우 만족: 14.3% + 만족: 39.3%)로 나타났으며(불만족: 32.1%, 보통: 14.3%) 발표공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55.9%(매우 만족: 11.9% + 만족: 44.1%)로, 보통 이하가 40.6%로 나타나 (불만족: 16.9%, 보통: 23.7%) 발표공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발표공간에 대해 불만족 하는 이유로는 '시설노후 및 열악'이 4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관료가 비쌌'(33.3%), '지역내 발표장 부족'(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연을 제외한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중요한 활동으로는 '관련 음악교육 활동'이 년 13.46회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봉사활동'(5.72회), '초청연주'(5.55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아마추어 음악단체 회원들의 활동과 인식

- 설문조사 결과 음악단체에 가입한 동기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가 3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악(악기)을 배우기 위해서’(14.2%), ‘예전의 전공을 활용하기 위해서’(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그냥 음악이 좋아서	38.1	주위의 권유로	8.8
음악등을 배우기 위해	14.2	친목 도모를 위해	5.3
예전의 전공을 활용하기 위해	13.3	기타	10.6
여가 선용을 위해	9.7	계	100

- 회원들은 회비로는 월평균 24,980원, 분기별 평균 40,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에 대해 ‘적당하다’가 7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적다’가 21.2%(매우 적다: 3.8% + 적다: 17.3%), ‘많다’가 6.7%로 나타남.
-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경우, 지휘자와 단체대표자(단장)가 같은 경우는 10.6%로 나타나 단체의 활동의 지휘자에 개인적 의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마추어 음악단체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휘자와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N=12명), 지도자상으로는 ‘회원 각각의 의견수렴을 잘해야 한다’가 41.7%로 가장 높음.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잘해야 한다	41.7	대외음악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16.7
리더쉽이 뛰어나야 한다	16.7	음악관련 인맥이 많아야 한다	8.3
음악성이 뛰어나야 한다	16.7	계	100

- 지휘자와 대표 혹은 단장이 다른 경우(N=101명), 희망 지휘자의 지도자 상은 ‘음악성이 뛰어나야 함’이 51.5%로 가장 높음.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음악성이 뛰어나야 한다	41.7	음악관련 인맥이 많아야 한다	2.0
리더쉽이 뛰어나야 한다	51.5	기타	3.0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잘해야 한다	14.9	무응답	3.0
대외음악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6.9	계	100

- 지휘자와 대표 혹은 단장이 다른 경우(N=101명), 희망 대표자 혹은 단장의 지도자 상은 ‘리더쉽이 뛰어나야 한다’가 39.6%로 가장 높음.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리더쉽이 뛰어나야 한다	39.6	사회적 인맥이 많아야 한다	5.9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잘해야 한다	21.8	음악관련 인맥이 많아야 한다	4.0
대외음악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16.8	기타	1.0
음악성이 뛰어나야 한다	10.9	계	100

- 단체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구성원간 친목’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습환경’에 대해 ‘만족한다’(50.4%)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단위: %)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잘모름
지휘자 만족도	87.6	5.3	-	7.1
구성원간 친목 만족도	91.2	8.0	0.9	-
연습환경 만족도	50.4	19.5	29.2	0.9
전반적 만족도	88.5	8.8	0.9	1.8

-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움 점은 ‘시간내기’가 2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전적 부담’(22.1%), ‘운영의 전문성’(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체에 들어오기 전 음악활동과 관련된 경험은 ‘있다’가 70.8%, ‘없다’가 29.2%로 나타나 대부분 이전부터의 활동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마추어 음악단체 구성원의 음악적 취향을 알기 위해 물어 본 ‘일상생활에서 듣는 음악’으로는 ‘관현악곡’이 가장 많고(29.2%), 다음으로 ‘성악곡’(26.5%), ‘발라드’(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관현악곡	29.2	뮤지컬 음악	4.4	댄스음악	1.8
성악곡	26.5	영화음악	4.4	재즈	1.8
발라드	24.8	포크	3.5	동요	1.8
합창음악	24.8	록	2.7	메탈	0.9
실내악곡	19.5	트로트	2.7	힙합	0.9
오페라	9.7	현대음악	2.7	창작국악	0.9
한국가곡	8.8	국악기악	2.7	기타	44.2
CCM	5.3	국악성악	2.7	없음	0.9

- 음악단체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음악적 기량 향상’이 3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16.8%), ‘여가시간 예술관련 활동 사용’(12.4%), ‘인간관계 확대’(8.0%)의 순으로 나타남.(기타: 25.7%)

### 3. 아마추어 음악단체를 위한 지역 음악행사 현황

- 지역별 음악행사 횟수로는 부천시 10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 군별 인원에 비추어 볼 때, 부천의 아마추어 음악은 기대밖으로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음악행사(회)	지역	음악행사(회)	지역	음악행사(회)
부천시	10	용인시	4	의정부시	2
양평군	7	고양시	3	평택시	2
구리시	6	남양주시	3	과천시	1
성남시	6	파주시	3	김포시	1
안산시	5	양주시	2	안성시	1
광명시	4	여주군	2	안양시	1
수원시	4	오산시	2	화성시	1

○ 지역 음악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단체별 행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시군 음악협회 주최 및 주관행사  
행사

기관명	주최행사	주관행사
경기도 음악협회	2	1
고양시 음악협회	3	3
과천시 음악협회	1	1
구리시 음악협회	1	5
김포시 음악협회	1	1
남양주시 음악협회	2	3
성남시 음악협회	5	3
수원시 음악협회	3	3
안산시 음악협회	3	4
안양시 음악협회	1	1
양평군 음악협회	7	-
오산시 음악협회	1	2
용인시 음악협회	4	4
의정부시 음악협회	2	2
화성시 음악협회	1	1
파주시 음악협회	-	3
광명시 음악협회	-	4
안성시 음악협회	-	1
평택시 음악협회	-	2
부천시 음악협회	-	10
양주시 음악협회	-	1
<b>계</b>	<b>37</b>	<b>55</b>

시군 예총주최 및 주관

기관명	주최행사	주관행사
광명시 예술인총연합회	4	-
부천시 예술인총연합회	10	-
안산시 예술인총연합회	1	-
안성시 예술인총연합회	1	-
파주시 예술인총연합회	1	-
성남시 예술인총연합회	-	1
<b>계</b>	<b>17</b>	<b>·1</b>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주관 행사

지자체명	주최행사	주관행사
구리시	5	-
남양주시	1	-
여주군	2	2
파주시	1	-
구리시 기타	-	1
성남시 기타	-	1
파주시 기타	1	-
안산시 기타	1	1
양주시 기타	2	1
양평군 기타	0	7
평택시 기타	2	-
아름방송	1	1
<b>계</b>	<b>16</b>	<b>14</b>



- 음악행사 참가자로는 단체위주가 52.9%로 개인위주(7.1%) 보다 높았으며 개인이나 단체를 구분하지 않는 많은 행사가 40.0%에 달했다. 행사의 참가 인원을 살펴보면으며 행사 참가 인원은 평균 115.7명이었는데 이중 50인 이상이 3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5인 미만	5~9인	10~19인	20~49	50인 이상	미확인	평균(명)
비율(%)	14.3	20.0	17.1	8.6	32.9	7.1	115.7

#### 4. 아마추어를 위한 음악교육 현황

- 아마추어를 위한 음악교육을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드러나 무려 449회에 달한다.

교육기관	교육(회)	교육기관	교육(회)
주민자치센터	449	YWCA	13
문화센터	382	청소년회관	8
사회복지관	82	노동복지회관	6
여성복지관	55	음악협회	1
YMCA	21	<b>합계</b>	<b>1,017</b>

- 음악교육이 추진되는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시가 139회로 가장 많고 광주시를 비롯한 소규모 시, 군은 5회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성인대상의 유료 교육(82.4%)이었다.

지역	교육(회)	지역	교육(회)	지역	교육(회)
수원시	139	시흥시	34	양주시	11
성남시	104	화성시	34	이천시	10
부천시	92	평택시	31	파주시	10
광명시	86	의정부시	30	의왕시	9
안양시	69	구리시	26	광주시	5
안산시	67	김포시	20	양평군	5
고양시	63	남양주시	17	안성시	3
군포시	45	하남시	16	포천시	3
과천시	39	오산시	12	동두천시	2
용인시	35	양주시	11	<b>합계</b>	<b>1,017</b>

## 제3절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단체 활동 사례

- 2005년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활동한 아마추어 단체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본 조사에 포함된 단체 중 다수의 단체가 스스로를 아마추어 아닌 전문음악단체로 표방하고 있으나 경기문화재단의 아마추어 단체기준에 따라 영리적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단체는 모두 포함시켰다.

### 부천 아마빌레 클래식기타 합주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클래식음악활성화)
2. 연혁 : 정기연주회: 8회
3. 주요 활동 장소 : 소사구청 내 소향관
4. 주요활동 : 위문봉사공연, 매년 정기연주회 개최
5. 단원수 : 14명
7. 지휘자 : 박종대(스페인 마드리드 왕립음악원, 한국 기타협회 부회장)

### 부천 기타 앙상블 아름다운 소리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클래식기타학습, 클래식음악활성화)
  2. 창립 : 1998년 창단
  3. 공연 : 정기연주회: 5회
- 주요 연주장소: 복사골 문화센터
- 찬조단체:
4. 주요활동 : 봉사활동, 학교CA강사, 정기연주회, 관내행사초청연주
  5. 단원 : 14명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자: 박종대(스페인 마드리드 왕립음악원, 한국 기타 협회 부회장)

### 이천 레이디스 앙상블

1. 목적 : 순수음악활동(친목도모, 여성합창활성화)
2. 창립 : 2003년 12월 18일
3. 공연 : 정기연주회 1회
4. 장소 : 이천 설봉 공원 야외공연장

5. 찬조 : 제즈 Jubile
6.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각종 문화행사참여
5. 단원 : 소프라노 6명, 메조소프라노 7명, 알토 6명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자: 김지훈  
경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Roma A.R.A.M Academia Diploma(합창지휘전공), 이탈리아 Roma A.I.ART Academia Diploma(지휘전공), 이탈리아Roma A.R.A.M Academia Master Class(성악전공), 이탈리아 Roma A.I.D.M Academia Diploma(성악전공), 예도성악회 정기공연 ‘한국가곡의 밤’ 출연, 예도성악회 정기공연 ‘예술가곡과 아리아의 밤’ 출연, 이천시 세계도자기 비엔날레 축하공연지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여행 출연(합창지휘), (현)예도성악회 정회원, 한국폴리포니합창단 부지휘자, 광주시 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 이천시레이디스앙상블 상임지휘자)
  - 반주자: 김지영  
덕원예술고등학교 음악과 졸업(피아노전공),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 Lavidol Music Festival 수료(피아노전공), 오스트리아 Mozarteum Salzburg Meisterkurs Diplom(피아노전공), 이탈리아 Roma A.I.ART Academia 수료(반주전공), 이천시 도자기축제 축하공연 반주, 마산시립합창단 객원반주자, 부산합창제(마산시립합창단 초청의밤) 반주, Mission Camerata Choir 송년음악회 반주,(현) 이천시레이디스앙상블 반주자)
  - 전임편곡자 : 박금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졸업(작곡전공), (현)부천시립예술단 악보담당, 이천시레이디스앙상블 전임편곡자)
8. 개인후원회원 수(20명)

#### **부천 올림피 기타합주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클래식기타연주활성화), 친목도모
2. 창립 : 1989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13회
4. 장소 : 중앙공원 상설무대
5.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각종찬조연주
6. 단원 : 9명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회장: 박명자

덕성여대 서양화과 졸업, 김금현 선생님께 클래식기타 레슨 사사, 기타 협회 지도자 자격증 수료, 동아리 활동

- 지도: 윤한덕

김근현 선생님께 사사, 리여석 합주단 단원, 연주회 발표

**로스아미고스 기타합주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기타연주활동 활성화)
2. 공연 : 정기연주회 6회
3.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4. 활동 : 정기연주회, 각종 초청연주
5. 단원 : 26명

**21C혼성 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합창활성화), 친목도모
  2. 창립 : 1996년 10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7회
  4. 장소 : 분당시 지역난방공사
  5. 찬조 : 그룹 '잉카 엠파이어', 분당 맑은 노래 친구들, 김하람, 바리톤 이정재, 소프라노 황용선, 용인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각종 초청 연주
  7. 단원 : 소프라노 13명, 알토 9명, 테너 8명, 베이스 6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 강금구

세종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합창지휘 전공, Italia" Ferrato-cilea" savana Academy 합창지휘, 오케스트라 지휘 Diploma, Australia 제 3회 세계합창 심포지움 참가, Japan 제 7회 교토 세계합창심포지움참가, 성남YMCA여성합창단, 성남소년소녀합창단, 21C소년소녀합창단, 중원구립어머니합창단 지휘지역임, 성남시립합창단 상임단원역임, 현)21C 합창단 지휘자,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산돌감리교회지휘자, 경기도합창연합회 회장, 전국 일반합창연합회 부회장, 한국합창연합회 상임이사

- 반주자: 이현경

협성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협성대학교 대학원, 러시아 그네신 음악원 재학중, 현 21C혼성합창단 반주자, 신흥성결교회 호산나 성가대 반주자

### 오선지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통기타음악활성화)
2. 창립 : 1997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3회
4. 장소 : 안양문예회관
5. 찬조 : 찰리 박(신화 전진부친)
6. 활동 : 위문봉사공연, 정기연주회
5. 단원 : 25명

### 경기늘푸른교사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합창음악활성화, 음악교육정보교환)
2. 창립 : 1992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15회
4. 장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5. 찬조 : 피아니스트 박효진, 청소년실내악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각종초청연주
7. 단원 : 소프라 9명, 알토 5명, 테너 5명, 베이스 6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 양원섭

한양대 음대 졸업, 한국 교원 대학원 졸업, 수원 남성 합창단 지휘, 수원 부부 합창단 지휘, 난파 합창단 지휘, 베르디레퀴엠(2002 향토음악제)출연, (현)늘푸른 교사합창단지휘, 하이엔드 중창단 리더, 수성교회 성가대 지휘, 안산 경수 중학교 재직

- 지휘 : 박석순

목원대학교 음악교육과 졸업,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졸업, (현)수원목양교회 지휘자, 진안중학교 음악교사

- 반주: 남지혜

숙명여자대학교 기악과 졸업,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졸

업, 현)정천중학교 음악교사

### 코윈스 밴드

1. 목적 : 순수음악활동(재즈음악활성화)
2. 창립 : 2005년 3월24일
3. 공연 : 정기연주회 1회, 안양 시민 축제 등 각종초청연주
4. 장소 : 평촌 중앙 공원
5. 찬조 : 첼로 김수연, 보컬 신예찬, 비브라폰 방승주
6. 활동 : 정기공연, 위문봉사공연, 공원음악회, 안양시민축제 참가
7. 단원 : 트럼펫 6명, 트럼본 3명, 색소폰 7명, 피아노 1명, 키보드 1명, 퍼커션 3명, 베이스 1명, 드럼 1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단장 : 원선중  
일본 카나가와 단기대학 음악학과 졸업, 일본동경 JLB재즈아카데미 수, P-Line음악감독역임, 해오름 뮤지컬단 음악감독 역임, 코윈스 빅밴드 음악감독

### Air 클래식 기타 합주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클래식기타연주활성화)
2. 창립 : 1996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10회
4. 장소 : 의정부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5. 활동 : 정기공연, 위문봉사공연, 각종 연주회 찬조연주
5. 단원 : 16명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도 : 이진우  
한국기타협회 의정부 지부장,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기타과 강사, 동두천 문화원 기타과 강사, 전곡 문화교실 기타과 강사, Air클래식 기타합주단 단장, 이진우 기타교실 원장

### 카르디아스 플룻 오케스트라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플룻연주활성화)

2. 창립 : 1997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11회
4. 장소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5. 찬조 : 바리톤 김원호, 트럼펫 이석재, 트럼펫 김달식, 혼 최영수, 파곳 인태영, 소프라노 김소희, 테너 용민중
6. 활동 : 정기연주회,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연주, 기획연주
7. 단원 : 60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오경열(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Prague Conservatory, Gnesins Academy of Music Orchestra Conductor 수학, Tchaikovsky Konservatorium Summer Music Camp Choir Conductor수료, Austria Prayner Konservatorium Master Class Flute연주자 과정 수료, 현)서울 펠리체 앙상블 음악감독 겸 지휘자, 카르디아스 플루트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중앙대 예술대학원, 한세대, 여주대 서해대, 명지콘서바토리, 수원여대, 동남보건대 출강
9. 후원회가 있는 경우
  - 개인회원: 18명

### 수원 여성 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
2. 창립 : 1983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13회
4. 장소 : 경기도문화의 전당 대공연장
5. 찬조 : 카운터테너 이희상, 서울챔버앙상블
6. 활동 : 정기연주회, 초청연주회, 각종 합창 경연대회 참가
7. 단원 : 소프라노 7명, 메조 소프라노 17명, 알토 8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송홍섭(안양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수석졸업,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지휘과정 수료, New York Carnegie Hall 연주, 안양대학교 Concert Choir, 수원대 Concert Choir지휘, 충신대, 서울장신대, 안양대, 수원대 출강 현) 찬양전문합창단 이반젤리컬 싱어즈 상임지휘자, 난파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수원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 안양대학교 음악대학 합창강

의및 대학원 지휘과 외래교수, Choral Conducting Master Class Academy운영, 한국선교합창단 총연합회 상임이사)

- 반주: 김혜라(영복여자고등학교졸업,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수원콘서트콰이어 반주자 역임, 군포시 어머니합창단 반주자 역임, 글로리아 선교합창단 반주자 역임, 부천 합창콩쿨 반주자상 수상, 난파소년소녀합창단 반주자 역임, 제 1회 세계합창올림픽 출전(2000년 오스트리아 린쯔) 현대곡-은메달, 민요부문-은메달 반주, 제2회 세계합창올림픽 출전(2002년 한국 부산)현대곡-동메달, 민요부문-은메달 반주, 제3회 세계합창올림픽 출전(2004년 독일 브레멘)현대곡-금메달, 민요부문-은메달 반주, 제2회 휘센 주부합창페스티벌 출전(2005년 서울 코엑스)현대곡-대상 반주, 현)수원여성합창단 반주자

## 9. 후원회

개인회원: 40명

###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합창음악활성화)
2. 창립 : 1983년 1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19회
4. 장소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5. 찬조 : 미야자키하마유코러스
6.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해외초청연주, 음반제작
7. 단원 : 소프라노 15명, 메조소프라노 11명, 알토 12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김귀철(중앙대 성악과 졸, 중앙대 예술대학원 지휘과 졸, 이태리 A.I.D.M 아카데미 합창지휘 Diploma, 대우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역임, 서울아카데미합창단, 필그림싱어즈, 삼성전자합창단, 인천남성합창단 지휘자 역임, 2004전국 합창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대전), 현)수원시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평택시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인천 남동구 여성합창단 지휘자, 안젤리카 레이디 싱어즈 지휘자, 인천 제일교회우림성가대 지휘자, 인천광역시 음악협회 합창이사)
  - 반주: 유승희(서울덕원예술고등학교졸업,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 제8회 중앙 피아노의 밤 출연, 제1회 중앙 실내악의 밤



출연, 현)수원시 어머니 합창단 반주자, 평택시 어머니 합창단 반주자, 의왕문화원 소년소녀 합창단 반주자)

### 아주남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남성합창활성화)
2. 창립 : 2003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2회
4. 장소 : 성남아트센터
5. 활동 : 정기연주회, 각종연주회 찬조출연, 각종합창제참여
6. 단원 : 32명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지휘: 임명운  
반주: 용수진

### 아도나이 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합창음악활성화), 아마추어 연주인 연주기회제공
2. 창립 : 1991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13회
4. 장소 : 부천시민회관
5. 활동 : 정기 및 초청연주회 등, 위문봉사공연, 음반제작
6. 단원 : 소프라노 8명, 알토 8명, 테너 8명, 베이스 7명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황홍구(충신대 교회음악과 졸, 감신대 신학대학원 졸, Roma Interazionate di Academia Diploma합창지휘, Cowman Theological Seminary 상담학박사, 꿈마을 엘림교회 음악목사 겸 지휘자, 부천생명의 전화, 부천시청소년상담센터 상담소장, 아도나이 합창단, 강화군립합창단, 엘리사벳합창단 상임지휘자
  - 반주: 한세희(협성대학교 음악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연수, 꿈마을 엘림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반주자, 아도나이 합창단 반주자, 엘리사벳 합창단 반주자
9. 후원회가 있는 경우
  - 아도나이합창단 후원회(개인회원: 6명)

### 노래만큼 좋은 세상 노래세상

1. 목적 : 순수음악활동, 친목도모
2. 창립 : 1995년
3. 공연 : 청년문화제 노래공연 9회
4. 활동 : 실직자녀 방과 후지도 , 거리공연, 정기거리공연, 각종 초청공연
5. 단원 : 26명

### 캔티클 여성 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합창음악활성화), 단원들의 자기개발
2. 창립 : 1999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6회
4. 장소 : 구리시청 대강당
5. 찬조: 아가페스트링앙상블, 오르가니스트 심영인, 드림교회 남성중창단
6. 활동 : 군부대위문봉사공연, 교도소 교화공연, 정기연주회, 각종합창제
7. 단원 : 소프라노 14명, 메조 소프라노 11명, 알토 11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박용기(충신대학교 종교음악과 지휘전공 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지휘전공 졸, 러시아 국립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과 졸, 스위트 펠 소녀소녀합창단 지휘자 역임, 미금시와 남양주시 여성합창단 지휘자 역임, 현)캔티클 합창단, 분당여성합창단 지휘, 금곡교회 지휘자, 전국일반합창연합회 부회장
  - 반주: 김선영(충신대학교 오르간 전공 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재학중, 캔티클 여성합창단 반주자, 캔티클 남성합창단 반주자, 수원여성합창단 반주자, 분당여성합창단 반주자, 금곡교회 반주자)
9. 후원 : 개인 33명

### 수원남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남성합창활성화), 각종봉사활동
2. 창립 : 1988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16회
4. 장소 : 수원성 감리교회

5. 찬조 :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바우, 일본요코다이 남성합창단, 테너 김동환, 소프라노 김현정, 피아니스트 이다영
6.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각종합창제출연
7. 단원수 : 테너 13명, 베이스 9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박정수(경희대 음대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합창지휘전공(전문사과정), 경희음대 알렐루야 합창단 부지휘자 역임, 현)알레루야 OB합창단 지휘, 수원남성합창단지휘
  - 반주: 박혜정(동덕여대 음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83독주회, '97'98 Duo연주, '05 6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립심포니 Duogudus,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 반주 역임, 나우누리 중창단 반주 역임, 현)한국음악협회 수원시지부 이사, 수원남성합창단 반주
9. 후원 : 개인회원: 12명

#### 수원 사계 앙상블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크로스오버음악활성화)
2. 창립 : 2003년 11월11일
3. 공연 : 정기연주회: 2회
4. 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5. 찬조 : Pianist 이지현, 레뮤젠, 특수학급학생들, Hi-end 남성중창단, 바리톤 김지훈, 패밀리 클라리넷 앙상블, 오카리나와 기타 Duo
6. 활동 : 자선음악회, 정기연주회, 각종초청연주
7. 단원 : 만들어진 23명, 만돌라 6명, 만도첼로 4명, 콘트라베이스 2명, 기타 10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김정환(작곡가, 서일대학 교수, '사람과나무'대표)

#### 어울림남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남성합창활성화), 친목도모
2. 창립 : 1997년 1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10회
4. 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5. 찬조 : 어울림중창단, 한음어머니합주단, 소산님 여성중창단, 바이올린

신보경, 기타 이원지, 팬플룻 장광식, 피아노 손지아

6. 활동 : 정기연주회, 불우이웃돕기 연주회, 각종 초청연주회

7. 단원 : 테너 15명, 바리톤 9명, 베이스 14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원학연(연세대학교음악대학 졸업, 헝가리 코다이 음악원 최고 과정 졸업, 리스트 아카데미 수료, 현)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출강, 성공회 대학교 신학 대학원 교회음악과 교수, 어울림 남성합창단 지휘자)
- 반주: 손지아(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부산시 교육위원회콩쿨1등, 이화경향콩쿨 입상등, 부산시향 ‘협주곡의 밤’ 협연, 다수의 실내악 연주, 카톨릭대학, 국민대 성악부 마스터클래스 강사역임, 베세토 오페라단 반주자 역임, 현) 과천시립예술단 홍보팀장 및 시립여성, 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

#### 부천 남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남성합창활성화),

2. 창립 : 2000년2월3일

3. 공연 : 정기연주회: 8회

4. 장소 : 부천시 복사골 문화센터 대강당

5. 찬조 : 하나로 합창단, 첼로 이선행, 바이올린 이지행, 테너 김철호, 베이스 심재완, 가브리엘 여성 앙상블, 부천 YMCA어린이 예술단, 피아니스트 이세호, 헤븐스하모니

6. 활동 : 정기연주회, 신곡(합창) 창작 및 발표

7. 단원 : 테너 21명, 바리톤 10명, 베이스 12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심재완(연세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이태리 로시니 국립음악원 졸업, 뻬스기리 아카데미 오페라과 졸업, 카를로 베르곤지아카데미 졸업, 뻬스가라국제콩쿨 F.Shubert 우승,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라보엠, 안나 볼레나, 돈 카를로, 리골렛토, 사랑의 묘약 등 30여회 출연, 메시아, 천지창조, 대관식미사 등 오라토리오 솔로, KBS등 수회 방송출연, 현)장신대, 세종대 출강, 부천남성합창단 상임지휘자, 음악앙상블 쏘노 음악 감독)
- 반주: 이세호(추계예술대 피아노과 수석졸업, 추계예술대 총장상 창조상 수상, 서울 청소년 콩쿠르 1위, 서울 내셔널 심포니, 추계예술대

오케스트라와 협연, 현) 부천남성합창단 반주자, 서울마포구립합창단  
반주자, 한국예술대 예술전문사 재학 중)

### 이천시 여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여성합창활성화)
2. 창립 : 1990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12회
4. 장소 : 설봉공원 내 공연장
5. 찬조 : 이천소년소녀합창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도자기엑스포 및 비엔날레 찬조공연
7. 단원 : 소프라노 9명, 메조소프라노 13명, 알토 11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유혜순(덕성여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협성대 음악과 졸업, 한국기독교음악신학교 신대원 졸업, 이천소년소녀 합창단 지휘, 수서남성중창단, 서울 맑은소리 합창단 지휘, 현)이천 여성합창단 지휘)
  - 반주: 김숙현(안양대학교 대학원 피아노 전공 졸업, 경기도 학생음악경연대회 최우수상, 이천예총예술상, 독주회·듀오 연주 및 다수의 음악회, 이천 콘서트 콰이어 반주, 이천 소년소녀합창단 반주, 이천 남성중창단 반주, 현)김숙현 피아노 학원장)
9. 후원회 : 개인회원: 11명

### 알함브라 기타 합주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클래식기타음악저변확대), 소외계층 기타강습
2. 창립 : 2004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5회
4. 장소 : 분당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
5. 찬조 : 수원 기타 앙상블, Pianist 이원지
6. 활동 : 정기연주회 개최, 위문봉사공연, 초청공연 참여
7. 단원 : 10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지휘: 신인근)

### 심우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1. 목적 : 순수음악활동, 친교활동, 사회봉사
2. 창립 : 1990년 9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14회
4. 장소 : 경기도 문화의 전당
5. 활동 : 정기연주회 개최, 한일친선교류연주, 한국만들린 Festival참가 등 각종 초청연주 참여
6. 단원 : 만들린: 30명, 만들라 13명, 만도첼로 4명, 기타 7명, 바이올린 첼로 1명, 콘도라베이스 1명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상임지휘: 이석기  
 단내지휘: 김애리  
 객원지휘: 전용섭

#### **의정부 여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여성합창활성화)
2. 창립 : 2004년 9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2회
4. 장소 : 의정부 예술의 전당
5. 찬조 : 테너 하석배, 이지스 Guitar동아리, Air 클래식 기타 합주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전국합창대회 참가, 각종초청연주참여
7. 단원 : 소프라노 9명, 메조소프라노 11명, 알토 10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김홍연(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일본 후지와라 오페라단부설 오페라 연구소 입단(합창지휘),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 대학원 음악연구과 졸업, 일본 사이타마 하루카 여성합창단 부지휘자, 일본 사회복지대학 보다이주 혼성합창단 지휘자, KBS 위성방송 '뮤직 와이드비전' 음악코디네이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역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강사역임, 현)바흐 음악문헌 연구소 소장, 기독교음악통신대학 강사, 의정부아버지합창단 지휘자, 의정부음악협회 사무국장, 홀리크로스 선교합창단 지휘자, 의정부여성합창단 지휘자, 일본연주가연맹회원)
  - 이은혜(충신대학교 교회음악과(피아노전공) 졸업, 의정부 예원교회 반주 지휘자, 의정부아버지합창단 반주자, 홀리크로스 선교합창단 반

주자, 의정부여성합창단 반주자)

### 구리시 여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여성합창활성화), 구리시홍보
2. 창립 : 1986년 3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16회
4. 장소 : 구리시청 대강당
5. 찬조 : 바리톤 임성규, 구리시 교향악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교도소 교회공연,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7. 단원 : 메조소프라노 14명, 알토 8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한태원(서울 음대 성악과 졸업, 서울 시립합창단, 서울 중등교사 재직, 노원구청 사회교육원 가곡강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성가대 지휘, 10회 정기연주회 지휘, 새노래로 주찬양 1집 작곡 출간, Vocal Ensemble 출연, 극동방송국주체 제22회 성가대 합창제 지휘)
  - 반주: 김지현(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네덜란드 로테르담 교민 음악회 초청연주, 메시아 대 연주회 반주, 하남 시립합창단 반주자 역임, 가곡 대사 초청 연주회, 전국 교회 음악 지휘자 세미나 반주 외 다수의 독창회 및 합창 반주, 박신화 교수와 영락교회 CD제작, 현)안양에 인 교회 반주자, 카르멘 뮤지컬 노래 반주)
9. 개인후원회가 있는 경우 : 개인회원: 8명

### 살뤼모 클라리넷 앙상블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클라리넷앙상블활성화)
2. 창립 : 2004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3회
4.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5. 활동 : 정기연주회, 초청연주회, 위문봉사공연
6. 단원 : 34명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음악감독: 이종우(경희대 음악대학원 졸업, 살뤼모 클라리넷 앙상블, 현)살뤼모 클라리넷 앙상블 상임 음악감독, 지휘)

### 시흥 YMCA 아버지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남성합창활성화),
2. 창립년도 : 2000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4회
4. 장소 : 종합복지회관 강당
5. 활동 : 정기연주회, 시흥 YMCA 초록동요제 주관, 위문공연, 초청연주
6. 단원 : 20명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지휘: 김장현  
반주: 박소영

### 수원유스콰이어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합창음악활성화)
2. 창립 : 2001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6회
4. 장소 : 경기도 문와의전당 대공연장
5. 찬조 : 현악4중주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전국합창경연대회 참여
7. 단원 : 소프라노 15명, 알토 12명, 테너 7명, 베이스 8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김철환(중앙대학교 합창지휘 석사, 연세대학교 음악교육학 석사, 한국중앙교회지휘자)
  - 반주: 유은정(성신여대 대학원 반주학과 재학 중, 수원 유스콰이어 반주자, 앙상블 무지까데이 반주자)
9. 후원 : 개인회원 20명

### 수원기타오케스트라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클래식기타대중화),
2. 창립 : 2004년 11월6일
3. 공연 : 정기연주회: 3회
4. 장소 :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5. 찬조 : Las Coreanas Quartet, Guitarist김재학, Guitarist한형일. 이윤희



6.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각종 초청연주 참여
7. 단원 : 22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박재만(평택대 음악과 클래식기타전공 졸업, 한국기타협회, 대전일보사 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쿨 심사위원역임, 현)한국기타협회 부회장 겸 경기도지회장)

### 수원기독남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남성합창활성화)
2. 창립 : 1986년 11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18회
4. 장소 :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공연장
5. 찬조 : Pianist 정선미, 한음 챔버오케스트라
6.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각종초청연주 참여
7. 단원 : 테너 I 13명, 테너II 14명, 베이스 I 9명, 베이스II 14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김창석(베제토 오페라단 지휘자, 한음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서울 현대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 현)수원기독남성합창단 지휘자)
  - 반주: 고은숙(세종대 피아노과 졸업, Italy musica di savona academia diploma, 현)수원기독남성합창단 반주자, 용인시립 소년소녀 합창단반주자, 수원수성교회 반주자, 기독교음악 통신대학 출강)
9. 후원 : 개인회원 20명

### 레이디스 하모니 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여성합창활성화)
2. 창립 : 1991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13회
4. 장소 : 경기도 문화의전당 소공연장
5. 찬조 : 시링크스 팬플룻 합주단, 주엘오카리나 연주단, 김광민의 2인
6.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각종 초청연주 참여
7. 단원 : 소프라노 11명, 메조소프라노 8명, 알토 7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이영희(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한광 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 역임, 우신여자 고등학교 음악교사 역임, 독일 Bonn대학 Sprach Kurs 수료, 독일 Bonn 대학 Musik Wissenschaft 수학, Neatherland대학 성악과 수학, 현)레이디스 하모니 지휘자)
  - 반주: 윤상원
9. 후원 : 개인회원: 39명

### 안양여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합창음악대중화)
2. 창립 : 1997년 5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9회
4. 장소 : 평촌아트홀
5. 찬조 : 휘오스 남성합창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전국합창경연대회 및 합창축제 참여
7. 단원 : 소프라노 11명, 메조소프라노 12명, 알토 15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박진우(17, 18회 난파음악제(피아노) 1위,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지휘 콩쿨 1등, 성결대학교 교회음악과(지휘전공) 졸업,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서울 시립대 협연) 지휘, 성결대 성악과(O.B) '마술피리' 지휘, 홍익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HIAMO' 정기연주, 연세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유포니아' 지휘, 현)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 재학(대학원), 안양여성합창단 지휘)
  - 반주: 이보연(선화예술고 졸업, 선화예술고 실기우수자, 연세대학교 기악과 졸업, 서울 글로리아 합창단 반주, 현)안양여성합창단 반주)
9. 후원 : 개인회원 19명

### 파란하늘

1. 목적 : 순수음악활동
2. 창립 : 2004년 11월
3. 공연 : 찾아가는 음악회 등 5회
4. 장소 : 김포시 체육 광장

5. 활동 : 위문봉사공연, 각종 친목활동
6. 단원 : 베이스 1명, 기타 1명, 하모니카 1명

#### **평택재즈앙상블**

1. 목적 : 순수음악활동(재즈의 활성화)
2. 창립 : 2003년 3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1회
4. 장소 :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5.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각종 친목활동
6. 단원 : 34명(Trumpet 2명, Trombone 2명, Horn 4명, Alto Saxophone 5명, Bass Guitar 1명, Electric Guutar 1명, Piano 1명, Bassoon 1명, Timpani 1명, Percussion 1명 外)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음악감독: 심상연
  - 지휘: 김병기

#### **고양클래식합주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클래식기타음악활성화)
2. 창립 : 2003년 8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2회
4. 장소 : 일산구청2층 대회의실
5. 찬조 : 중국기타리스트(천쯔 교수, 리지에, 왕야명, 천산산, 수명)
6. 활동 : 정기연주회, 각종위문봉사연주
7. 단원 : 15명
7.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단장 김성균

#### **온새미로 합창단(부천여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합창음악활성화)
2. 창립 : 2000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5회
4. 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5. 찬조 : 원미아트오케스트라, 합창단 “내 마음의 노래”

6. 활동 : 정기연주회, 각종초청연주 참여
7. 인원 : 소프라노 13명, 메조소프라노:10명, 알토 9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윤교생(추계예대 작곡과 졸업, 과천여울여성합창단 지휘자 역임, YMCA 은빛합창단 지휘자 역임, 부천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 합창단 “내 마음의 노래” 상임지휘자
  - 반주: 임성은(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동대학원 졸업, 독일 쾰른 음대 디플롬(L.A)과 최고 연주자과정 수료, 바로크 오르간 음악으로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쾰른 국립음대 2003년 여름학기 개강 초청연주, 새문안교회 오르가니스트)
9. 후원 : 개인회원: 15명

#### 분당여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합창음악활성화), 단원들 자기계발, 봉사활동
2. 창립 : 1992년 10월9일
3. 공연 : 정기연주회 12회
4. 장소 : 계원예고 벽강예술관
5. 찬조 : 오카리나 이정옥, 바이올린 임지선, 분당아버지합창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위문봉사공연, 각종봉사활동
7. 인원 : 소프라노 11명, 메조소프라노 10명, 알토 9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박용기(총신대학교 지휘전공 졸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지휘전공 졸업, 러시아 국립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전공 졸업, 캔티클 여성합창단 지휘자, 캔티클 남성합창단 지휘자, 분당여성합창단 지휘자, 금곡교회 지휘자)
  - 반주: 김선영(총신대학교 오르간 전공 졸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재학, 캔티클 여성합창단 반주자, 캔티클 남성합창단 반주자, 수정여성합창단 반주자, 분당여성합창단 반주자, 금곡교회 반주자)

#### 오산시민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합창음악활성화)
2. 창립 : 2004년5월1일
3. 공연 : 정기연주회 3회

4. 장소 : 오산문화예술회관
5. 찬조 : 전용섭 패밀리 앙상블, 오산 피꼬리 중창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각종초청연주 참여
7. 단원 : 소프라노 17명, 알토 8명, 테너 4명, 베이스 7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김형기(추계예술대 성악과 졸업, 독일 하이델베르크-만하임 국립음대 대학원 석사, 독일 칼스루헤 국립음대 연주박사, 동아 음악콩쿨, 한국성악회 콩쿨, 대구전국 성악경연대회 입상, 뮌헨 칼-오프 국제 성악 콩쿨 남자부 1위, 벨기에 베르비어 국제 성악 콩쿨 입상, 독일 바이로이트 장학금, 칼스루헤 국립음대 장학금 수혜, 89년 김자경 오페라단 주역데뷔 이후 유럽에서 40편의 오페라 주역 출연 (250여회), 엘리아, 메시아, 천지창조, 레퀴엠, 바하의 칸타타와 수난곡들, 베토벤 심포니9번, 외디푸스 렉스, 카르미나 부라나, 야콥스 라이터, 등 30여편의 오라토리오 및 음악회 140여회 출연, 독창회 11회 및 방송녹음, 현)평택대학교 초빙교수, 안양대, 성결대, 충남대, 목원대 출강)
  - 반주: 최숙희(수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 성신여대 대학원 반주학과 재학중, 슈만서거 150주년 기념음악회 출연, 한국 반주협회 정기연주회 신인음악회 연주, 김자경 오페라단 ‘해설이 있는 오페라 산책’ 연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성전 반주자)
9. 후원 : 개인회원: 6명

#### 고양시남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남성합창활성화)
2. 창립 : 1991년 3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13회
4. 주요 연주장소: 고양어울림극장
5. 찬조 : 코리아 하모니카 앙상블, 주니어 콰이어, 탈북예술인 교육문화단, 경민대 뮤지컬과 퍼포먼스 그룹, 9사단 군악대, 소프라노 이아네스, 바리톤 전기홍, 김포시립어머니합창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각종합창대회 참가, 초청연주 참여
7. 단원 : 테너1 14명, 테너2 16명, 베이스1 16명, 베이스2 15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하인근(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모스크바

Tchoukowsky대학 합창지휘, Diplom, 레닌그라드 st. Petersburge음악원 합창지휘 Diplom, 안양성결대학교 음악대학 총강, 고양시 남성합창단 지휘자)

- 반주: 박수연(서울예고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 강서구립 여성합창단 반주자 역임, 고양시 어머니 합창단 반주자 역임, 고양시 남성합창단 반주자)

9. 후원 : 개인회원: 43명

##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남성합창활성화)
2. 창립 : 1994년
3. 공연 : 정기연주회: 12회
4. 장소 : 포천 반월아트홀 대극장
5. 찬조 : 포천시립합창단, 아코디언 채수린, 대진Strings, 크로스오버 하모니카 합주단, 테너 정민화, 베이스 박태중, 교사 금관 앙상블, 백합어린이집 무용단
6. 활동 : 정기연주회, 각종초청연주참여
7. 단원 : 테너1 8명, 테너2 8명, 바리톤 8명, 베이스 12명
8.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력사항
  - 지휘: 김영철(러시아 st.Petersburg국립음악원 합창지휘과 졸업)
  - 반주: 조미경(대진대학교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졸업, 대진대학교 대학원 반주전공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음악 연수 수료, 대진대학교 출강)
9. 후원회 : 개인회원: 75명

## 내마음의 노래 합창단

1. 목적 : 순수음악활동(한국가곡활성화 및 대중화, 한국가곡 창작인 지원, 한국가곡자료 정리)
2. 창립 : 2004년 7월
3. 공연 : 정기연주회: 2회
4. 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공연장
5. 찬조 : 부천혜림원합창단, 내마노합창단, 일곱빛무지개중창단, 마산알핀로제요들클럽
6. 활동 : 정기연주회, 원로작고가 기념음악회, 가곡악보 제공 및 음반제작, 지역 가곡 교실 지원, 각종 초청연주 참여
7. 단원 : 소프라노 16명, 알토 14명, 테너 9명, 베이스 8명
8. 지휘자 :
  - 예술감독 : 정덕기  
중앙대 음대 작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Saabreucken 국립대학교 대학원 음악학 전공, 독일 Karlsruhe 국립음대 대학원 작곡과 박사, 독일 Konzaertexamen 졸업, 천안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내마음의

노래 합창단 예술감독)

- 지휘 : 윤교생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 졸업, 과천 여울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 역임,  
한국100인창작음악연합회 이사, 부천여성합창단 상임 지휘자, 부천예  
술포럼 음악위원장, 내마음의노래합창단 상임지휘자

- 반주 : 김민경

서울예고, 이화여대 졸업, 마산 시향 단원과 Trio공연, 피아노 듀오  
및 실내악 , 카메라타, 세계평화축전 대합창제, 고려대 100주년 기념  
연주회 등 연주, CD/ 한국 가곡 학회-창작 가곡 제10집, 제11집,  
CD/한국예술가곡사랑회 제3집, (현)내마음의노래 합창단 상임반주자,  
내마음의노래가곡교실 상임반주자

#### 9. 후원회

후원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기문화재단, 비앤비, PBC평화방송, 평화  
신문, 음악춘추사,작곡21

개인회원: 187명



## 제 4 부

---

아마추어 음악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제언



## 제 4 부 아마추어 예술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제언

- 우선 각 나라의 아마추어 합창운동에서 얻은 인상은 상위조직이 있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합창단의 숫자와 활동이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전일본합창연맹은 전국 규모로 연맹 홈페이지에는 대다수 회원이 참여를 하여 일본의 합창단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 홈페이지가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 주어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다. 국가 지원이든 지자체 지원 및 민간 지원이든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합창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창단의 규모와 숫자 등등을 파악하고 정보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합창총연합회(KFCM, Korean Federation for Choralmusic)와 부산에서 조직된 한국 합창조직위원회(KCI, Korean Choral Institute)가 민간차원에서 합창음악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단체 모두 국제 합창연맹에 가입되어 있지만, 아직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정보공유나 아마추어 단체들의 참여도, 자료보존 및 국제 교류 등 시작단계의 수준에 있다. ‘의욕적인 단원’과 ‘실력 있는 지휘자’, ‘마인드 좋은 행정’의 삼박자<sup>71)</sup>로 직업합창단을 능가하는 한국의 아마추어 합창단<sup>72)</sup>이 요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체계적인 아마추어 합창단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런 추세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 합창단의 질적 성장은 음악 실기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많아도 음악 문화적으로 매우 수준이 낮은 우리의 기이한 현상을 점차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활력소가 되며, 우리의 전반적인 음악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 독일, 일본 뿐 아니라 유럽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어떤 문화적 활동에 대해 항상 역사적인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맹소속의 자료실이나 합창음악연구소 등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과거에 어떻게 합창운동이 전개되어 왔는지 알 수 있도록 실황 녹음자료 뿐 아니라, 프로그램, 문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일회성의 이벤트 성격으로 끝나지 않고 합창운동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 **자료보관 작업**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취약한데, 전국적인 상위조직이 결성되면 반드시 함께 고려해서 처

71) 탁계석, “국 시립 합창단 정체성 위기 오는가”, <음악교육신문> 2007. 6. 20. 제382호, 2.  
72) “사랑과 평화의 이념을 실천하는 합창 공동체 - 용문OB남성합창단 Mir Male Choir”, <음악교육신문> 2007. 7. 4. 제383호, 13.

음부터 **자료실을 운영**하도록 체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각 합창단의 실제적인 자료(연주회 실황, 악보 등)를 보아 공공에 개방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체제를 의미한다.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합창단 운동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기유발에 없어서는 안될 근본적인 토대이다.

- 영국의 합창운동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정책이 반영되어 흑인이나 아시아인 등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수민족을 합창회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청중으로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소외된 계층을 고려하는 영국 합창단의 홈페이지에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들어 있어서 합창단의 활동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는 소외계층이 얼마나 잘 사회와 시민들에게 포용되고 있느냐에 좌우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창운동도 **외국인 노동자,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 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것이 된다면, 그래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음악적 접촉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풍성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합창운동은 저절로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합창운동이 자생적인 힘을 발휘하였을 때는 노동자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아마추어음악이 등에 업었을 때 였고, 그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른 분야와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 합창음악운동이 시민사회의 순환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가치는 단순히 숫자나 액수로 따지기가 힘든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 좌우되므로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많은 시민은 여가시간에 합창음악 외에도 기악을 연주하는 아마추어 음악가인데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크다. 출판사, 홍보사, 악기제조회사, 신문잡지사, 음악교육자, 음악학교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년 약 400억 프랑의 음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운동도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시민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이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재단에서 지원하여 아마추어 음악운동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독일 합창연맹은 최근 들어 정년퇴직 후의 노인층을 위한 합창음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계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인층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노인층을 위한 문화창출**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급선무 중 하나일 것이다. 합창음악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사회적 삶의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후원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수동적으로 되어 의욕을 잃은 노인들을 어떻게 합창활동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끌어들이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합창음악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사회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해서 행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합창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좋은 지 홍보도 필요하다.
  
- 아마추어 합창음악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아마추어 합창단과 전문 음악단체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프로젝트로 연구되었다. 아마추어 합창단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연습장소 부족, 음악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전문 음악대학과 협의하여 돕는다면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아마추어 합창단은 일정한 연습실을 확보하여 좋고, 음대에서는 음악전공자의 사회적 고립을 이들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욕구를 이해하면 음악전공자의 사회적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아마추어 합창음악운동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대표적 조직이 있어야 음악대학 책임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서로의 협력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 지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도 필요하다. 이것은 일회적인 시도로 끝나지 않는 일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그러자면 이런 일을 맡아 하는 집중적으로 하는 인력도 필요하다. 지역의 **아마추어 음악인과 전문가 단체와의 상호 협력**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아마추어 합창음악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서는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한 사례연구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우리의 아마추어 음악운동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봉사자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은 사회적 인정에 대한 높은 욕구가 매우 높으므로, 이 제도를 잘만 운영하면 다른 정책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봉사하는 데는 유럽이나 아시아나 같은 인간의 심리보상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 제도가 참여자에게 충분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자원봉사자로 가장 많이 활약하는 노인층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층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제약으로 제한이 있

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층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공동생활에 대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층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자원봉사자 제도는 우리에게도 낯선 일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기능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화를 받고, 정보 및 연락 사항을 잘 챙겨두는 일, **둘째**, 조직적인 문제, 즉 합창단이 계획하는 행사가 있다면, 이를 위해 사전에 어디서, 언제, 누가 무슨 일을 준비하는지 노련한 경험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짜주는 일, **셋째**, 단순히 악보 복사나 합창단이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소한 것을 미리 챙겨주는 일, **넷째**, 젊은 단원들의 문제에 대해 귀기울여주고, 상담 해주는 일 등 자원봉사자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기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랑스, 독일처럼 아마추어 음악이 궤도에 오르면 **아마추어 음악가의 자격 시험**을 개발하여 테스트를 통해 국가 공인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도 구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전문 음악인들이 사례금을 받고 지휘하는 경우가 아마추어 합창단체의 50%에 해당하고, 회원들의 회비가 거의 이를 위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추어 출신의 지휘자가 공적인 인정을 받고 자발적으로 아마추어 음악단체를 이끌어 나가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아마추어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중요한 인재가 되며, 큰 잠재력이 된다. 이들 합창단 지휘자들의 내적 욕구도 이런 인증서를 통해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 아마추어 합창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단원의 자발성과 동기유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외국의 합창단처럼 백년 이상의 생명력을 가지는 합창단이 되려면 각 개인이 합창단의 활동에 만족될 때인데, 이것은 익숙한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익숙한 것과 새 것을 병행할 때 단체에 대한 신선한 긴장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레퍼토리의 개발이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새로운 레퍼토리는 각 지역의 음악가들에게 위촉하고 일본의 현대음악가들의 작품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역 작곡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이들과의 연계는 상상도 못하는 단계이다. 그렇다고 현재 출판되는 합창곡집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선 정보를 제

대로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듯하다.

따라서 합창단들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수요를 충족해주는 **합창레퍼토리를 개발하여 합창곡집을 출간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창작 합창곡집과 위촉작품등을 악보로 남기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또한 외국의 합창레퍼토리를 많이 수집하여 이를 시리즈로 편집해내어도 합창단들의 레퍼토리는 훨씬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될 것이다.

- 아마추어 합창운동은 아마추어 문화전반의 풍토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아마추어 합창단 및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중, 아카데미 하우스는 회원들이 각자 음악적 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느끼는 자기 개발이 적극적인 동기유발이 됨을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다. 아카데미 하우스는 건물 뿐 아니라,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체제가 중요한데, 독일의 아카데미 하우스 프로그램은 대체로 이미 2007년까지 짝 짜여 있어, 일년 전에 미리 등록신청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음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선호도를 얻기 위해서는 화려하거나 고급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음악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이 **실용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연주홀, 연습실, 음향시설, 조명시설, 침실, 부엌, 휴게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이 있고, 악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케스트라 악기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 특히 기악음악인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에게 휴식과 음악적 훈련을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아카데미 하우스의 건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카데미 하우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그 지역은 아카데미 하우스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며 지역의 특성화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카데미 하우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마추어 음악인들에게 흥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아마추어 합창단은 연습실과 정기 연주회를 위한 공연장소비에 회비의 30%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 연습실과 무대**를 지원해준다면, 아마추어 합창단의 전반적인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마추어 음악단체를 결성하게 된 계기로 세미나 참여도 중요한 동기

가 되고 있으므로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자기 개발과 재미를 가지고 몰두 할 수 있는 워크숍,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아마추어 음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의 **세미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수 있다.